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6월 1, 15, 22, 29일 69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yahotour21@hanmail.net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5월 18일(음력4월 11일) 수요일 (주간) 제526 호

“선수행 대중화 저변 넓혔다”

범어사 설선대법회 7일 회향
진제 스님 ‘무차선회’ 성황



설선(說禪)의 법석이 무차선(無遮禪) 법회로 회향됐다.

선찰대본산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3월 5일부터 10주 동안 공동 주최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가 5월 7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의 회향법문과 무차선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무차선회에서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이 법주로 나서 출·재가자들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등 8천여 사부대중에게 ‘선의 참맛’을 일깨웠다.

무차선회에 이어 거행된 설선대법회 회향식에서 대성 스님은 폐회사를 통해 “앞으로도 참된 선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법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은 “세세생생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리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 그것이 법회를 기획한 가장 큰 보람일 것”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날 법회에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이 참석, 축사를 했다.

회향식에서는 또 설선법회 등록자 총 2984명 중에서 10회 모두 참석한 1374명의 재가불자들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사진). 또 참선실수 프로그램에 동참한 421명에게는 안거증이 수여됐다.

범어사=김철우 기자

관련기사 10 · 11면

불교계 운영 복지시설들

“생필품이 모자라요”

본사, 500여 시설 실태조사 … 후원 줄어 ‘생활고’
노인복지관 4년간 2배 증가, 장애인생활시설 4곳뿐

불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들에 쌀이나 부식 등의 식자재와 휴지, 비누와 같은 생필품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본사 부다피아 사회복지팀이 2004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500여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시설, 사회복지 NGO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1차 불교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다피아 사회복지팀이 불교계가 운영하는 500여곳의 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우편·전화·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국 105개의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54개 복지시설의 복수응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로원과 요양원 등 보호를 목적으로 한 생활시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은 기저귀·세제·비누 등의 생활용품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대용량 세탁기와 의약품·소독기·휠체어 등을 원했다. 이는 생활시설 어르신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만큼 소모품인 생필품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주식인 쌀과 이동차량을 원했다. 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이용자수와 비례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뒤를 이어 필요하다고 답한 물품 역시 김장김치나 부식 등 식사 준비에 관련된 식료품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전체 23개 시설 가운데 18개소가 응답한 장애인 시설의 경우 기저귀 등의 생활용품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간·단기보호, 재활센터 등 재가시설은 쌀과 부식, 휠체어 컴퓨터 교구교재, 장애인보장구 등의 물품 후원을 1순위로 꼽았다.

유아·어린이의 장애를 돌보고 있는 시설들은 성인 시설과는 달리 어린이 의류와 컴퓨터,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복지시설들 역시 재가·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식사와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쌀 김치 고기 등의 식료품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아이들 공부방에 필요한 교구교재와 컴퓨터, 명절 때마다 지급할 수 있는 선물 등의 후원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육시설은 대형세탁기와 급식용 쌀·부식을, 부랑인 시설은 세제와 온풍기, 노트 등을, 정신보건시설에서는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을 필요로 한다고 답했다.

부다피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불교사회복지시설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 중 차량 등의 고가 장비를 제외하고는 불자들의 모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복지시설에 대한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 대상자별 필요 물품 정리뿐만 아니라 현재 불교복지기관의 숫자, 시설장 지위, 운영형태 등도 파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불교사회복지시설 10개 중 3개는 조계종을 비롯한 천태종·진각종 등 큰 종단 종립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종단 복지기관 산하 시설들은 자체시설보다는 위탁시설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불교사회복지의 자립도 문제가 불교계가 안고 가야할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음이 확인됐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2면에 계속

노인복지시설의 필요 물품 목록

		필요 품목			주사용처
		1순위	2순위	3순위	
생활시설	양로원(8)	생활용품 (기저귀, 세제, 비누 등)	복사기, 세탁기	일반의약품 소독기	입소노인 사용
	노인요양원(13)	생활용품 (기저귀, 세제, 비누 등)	쌀, 가습기	침대, 야채커터기. 잡곡, 휠체어	입소노인 사용
재가시설 노인여가 기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5)	경차량	쌀, 김치	복사기, 프린터	재가노인지원 도시락 배달용
	주간보호센터(3)	난방기구	텔레비전	기초화장품	사무실내 설치
	단기보호소(4)	쌀, 컴퓨터	생활용품 (기저귀, 세제, 휴지 등)	김장김치, 음료	시설입소자용
	노인복지관(14)	쌀, 컴퓨터	노인용 생필품, 김치김치	차량(소형버스), 냉장고, 에어컨	노인급식용 재가노인지원
	경로식당(6)	쌀	김장김치	부식	식사준비
	무료세탁(1)	세제	—	—	무료세탁서비스

※( )은 응답한 시설의 숫자임



‘누가누가 잘하나’ 조계사(주지 원담)는 5월 1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신도와 지역 어르신 500여명을 초청해 장기를 뽐내는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날 조계사 스님들과 신도, 어르신들은 7개 참가팀 열띤 장기와 축하무대를 보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박재완 기자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법보시’ 용으로 적격

염불은 거룩한 부처님의 명호와 말씀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외워 간직하고 숭앙함으로써 부처님 가까이 다가가 우리의 마음이 보다 높은 열림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의 방편입니다.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성(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향(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인연을 맺도록 널리 보급합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보급 문의 (02)737-0695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곁에…”

15일 조계사 등 전국 사암서 봉축법요식 봉행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 15일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사에서 봉행된 법요식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자성(自性)가운데서 부처를 찾을지언정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라며 “꽃이 피면 한량없는 세계가 일어나고 티끌이 모여 불국토를 이룹니다”라는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광명의 등, 자비실천의 밝은 등불이 켜져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올해도 오시고, 내년에도 오시며 앞으로 언제까지든 우리 곁으로 오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요식에서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이, 산악인 박영석, 축구선수 박지성불자대상을 받았다.

영상뉴스 buddhanews.com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그림·조태호

진제 스님의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 10 · 11면에

금주 20면 발행

‘범어사 설선대법회’ 부록 발행 타블로이드 8면

제 3회 세계평화기원을 위한 수륙대재 및 방생법회
(초청 : 증명법사 고산 큰스님)

● 일시 : 2005년 5월 30일 (음 4.23)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통영시 (도남동 유람선 터미널 옆)
• 개회식 행사장 : 도남동 도남 관광지 • 방생법회 행사장 : 욕지면 연화도 용머리 해역
● 문의 : 전화 055)645-6683, 645-3060 / 팩스 055)641-3060
017-553-3397, 011-9854-7313

※ 배를 타고 방생을 하며, 방생과 연화도 참배는 무료입니다.



■ 주 최 : 통영사암주지연합회
■ 후 원 : 통영시, 통영관내수산업협동조합, 불교신문사, 불교방송국, 통영불자연합회

“스님의 원적 실상도리 보이심…”

벽암스님 영결 · 다비식 10일 신원사서 엄수

벽암(碧岩)당 동일(東日)대종사 영결식이 5월 10일 공주 신원사에서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의원 초우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우리 종문의 선지식이신 벽암대종사께서 말후구(末後句)를 남기고 환귀본처(還歸本處)하셨다”며 “눈앞에 가득한 청산이 전로법신(全露法身)인데 일체성색(一切盛色)이 어찌 스님의 진성(眞性)과 다름이 있겠습니까?”라고 법문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원로의원 지관 스님이 대독한 영결사를 통해 “오늘 대종사께서 계룡산을 겁게 물들이고 조수(鳥獸)들마저 울음을 멈추게 하시며 원적을 보이신 것은 제불조사(諸佛祖師)들이 보이신 그것과 다름이 없으며 실상의 도리를 일러 주심”이라며 원적을 애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총무부장 무관 스님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큰스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종문(宗門)에는 요즘도 부끄러운 일도 적지 않습니다”라며 “이에 종도들은 스님께서 굳이 꽃피는 봄에 입적한 뜻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제불제조(諸佛諸祖)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송석구 전 동국대학교 총장의 조사에 이어 영결식은 조가, 분향 및 헌화, 발인 순으로 끝났다.

한편 스님 법구는 신원사에서 도보로 10여분 떨어진 다비장으로 이운된 후 본래 제 자리로 돌아갔다.


벽암당 동일대종사 영결식에는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禪냄새 안나는 선사였습니다”

- 문도 · 후학들이 말하는 벽암 스님

“진짜 된장은 된장 냄새가 나지 않는 것처럼 벽암 스님은 선 냄새나지 않는 선사였습니다.”

벽암당 동일대종사 문도 중 한탑 스님은 벽암 스님을 “엄격했지만 자유로웠고 냉정했지만 자상했다”고 회고했다.

신원사 벽수선원장 묘봉 스님의 유명한 현각 스님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안거 때마다 선방을 지켰던 벽암 스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던 이야기를 꺼내자 묘봉 스님은 “스님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사 회주 법전 스님은 “벽암 스님은 한 번 옳다고 생각하시면 굽히지 않으셨다”며 ‘엄격함’을 강조했다. 유발상좌인 강동균 교수(동아대)도 “수행을 무리하게 해 이가 없어지고 폐병까지 얻을 정도였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했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상좌들에게 주지 자리 한 번 추천한 적 없었을 뿐 아니라 동국학원 이사장으로 계셨을 때도 동국대 다니는 상좌들에게 장학금 한 번 챙겨주시는 법 없으셨다”며 “이 때문에 일부 상좌들이 서운한 감정을 가지기도 했지만 바로 이런 부분에 스님의 진면목이 있다”고 술회했다.

묘봉 스님은 벽암 스님이 원적하기 전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냥 기름 한 통 붓고 불태워버려라. 사리도 수습하지 마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로울 수 있었던 ‘선 냄새나지 않는 선사’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원사=남동우 기자

종단협 · 조불련 ‘한 목소리’

독도 · 역사왜곡 관련 일본 강력규탄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 · 조계종 총무원장)와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박태화) 중앙위원회가 공동으로 일본의 독도주권 침해 및 역사교과서 왜곡을 강력 규탄했다.

종단협과 조불련은 5월 10일 발표한 입장에서 “우리 남북불교계는 진정으로 일본 당국과 국민들이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 일본 불교계도 군국주의의 망령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종교인의 양심에서 일본의 사회지도층을 계도하여 주기 바라며, 우리 남과 북의 불교도들도 이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부처님 전에 엄숙히 서원한다”고 밝혔다.

종단협과 조불련은 일본 정부에게 ▲‘다케시마의 날’ 조례 즉각 철회 ▲과거사 날조 왜곡교과서 검정 합격 즉각 취소 ▲영토주권 침략행위 즉각 중지 ▲침략과 전쟁의 과거사 참회 및 아시아 평화와 상생의 길 동참 등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리더십 강한 여성이 아름답다”

여성개발원 18일부터 교육

불교여성개발원은 5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조계사 교육관에서 ‘여성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여성 종무원을 비롯해 불교계 여성 지도자 및 활동가 40여 명이 참여할 이번 교육은 여성들의 리더십을 향상시켜 조직 내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여성 활동가들 간의 연대의식 강화,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3개월간의 기본교육과 과제학습, 1박 2일간의 워크숍이 포함된 이번 교육은 ▲숙명여대 이화영 강사, 문화관광부 손경연 문화중심도시 조성추진기획단 조사연구팀장 등과 함께 고찰해보는 ‘여성에게 필요한 리더십’ ▲명상상담연구원 인경 스님, 이화여대 신경정신과 이근후 명예교수 등이 강연하는 ‘나를 알아야 남을 이끌 수 있다’ ▲각종 여성단체장 및 여성교수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지도자들을 초청해 조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생생한 현장 리더십 배우기’ ▲김은경 세종리더십 개발원장에게 듣는 ‘여성 리더의 비전 만들기’ 등 총 4개의 세부내용으로 총 10주간 매 주1회씩 진행된다.

불교여성개발원 이화 사무국장은 “여성 입장에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해 고찰해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성 리더십 교육 수강료는 3만원이다. (02) 722-2102 이은비 기자

만봉스님 ‘특별전시회’ 열린다

태고종, 전승기념관 불사 성금모금위해

2006년 9월 완공예정인 태고종 새 총무원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공한 이후 전승관 건립불사에 매진하고 있는 태고종이 전승관 불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건립성금 모금을 위한 만봉스님 특별 전시회를 연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5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승관 건립은 한국불교와 태고종의 중흥의 의미를 띠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불사”라며 “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만봉 스님의 작품전시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시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

6월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 백상빌딩 내 모란갤러리에서 열리는 ‘만봉 스님 불화 · 민화 작품전’에는 상단탱화, 감로탱화, 영산회상도, 극락도, 팔상도, 관음도, 나한도, 달마도 등의 불화와 십이지신상, 신선도 등의 민화, 나한도 달마도 관음도 등으로 제작한 미니병풍 등 10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얼마 전 입적한 조계종 원로였던 석주 스님이 글을 쓰고 만봉 스님이 그림을 그린 수십여 점의 작품도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회 수익금은 전액 전승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된다.

전승관 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아 건립기금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봉 스님(중요무형문화재 48호)은 “한국불교 전체의 중흥을 위해서도 전승관 불사는 성공리에 회향돼야 한다”며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정성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교무 백운, 사회 법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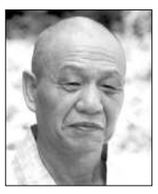
태고종 총무원 인사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5월 4일 교무부장에 前 사회부장 백운 스님, 사회부장에 前 교무부장 법현 스님을 임명했다.

새로 설치된 호법부의 수장으로는 성중 스님(안성 약사사)을 선임했다. 또 문화부장에는 기봉 스님(서울 봉원사), 사업부장에는 前 문화부장 묵원 스님을 임명했다. 박봉영 기자

신흥사 주지에 무산스님

9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



속초 신흥사 새 주지에 무산(오현) 스님이 선출됐다.

신흥사는 5월 9일 강당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새 주지 후보에 무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0일 무산 스님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무산 스님은 59년 직지사에서 성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68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신흥사 주지, 성준장학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강유신 기자

고침

본지 525호 A15면 봉축 법어 중 미륵종 종정 대행으로 표기된 송정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입니다. 현재 종정 스님은 연화 스님(사진)입니다. 미륵종에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1면에서 계속

반면 불교사회복지법인은 2001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발간한 ‘한국불교복지편람’에서 밝힌 43개보다 8개 늘어나 51개. 불교계 내부에서도 시설수탁보다 직접운영 위주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은 2001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발표한 수치인 50개에서 105개로 급격히 증가해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추세에 불교계가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기관수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노인층에 특히 필요한 의료복지가 가능한 시설의 수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물리치료실까지 포함해 91개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이 불교복지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곳은 노인전용 병의원 1곳인 충북과 노인종합복지관 1곳이 있는 전북으로 실비요양원, 전문요양원 등이 단 한 곳도 없는 이들 지역 복지시설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2004년 밝힌 자료에서 41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 중 불교계 시설은 4개소로 약 0.96%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장애인 불자들이 불교를 등지게 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불교계가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로 전국적으로 113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국내 민간 보육시설 1만 4145개소의 0.8%에 불과한 수치다. 게다가 보육원 7개소(전체 시설 대비 2.9%), 그룹홈은 3개소 밖에 안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생활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복지시설들이 대부분 노인복지시설인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소수인 장애인 · 노숙인 복지시설과 여성 전용 복지시설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불교계 복지시설의 정보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복지관은 37개 중 34개(91.9%), 노인복지관은 78개 중 61개(78.2%) 시설이 홈페이지를 운영해 정보화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은 126개 중 37개(29.4%), 청소년 복지시설은 29개 중 5개(17.2%) 시설만이 홈페이지를 갖고 있어 이들 시설의 정보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시설은 151개로 운영하는 시설 149개를 넘어서고 있어, 절반 이상의 시설이 정보화사회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발표한 부다피아는 올 8월중 부다피아(http://buddhapia.com)사이트 내에 ‘복지사이트’를 신설해 이번에 발표한 조사자료와 사회복지총론은 물론 자원봉사처와 봉사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회복지 자료 제공, 복지관 소식 메일링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진감 초의선사의
다맥 茶脈 전수 및
쌍계사 산사음악회

조대의 글

귀의삼보하옵고,
하동야생차 문화축제기간을 선용하여 한국 다도의 근본도량인 쌍계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감 초의선사의 다맥전수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하오니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1. 산사음악회 『진공묘유(眞空妙有)』
● 일 시 : 2005년 5월 20일(금) 오후 7시 ~ 9시
● 장 소 : 쌍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
● 주 관 : (사)진감 초의다맥 한국선다회
● 후 원 : 하동군청, 쌍계사 본말사연합회, 불교신문, 불교방송
● 출 연 : 나왕케촉 (티벳 피리연주자), 설운도
이 안 (대장금 주제가), 고려대 노래패



● 주 제 : 眞空妙有(진공묘유)
행사당일 오후 4시부터 쌍계사 무료입장

2. 다맥전수식 및 헌다례



● 일 시 : 2005년 5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쌍계사 대웅전
● 문 의 : 쌍계사 종무소 및 홈페이지
● 주 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5번지
● 전 화 : 055)883-1901 ~ 2
홈페이지 : www.ssanggyesa.net

쌍계사 산사음악회 식순
식전행사 : 오후 6:00 – 6:30 중국 다도 용행 18식 공연
제 1부 : 진공 眞空 (진정한 쉼, 그 자리) 오후 7:00 - 8:00
사물(법고, 목어, 운판, 범종)
나왕케촉 피리연주
조실스님 법패시연
제 2부 : 묘유 妙有 (더불어 생동하는 삶) 오후 8:00 - 9:00
하동군수 축사
고려대 노래패 ‘못갖춘 마디’
이 안 (대장금 주제가 외)
설운도 (사랑의 트위스트, 다함께 차차차 외)
쌍계사 불교합창단(찬불가, 사홍서원)

사단법인 진감 초의 다맥 한국선다회 이사장 고 산
(◆문의 : 쌍계사 종무소 055-883-1901~2)

지역사찰 · 직장단체 연합 전폭 지원

성남시청 불자회 창립 도와

성남시청 공무원불자회의 창립과정이 지역 사찰과 재가불자, 상급 직장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뤄져 귀감이 되고 있다.

성남시청 공무원불자회는 5월 7일 성남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4월초 정토사 주지 보광 스님의 주선으로 성남시청 불자 5명과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 관계자 등이 창립준비모임을 연지 한달만의 성과다.

성남시청 공무원불자회는 이날 창립되기까지 2년여의 자체적인 준비기간을 거쳤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50여명의 회원 가입 희망자를 모집하고도 창립이 여의치 않았다. 법회를 집전할 수 있는 회원이 없고 창립절차, 지역사찰과 연계방법 등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 게다가 회원들은 막연히 불교가 좋아서 가입한 '정서적인 불자'가 전부였다.

그러나 성남시청 공무원불자회는 자체적으로 모든 창립 준비를 해왔던 여느 직장불교 단체들의 창립과정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역불교계와 공불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손쉽게 창립하게 된 것.

창립을 준비를 해왔음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보광 스님과 청계사 회주 종상, 주지 성행 스님, 봉국사 주지 효관 스님, 성남불교사암연합회장 지관 스님, 임선교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지부장, 송병욱 前 해군법사, 성남불교산악회 등 지역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비롯해 공무원불자회 연합단체인 공불련 창립을 돕고 나섰다.

지역불교계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네 차례의 모임을 열고 창립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향후 법회지원, 주요 관계자 면담 등을 성사시켰고, 공불련은 회칙 제정, 초청인사 선정 등을 지원했다. 성남시청 공무원불자회는 이들의 협조 아래 회원 확보와 법회 참가 등을 독려해 5월 7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성남시청 공무원불자회는 이날 김인규 건설교통국장을 회장으로, 김병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창립을 도운 지역불교계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증명, 지도법사와 지도위원으로 각각 추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로 했다.

보광 스님은 "지역 관공서의 공무원 불자회가 결성되면 결과적으로 관공서 내 종교활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찰과 불자들이 혜택을 받는다"며 "아직도 공무원불자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불자회 창립을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장애아동 전문 불교어린이집 개원

청주 보현사 무료운영

청주 보현사(주지 원봉)는 상당구 율량동에 장애아동 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현어린이집을 건립하고 4월 30일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보현사 주지이자 태고종 복지원장인 원봉 스님과 청주불교방송사장 지원 스님, 청주청원사암연합회장 각의 스님, 한대수 청주시장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참석했다.

150여 평의 보현어린이집은 전문특수교육, 언어치료 · 물리치료 · 심리치료 등 각종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역 장애인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보현의 집 이용은 무료이며, 일반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종일반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보현사가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보리수어린이집 바로 옆에 보현의 집을 건립하고 두 시설 사이에 연결통로를 설치해 장애아동과 일반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명우 기자

화마에 휩쓸린 후 첫 초파일

낙산사엔 쓸쓸함만…

5월 6일 늦은 오후 양양 낙산사(주지 정념).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지 꼭 한 달이 지난 낙산사는 하루 종일 내린 봄비 말고는 찾는 이가 거의 없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사찰치고는 적막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경내 곳곳에 연등이 설치돼 있기는 했지만 예년에 볼 수 있었던 연꽃등은 찾아볼 수 없다. 겨우내 만들어 원통보전 옆 무설전에 보관해 놓았던 연꽃등이 모두 타버렸기 때문이다. 현재 설치돼 있는 주름등이 낙산사의 아픔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다.

성금을 들고 찾아오던 이들의 발길도 열흘 전쯤부터는 거의 끊겼다.예년 같으면 하루 종일 관람객들과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1/3 수준이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낙산사를 찾는 이들이 단등은 큰 폭으로 줄었다. 5000여개의 등이 일주문에서부터 홍례문을 지나 경내 안까지 설치돼 있지만 등표가 달린 등은 1/5도 채 되지 않았다. 검게 그을린 채 죽어있는 키 큰 소나무들은 황량함을 더해주고 있다.



검게 그을린 7층석탑에 봉축 연등이 걸렸다. 사진=고영배 기자

김득중 사무장은 "13년째 일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썰렁한 적은 없었다"며 "사찰 경관도 그렇고 아직 불안정하다보니 찾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지원으로 모든 복구가 이뤄진다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성금이 크게 줄어들자 주지 정념 스님은 복구동참을 도움을 호소하는 안내문을 전국 사찰에 보내고 있지만 관심을 보이는 곳은 거의 없다. 불과 한 달 만에 낙산사는 벌써 잊혀져가고 있었다. 양양 낙산사=한명우 기자



통도사서 KBS 열린음악회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에서 신도 등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월 10일 KBS 열린음악회가 열렸다. 부처님오신날인 15일 KBS 전파를 탄 '열린음악회'에는 테이 마야 장윤정 별 조은 이자연 김영임 등이 출연해 부처님 오신 기쁨을 함께 나눴다. 천미희 기자

법련사 약사여래삼존불 점안



서울 사간동 법련사(주지 보경)는 5월 8일 약사대불전을 마련하고 약사여래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련사 뒤뜰에 조성된 노천법당인 약사대불전에서 봉행된 점안식에는 조계종림 송광사 방장 보성, 원명선원장 원명 스님을 비롯 수덕사 수좌 설정, 법련사 회주 현호, 법련사 한주 지묵,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조용수 기자

"살아있는 지장보살 되라" 법정 스님 길상사서 법문

5월 8일 맑고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지장전 점안 및 낙성법회에서 맑고향기롭게 대표 법정 스님이 '살아있는 지장보살' 법문을 했다.

2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법정 스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세월의 비바람에 깎이고 썩지만, 우리는 세월의 비바람에 허물어지지 않을 지장전을 각자 마음속에 세워야 한다"며 "자비의 힘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달아 지장보살의 비원을 각자 마음속에 새겨서 살아있는 지장보살이 되자"고 강조했다.

길상사 지장전은 지상2층, 지하1층, 연건평 460평 규모다. 박봉영 기자

목탁소리

변해야할 봉축 '콘텐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5월 8일 종로 일대에서 열린 '연등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문화 콘텐츠 부재가 역력했다.

조계사 앞길에서 펼쳐진 문화마당은 지난해와 비교해 눈에 띄는 볼거리가 없었다. 연등 만들기, 사찰음식 전시회, 수지침 자원봉사 등 굳이 대규모 봉축행사가 아니더라도 지역 불교축제 현장에서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었다. 처음 한국을 찾은 벽안의 이방인들에게는 한번쯤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매년 참가하는 내국인들에게는 식상할 뿐이다.

또한 봉축행사도 하나의 불교 축제인데 행사 진행이 무척 경직됐다는 인상이 강했다. 제등행진을 지켜보려는 시민들은, 원활한 행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곳곳에서 차단당했다. 외국인들은 편한자리에서 제등행진을 관람할 수 있어도 정작 불자들과 시민들은 인도에 서서 비집고 행렬을 맞아야 했다.

세계에는 유명한 축제들이 많다. 브라질의 삼바축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축제, 프랑스의 와인 축제,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 축제들에 세계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매년 충분한 볼거리와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 기념 연등축제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행복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하기 위해선 이제 행사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때가 됐다. 김주일 기자

영동 중화사 5월말 시민선방 개원

충북 영동 중화사(주지 현구)는 15평 규모에 30~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민선방을 5월 말 개원한다.

비록 작은 규모지만 중화사 시민선방이 운영될 경우 충북지역 시민과 불자들의 참선수행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화사 시민선방은 일반 시민선방과는 달리 천도재 및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참선지도는 일주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7일간 참선정진한 뒤 마지막 회향날 천도재를 지내게 된다.

이와 함께 큰스님 초청법회를 열고 다도나 붓글씨, 요가 등의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시민선방을 지역민들의 수행 · 문화공간으로 가꿔나갈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청주 풍주사 '법등원 자등원' 낙성

청주 풍주사(회주 범추)는 1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일 경내에서 고시원 겸 요사채인 '법등원 자등원' 낙성식 및 6층 공덕탑 진신사리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또 관음전 보탑에 봉안돼 있던 부처님 진신사리 15과 중 6과를 새로 조성된 6층 공덕탑에 봉안하고, 종각을 조성하는 등 기도도량으로서의 사격도 갖추게 됐다. 한명우 기자

충북불교총련 부처님오신날 기원법회

충청북도불교총연합회(회장 도공)는 5월 6일 청주 명암타워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전 성공기원 및 도민안녕 기원법회를 겸한 부처님오신날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연합회장 도공(법주사 주지) 스님 · 태고종 충북종무원장 월담 스님 · 청주청원사암연합회장 각의 스님, 이원종 충북도지사, 한대수 청주시장 등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명우 기자

부산 선암사 백양도예타운 문열어

북한 어린이들에게 신발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참여불교운동본부(상임대표 혜총)가 부산의 천년고찰인 선암사에 평생교육원 백양도예타운을 개원했다. 5월 8일 개원식을 연 백양도예타운은 6개월 과정의 도예직업훈련, 도예체험교실, 8주 과정의 도예문화교실 등을 운영하며 일반인들의 도예 체험 공간으로 활용된다. (051)808-0179 천미희 기자

광주 동산사 지장보살 봉안 점안식

경기도 광주 동산사(주지 법전)는 5월 11일 지장보살 봉안 점안식을 봉행했다.

법회는 지장보살 점안식 및 무진장 스님 법문과 영가천도재 및 가족업장소멸기도 입재 순으로 진행됐다. (031)766-5661~2 남동우 기자

진주 여래사 지역어르신 경로잔치

진주 여래사(주지 동봉) 신도회는 4월 22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가수 주현미 배일호 등을 초청, 지역어르신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시민위안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진주불교사원연합회 혜만 스님, 정영석 진주시장, 강석주 대한노인회 진주지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동봉 스님이 지난 1979년부터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이날은 어르신 위안 잔치에 앞서 오전에 진주교도소를 방문, 재소자를 위한 공연을 함께 펼쳐 그 의미를 더했다. 천미희 기자

천마산 중화사 청동범종 불사 모연문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고 부처님의 법을 등불삼아 그 가피를 힘입음을 예나 이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연에 따라 만인 귀의의 목적인 승가람이 이룩됨으로써 육도중생에게 기쁨을 주는 부처님의 광명이 삼계에 극히 어렵고 불사를 만나도 시주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청동범종을 주주하게 되었습니다. 범종에다 시주자의 이름을 새겨 역사의 흐름속에서 천추만대로 유전될 것이며 불생불멸의 영원한 종소리는 삼천대천세계까지 울려 퍼져 무간지옥의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밝게 비추고 국태민안과 호국불교 정신으로 신도님 여러분의 온갖 정성은 불교계의 중흥을 위한 깊은 원력의 발로이며 우리 신도님들의 총화단합으로 이루어진 범종은 우리의 자손만대까지 부처님의 자비의 선행이 같이하도록 은은하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 신도님들은 이에 동참하시어 불사를 빛내주시고 그 인연공덕으로 암제의 지혜를 열어 영겁으로 무량한 광명과 복전을 누리시는 동시에 자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씨앗을 뿌려 불법의 혜광이 깃드시기를 바라오며 이 불사가 원만회향 되도록 이웃과 친지에도 권유하시와 주시기를 거듭 비옵니다.

● 청동범종불사 동참방법
- 청동범종불사 동참금은 1인당 10만원이상으로 합니다.
- 청동범종불사 동참자는 금강경 사경을 함께하여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합니다.
- 세세생생 복전이 되고자 하는 불자님을 위한 특별 시주를 받습니다.
  또한 청동범종불사에 동참하신 불자님의 이름을 영구히 새겨 공덕을 지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종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 동참계좌번호 : 농협 407014-51-007102(예금주 중화사)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천마산 중화사 주지 현구 합장 충북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 32-1번지 043)742-2057

건학 100년 동국대 이대론 안된다

재정 기여 없이 '갈등'만 … 각계 화합 주문

1.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2. 불교대학 '개혁'만이 살길이다
3. 재단에 대학발전 기대할 수 있나?
4. 100년 동국대 비전은 어디에?

■이사장 자리 놓고 대립 … 이사회 파행

최근 언론과 교계 단체들은 동국대가 온갖 비리와 의혹의 온상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재단'이 자리잡고 있다. 동국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재단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2월 정대 스님의 입적으로 공석이 된 이사장 자리를 놓고 지관 스님을 추대하려는 성오 종상 장윤 스님, 류주형 이사와 현해 스님을 추대하려는 현성 영배 영담 스님, 홍기삼 황창규 이사 등이 격돌한 후 이사회는 1년이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학교발전에 기여해야할 이사들이 재단운영의 주도권 싸움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사회의 갈등으로 100주년을 코앞에 둔 동국대는 구성원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날을 지새고 있다.

■재단 관련 의혹 '검찰 수사'

동국대 재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관 성오 종상 장윤 스님, 류주형 이사 등 5인과 일면 범여 스님, 박도근 감사 3인이 연명으로 총장과 이사장을 작년 8월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대 필동병원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승인 이전에 총장이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고, 중앙대 측이 최초 제안한 260억원이 아닌 273억원에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100억원이라는 과다한 계약금 지급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과 관련, 검찰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의혹과 관련해 납득할만한 해명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사장 측이나, 의혹 제기로 이사회를 1년 넘게 파행시키고 있는 반대측 모두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비난이 비등하다.

사범대 모 교수는 "이사들마다 입으로는 자신들이 학교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학교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면서 "학교를 위한 공심보다는 사사로운 이해관계에만 열중하는 이사들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라며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동국대 재단과 관련한 의혹들은 중앙대 필동병원 매입 건 외에도 △부속병원 의약품 납품관련 잡음 △총장 출국금지 △부속 한방병원 매각 △GS건설(옛 LG)에 의한 병원 압류조치 등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국대 힘 빼는 '종선(宗選)이사'

이런 상황에서 재단에 대학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동국대 구성원들 대부분은 "NO"라고 잘라 말한다. 재단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이미 재단의 '폐해론'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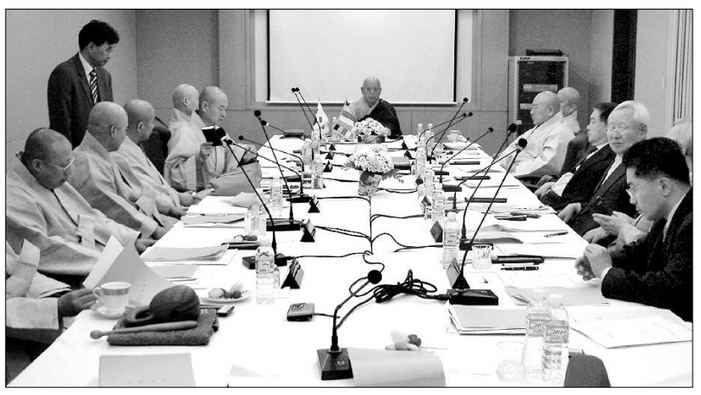
'혁신' 각오로 건학이념 살리기 나서야
종단 정치적 이해와 깊은 연결… '불화' 원인
"유력인사 참여 등 건전성 담보가 실마리"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첫째 기형적인 재단이사회 구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동국대 이사회는 종단 파송 9인(스님)과 재가 4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돼있다. 현재 이사 13명 가운데 동창회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실상 관선이사나 다름없는 '종선(宗選)' 이사들이다. 정치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가 추천하는 이사들의 면면은 중앙종회 정치구도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다. 두 차례에 걸쳐 파견된 정부의 관선이사 만큼이나, 종단의 '종선이사'가 동국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사학재단의 기본적인 역할이 재정적 기여라고 봤을 때 동국대 재단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지난해 동국대 재단 전입금은 약 6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학교와 연결 회계로 잡히는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실제 동국대 재단이 학교에 지원하는 전입금은 겨우 몇 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타 대학의 경우 2003년 회계 기준으로 연세대가 약 1000억원, 고려대가 320억원, 성균관대가 620억원의 전입금을 지원한 것에 비하면 동국대 재단의 전입금 규모는 턱없이 낮다. 재정적 기여가 거의 없으면서도 동국대를 비롯한 9개 산하학교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동국대 이사회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입금 출연이나 재정적 기여에 따라 이사 선임자격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셋째 이사들의 자질 문제도 심각하다. 전문성의 검증 보다는 문중 등 종단 내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사들이 선임되기 때문이다. 재단의 모 이사스님은 "이사들 중에 이사로서 자신의 소임에 책임감을 못 느끼는 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일단 다툼이 시작되면 극단적이고 끝까지 다툰다"며 일부 이사들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또 "재가 이사들도 선임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는 한 스님이사들의 '들러리'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서 4월 26일 열린 제209차 동국대 이사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한때 재단 사무처장을 맡았던 모 인사는 "건학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가 아닌, 종단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속에서 학교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사 선임 과정 · 활동내용 투명해야

재단이 제 역할을 하기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불교대학 박사과정의 한 스님은 "만약의 경우 종립대학 동국대를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제2건학 수준의 재단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자신의 본래 역할인 전입금과 재정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총장 이하 대학당국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종단정치의 장으로 변질된 재단 이사회가 건학이념 구현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선출과 구성과정 등에 얽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골자는 사학재단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있다. 이에 따라 학원의 공공성에 걸맞은 사회적 지명도와 도덕성을 겸비한 유력인사의 이사회 참여를 통해 재단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수회 부회장 홍승기 교수는 "재단의 이사 선임과정과 활동내용들이 투명해져야 이사회를 둘러싼 온갖 의혹들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십 년 동안 지속돼온 종단과 재단 간의 갈등도 종식시켜야 한다. 조계종은 동국대의 실질적 주인이면서도 70년대 이후 하나뿐인 종립대학을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대학의 수장인 총장이 소신을 가지고 학교경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사회가 사소한 보직교수들의 인사까지 모두 간여하면서 총장의 경영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대학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엇보다 동국대 구성원들과 1000만 불자들은 이사회가 학교발전을 위해 화합하는 모습과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보여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강지연 · 조용수 · 박익순 기자

■타 종교계 연세대의 경우는…

올해 건학 120년을 맞는 기독교계 연세대의 이사장은 조선일보 명예회장인 방우영씨가 맡고 있다. 재단의 운영은 명예직인 이사장을 대신해 상임이사가 실질적 업무를 통괄한다. 이사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에서 각 1인, 동문회 파송 2인, 총장, 사회유력인사 4인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단은 이사회 개최와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을 관리하고 부동산 등 수익용 · 교육용 기본재산의 관리, 신규사업개발, 예 · 결산의 감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 대신 대학운영의 권한은 모두 총장이 가진다.

1개 종단도 아닌 4개 교단이 연합해 운영하는 재단이 이처럼 운영될 수 있는 비결은 효율적인 운영구조에 있다.

연세대 내부사정을 잘 아는 기독교계 한 인사는 "100여 년 전 소수였던 외국인 선교사들 간 협력으로 세워진 전통을 바탕으로 재단과 대학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재단 운영에 대한 각 교단의 감시가 살아있고 사회적으로 막강한 동문회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동국대 상임이사 영배 스님
"종단과 재단 협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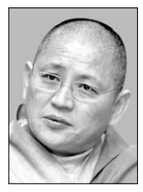


새로 신설된 제도에 의해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영배 스님은 "지금 학교에서 빚어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의혹의 책임이 일부 이사스님들의 '정치적 의도'탓"이라고 비난했다.

또 "현재 학교가 정체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재단 이사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10~20년 동안 재단의 경영실패가 누적되어온 결과"라며 "당장 모든 것이 개선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스님은 동국대 위기 극복을 위해 총무원장이 재단운영에 참여하면서 종단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금이라도 종단과 재단이 긴장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종단과 재단의 화합을 강조했다.

동국대 이사 장윤 스님
"독선적 운영 끝내야"



법인 사무처장을 2년간(2002~2003년) 역임한 바 있는 장윤 스님은 현재 동국대 재단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이사들을 향해 "이사회 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독선적 재단운영이 극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스님은 동국대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재단이 종단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종단의 힘을 빌려 학교발전의 동력을 삼아야 하는데 오히려 종단과 반목만 일삼고 있는데 있다"고 말했다.

또 홍기삼 총장의 대학경영도 문제 삼았다. 스님은 "홍 총장이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대학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학교가 안정이 돼야 발전기금도 들어오고 동문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종단의 진정한 자정과 참회를 촉구한다

모든 생명들이 경축해야 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미스런 사건이 언론, 방송에 연이어 오르내리고 있어 종단 안팎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조의 혜명을 이어 시대의 사표로 살아가야할 스님들이 세간의 입속에 오르내리고, 한국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 교구본사, 교육기관까지 비리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을 담은 기사가 보도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의 사표이자 바람직한 수행자를 길러내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중앙승가대학교의 동문들은 이에 대해 강한 책임의식을 통감하고, 국민과 종도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며, 과욕과 안일에서 비롯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용맹정진 할 것입니다.

다행히 본사주지스님 회의 등 뜻있는 스님들과 중앙신도회 등 교계 재가단체에서 종단의 자정과 참회를 촉구하고 청정종단을 구현하기 위해 보살행의 기치를 내건 것은 교단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우리 1,200여 중앙승가대학교 동문들도 이 길에 동참하는 바입니다.

진정한 자정은 자신의 허물을 들어내고 참회를 통하여 용서를 구함으로서 얻어지는 것임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안의 본질과 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밝혀내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서 사회와 종도들에게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고, 사안의 본질을 덮기 위해 다른 사안을 이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안들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보여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보정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불교중앙박물관의 경우 실무적 업무처리만을 담당하는 재가 종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더불어 근거 없는 음해성 폭로를 통해 승가에 상처를 주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과 종도들에게 다시 한 번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청정종단 구현을 위한 뜻있는 스님과 재가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언론에 제기된 개인과 문제 사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 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밝혀내어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주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단은 사전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찰 불사와 운영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는 청정 종단 구현을 위해 법과 제도 개혁 등 자정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과 종도들에게 무너지고 있는 종단에 대한 신뢰의 싹을 다시 띄울 수 있는 길입니다.

동국대학교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도 밝혀져야 합니다. 현재 동국대학교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9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동국대학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넘쳐 백년 사학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으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등 종단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종립 동국대학교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종결하여 조사결과를 명명백백 밝혀 처리하고, 동국대학교가 종립학교로서 설립취지와 이념의 실현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국대학교 이사회도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조사가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의 부정비리 의혹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에 의해 조사되고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총무원은 불교중앙박물관 공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관계자 문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총무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총무원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만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총무원 관계자 또한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의 조사를 통해 이 사안의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자정과 참회의 첫 걸임이자 국민과 종도들에게 청정승가 구현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단을 바라보는 내외의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민과 종도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맑고 투명한 종단 구현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정과 발로참회를 통해서 그 책임소재와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찰에서부터 중앙종단까지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사부대중의 공동체가 형성될 때 청정 종단의 구현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1,200여 중앙승가대학교 동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단 내부는 물론 사회전반을 투명하고 맑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자정과 참회의 길에 사부대중과 함께할 것입니다.

불기 2549(2005)년 5월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동문 일동

지상중계

보현도량 안성 도피안사
구국구세대법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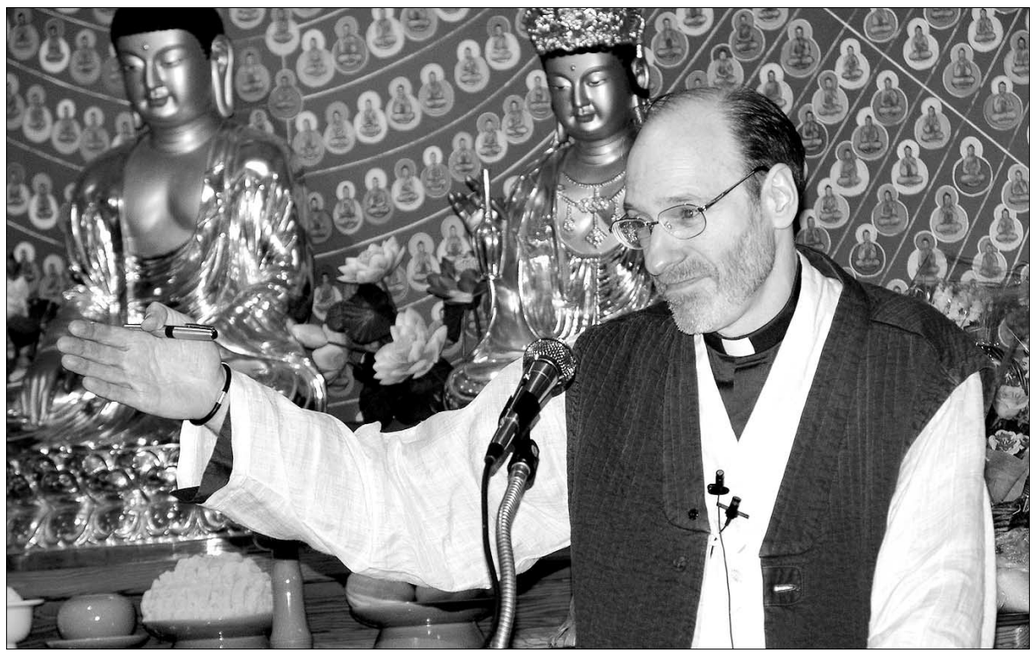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입제 : 불기 2549년 5월8일
■강사 : 서명원 신부(서강대 교수 · 종교학)
■주제 : 서양인은 한국의 가정을 어떻게 보는가

'조건없는 희생' 숭고한 전통 되살려야

우리에게는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그런 소중한 것이 있다. 늘상 먹어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없을때 한 그릇의 따뜻한 밥이 고마운 것처럼 해체되고 파괴됐을때 비로소 그 빈자리를 절감하는 '가정.' 언제 돌아가도 따뜻하기만 한 가족간의 사랑이 그것이다.

보현도량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는 본사와 공동 주최로 5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정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해야 나라와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구국구세(救國救世)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지난 1일 첫 번째 법회에 이어 도피안사는 5월 8일 프랑스 출신 가톨릭 신부인 서강대 종교학과 서명원 교수를 초청, 서양인의 관점에서 한국인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버이날인 5월 8일, 도피안사 구국구세법회에서 강연한 서명원 신부는 "우리 시대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희생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의 가치' 동서양 따로 없다

우선 서양인들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자. 살아가는 환경과 생활 습관의 차이를 모두 고려한다면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을 그려보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다. 서명원 신부는 이날 강연을 시작하며 "모든 사람이 나고 죽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동서양 가정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 인간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누구에게나 가정을 이야기하고 걱정할 자격이 있을 것이다.

서명원 신부는 먼저 40여 년간 캐나다와 프랑스 등 서구사회에 살며 경험한 서양의 가정에 대해 소개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대가족은 해체되고 이를 대체한 소가족 제도가 정착됐어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동거하며 아이를 낳는 문화가 보편화돼 있죠.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동거자를 우대하는 법률장치까지 만들어질 정도죠.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동거하면 세금을 깎아주기도 해요."

동서양 가정의 모습, 가족 제도는 '대동소이'하다. 그렇기에 가정들이 겪는 문제들도 비슷하다. 프랑스의 가정문제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혼문제. 이제 한국의 이혼율도 30%를 육박하고 있다.

우리 시대 가정도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 이혼 고부갈등 청소년 탈선을 비롯해 어쩌면 이 시대의 아픈 상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가정'이다. 병이 난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듯 우리는 가정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산다.

"파리 사람들의 이혼율이 50%를 넘긴 것은 옛날이죠. 생활환경이 각박해지면서 점점 더 이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혼이 쉬운 건 아니에요. 자녀 양육과 교육, 이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결코 만만치 않죠. 평생 이혼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한국사회의 온갖 문제들이 가정에서 비롯되듯 프랑스도 급증하는 이혼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서양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가정은?

서명원 신부는 서양인이 처음 한국사회와 가정을 접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연애결혼을 하는 프랑스인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중매결혼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죠. 결혼문제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좌우하는 것을 서양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동아시아의 특징인 남아선호, 남존여비 등도 낯선 문화였고요."

서명원 신부는 문화나 전통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변화하는 시대를 느끼지 못하고 억지로 하나를 고집하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란 것이다. 서 신부는 "미성년자가 결혼에 대해 충분히 알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결혼 경험을 가진 어른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하는 중매결혼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맹목적 사랑 · 대화 부족 극복해야 '화목'

그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유연성의 부족'과 '대화 부재'를 한국 가정의 문제로 꼽았다. 부모를 맏아들 맏며느리가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고부갈등과 같은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서양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 부모를 모셔요. 맏아들, 맏며느리가 꼭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없죠. 부모를 모시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해요."

서 신부는 낙태와 이혼 등을 하기에 앞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희생의 소중함 가르쳐야

서명원 신부에게 가장 도드라져 보인 한국가정의 특징은 '희생정신'이다. '내가 희생해야 가족이 산다'며 희생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는 '한국의 어머니'는 서양인의 눈에는 수수께끼처럼 비쳤다고 한다. 서 신부는 "예나 지금이나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핵심적이에요. 그런 희생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자식을 존경받는 인간으로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강대에서 벌어진 입시비리의 원인도 희생을 모르는 '이기적인 교육'이라고 서 신부는 지적했다. "당사자인 교수님을 아는데 상당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눈먼 사랑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서 신부는 구국구세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것을 당부했다.

부부,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꾸준한 대화였다. 서 신부는 "가족간의 대화가 부족한 경우 가정문제가 극단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열띤 질문들

강연이 끝난 후 열띤 질의시간이 진행됐다. 이경연(47 · 안성) 씨는 "한국 가정의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했다. 서명원 신부는 "부모를 정성껏 모시려는 생각, 조상 산소를 좋은 곳에 모시는 것, 가족들이 함께 매해 성묘를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전통이다"며 "서양인들에게는 가족과 조상의 의미를 경험하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

안성시 시의회 윤용규(59) 부의장은 "나쁜 서양문화 때문에 한국의 가정문화가 훼손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 신부는 "서양 문화 모두가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세상은 복합적이기에 혼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는 취사선택의 과정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글 · 사진=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서명원 신부는 가톨릭 신부의 상징인 로만 칼라 위에 '승복'을 입는 사제로 알려진 서명원 신부(52 · 본명 베르나르 서네칼). 서 신부는 10여 년째 한국에서 참선하며 성철 스님의 선사상을 연구하는 특이한 종교인이다.

1984년 한국을 처음 찾은 후 95년부터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며 한국불교를 배우고 있다. 그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 7대학에서 <성철 스님의 생애와 전서>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올해부터는 서강대 종교학과에서 한국불교를 강의하고 있다.

그는 96년부터 한국의 참선 수행단체인 선도회와 인연을 맺고 하루에도 수차례 참선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에 대한 그의 소신은 힘차다. "전통을 지키려는 한국불교와 새 문화를 만들려는 한국불교 사이에서 강한 생명력이 느껴져요. 서양에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국불교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문화센터 수강회원 모집

여름학기(제51기) | 6월 1일 개강 |

불교문화센터 강의실 전면 개보수하여 새롭게 open 하였습니다.

| 불교교리강좌 |

신심명
현응 스님: 육조사 주지
매주 목요일 10:30~12:00 50,000원(3개월)

붓다의 최초 호흡법
이선향: 서울 위빠사나선원 지도법사
매주 화요일 11:00~13:00 60,000원(3개월)

불교 전통의식 실수
경허 상진스님: 영산재 보존회
매주 월요일 16:00~18:00 200,000원(3개월)

| 무료강의 |

대반열반경
마성 스님: 동국대 강사/스리랑카 불교대학 박사
매주 수요일 11:00~12:30

현대과학과 불교
김종욱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매주 목요일 13:00~14:30

기초 불교 교리강좌
신진욱 법사
매주 금요일 11:00~12:00

서화강좌

서예(書藝)/A
신덕선: 서예가/미협 ·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매주 화요일 10:00~14:00
70,000원(3개월)/ 25명 정원제, 선착순

서예(書藝)/B
정복순: 서예가/국전대상작가
매주 화요일 14:30~18:00 70,000원(3개월)

한글서예
임인선: 서예가
매주 토요일 10:00~13:00 70,000원(3개월)

민화(民畵)그리기/ 초급, 중급
이영자: 민화가
초급: 매주 목요일 13:30~15:00
중급: 매주 목요일 10:00~12:30
60,000원(3개월)/ 25명 정원제, 선착순

유 화
장동문: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연4회 특선
매주 화요일 10:00~13:00 90,000원(3개월)

서양화(누드)
장동문: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연4회 특선
매주 화요일 14:00~17:00 90,000원
(3개월)/모델료 별도

사군자 / 문인화
최형주: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위원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매주 금요일 10:00~12:00 80,000원(3개월)

신설
인물화(공필화)
이강: 서울대 미술대학 박사
매주 월요일 10:00~13:00
90,000원(3개월)

건강강좌

요 가 1
홍선정: 한국요가연수원
1. 매주 월 · 수 · 목요일(주 3일 수업) 09:30~11:00
120,000원(3개월) / 정원제, 선착순 접수

요 가 2
박채윤: 한국요가연수원
매주 월 · 수 · 목요일(주 3일 수업) 11:00~12:30
120,000원(3개월) / 정원제, 선착순 접수

요 가(저녁반)
이영진: 한국요가연수원
매주 월 · 수 · 목요일(주 3일 수업) 19:00~20:30
120,000원(3개월) / 정원제, 선착순 접수

수지침
최윤순: 오륜포교원 침술원 원장
매주 목요일 14:30~16:00
50,000원(3개월) / 재료비 별도

불교미술강좌

단청(초급, 연구)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 단청부분 4명 합격)
· 정송희: 단청 강사
· 연구: 매주 금요일 10:00~12:00
· 초급: 매주 금요일 12:10~14:10
각 70,000원(3개월)

불화(佛畵)그리기
김익홍: 불화가
매주 화요일 14:00~16:00 70,000원(3개월)

사 경
김경호: 전통 사경 연구가
매주 월요일 14:00~15:30 60,000원(3개월)

전통교양강좌

한국무용
최윤희: 무용가
매주 월요일 13:30~15:00 50,000원(3개월)

생활꽃꽂이와 꽃장식
보명스님: 연화꽃꽂이 회장
매주 수요일 10:30~12:00 60,000원(3개월)
재료비 별도

불교전통꽃꽂이
보명스님: 연화꽃꽂이 회장
매주 수요일 13:00~14:30 60,000원(3개월)
재료비 별도

노래부르기교실
조성희: 문화센터 노래부르기 강사
매주 화요일 14:00~15:30 60,000원(3개월)
*남성도 수강 환영

생활역학강좌
이태권: 동제개운학회 이사/역학연구가

초급반	10:00~11:30	역학의 구성 / 기초	각70,000원 (3개월)
중급반	12:00~13:30	육친활용 /12운성법	
고급반	13:30~15:00	격국론, 길신, 흉신	
연구반	15:00~16:30	용신정법및격국활용	

매주 목요일 / 25명 선착순폐강

기문둔갑 / 1, 2
신정균: 기문둔갑연구가
1 : 매주 금요일 10:00~12:00
2 : 매주 금요일 13:00~15:00
각 80,000원(3개월)

인상학
이은실: 인상학 연구가
매주 월요일 10:30~12:00 70,000원(3개월)

생활풍수
최도곤: 건국대 평생교육원 강사
매주 월요일 13:30~15:00 60,000원(3개월)

어학강좌

해외여행영어
진우기: 문화센터 전임강사
매주 수요일 10:30~12:00 60,000원(3개월)

직장인을 위한 영어회화
진우기: 문화센터 전임강사
매주 월 · 수요일 12:10~13:00
70,000원(3개월)

유아 어린이 강좌

엄마와 함께 그림, 만들기(4~5세)
유아 그림, 만들기 (6~7세)/2회 수업
유아 토요미술 (5~7세)/2회 수업
초등미술(1~2학년)
초등미술 (3~6학년)
유아구연동화교실
어린이구연동화교실
어린이영어교실
유아과학교실
어린이과학교실/1학년
어린이과학교실/2, 3학년
고학력 고급과학/4~6학년
독서와 글쓰기/1. 2. 3학년
독서와 논술/4. 5. 6학년
바이올린/초급, 중급

신행도량으로 새롭게 단장한
多寶院 법회 안내

일상기도법회
새벽예불 / 매일 새벽 4시 30분
사시불공 / 매일 오전 10시 30분
저녁기도 / 매일 오후 6시

관음재일 인등축원 기도법회
일 시 / 5월 31일(화) 오전 10시 30분

초하루 기도법회
일 시 / 6월 7일(화) 오전 10시 30분
49재 · 천도재 · 기제사 등

다보법회
일 시 / 5월 25일(수) 오후 2시
법 사 / 혜담스님(각화사 주지)
일 시 / 6월 1일(수) 오후 2시
법 사 / 송석구 교수(前 동국대 총장)

불교진흥원 · 불교방송 법당 / 공개홀 多寶院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불교방송 3층)
문의전화 : (02)703-0108 팩스 : (02)3273-1618
www.dabo.or.kr



※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외환은행 : 189-22-01147-4
예 금 주 : (재)대한불교진흥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44)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속계와 법계, 야누스의 두 얼굴

사바에서 어떻게 무장무애를 얻나

원효 <화엄경소서>의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1) "대저 무장무애(無障無碍)한 법계의 법문을 확인해보니, 법이 아니면서 법 아님이 없다. 그래서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며, 움직이는 것도 멈추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또 여럿인 것도 아니다." (原夫無障無碍法界法門者, 無法而無不法, 非門而無不門也. 爾乃非大非小, 非促非奢, 不動不靜, 不一不多. 由非大故, 作極微而無遺; 以非小故爲大虛而有餘. 非促之故, 能含三世劫波. 非奢之故, 擧體入一刹. 不動不靜故, 生死爲涅槃, 涅槃爲生死. 不一不多故, 一法是一切法, 一切法是一法.)

불교의 유토피아

대저 법계(法界)는 어디 있나요. 그곳은 우리 모두가 그곳에 있고 싶어하는 '고향' 같은 것일텐데,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애타게 갈망하지만, 도달하기 그렇게 어렵다는 그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또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혹시, 그곳이 어디인지도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찾고 있지나 않습니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법계, 그곳은 무장무애(無障無碍)하답니다. 절집의 용어로는 '걸림이 없다' 고들 하지요. 걸림이 없다? 그럼, 그곳에 든 사람은 누구나,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머물고 싶은 대로 머물고, 그런 자유와 행복이 충만한 곳인 모양입니다.

그런 점에서 법계는 동양적 이상향인 무릉도원이나 유학자들의 오랜 꿈인 신선계, 기독교 문명의 행복한 정원 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유토피아는 동서고금 모든 순례자들의 오랜 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교의 법계의 유토피아는 다른 구원의 전통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골자를 말하자면, 법계는 어디까지나 '지상적' 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가 꿈꾸는 별 세계는, 물리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 밖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열 두번씩 또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꿈은 더욱 크고 강렬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지금도 평창동 산 속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밧줄을 위해 밤새도록 울부짖고 있는 통성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하늘에서 무슨 줄이 내려올 것이며, 거기 잡고 올라갈 무릉도원이나 신선세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상의 서방정토

불교는 그 하이레벨에서, 이 낡고 후줄근한 지상을 떠나 상상의 유토피아나, 죽어 경험하게 될 천국이나, 뭐, 그런 초자연적인 영역은 꿈도 꾸지 말라고 단단히 오금을 박습니다. 이 지상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여기 지금 주어진 삶이 전부인 것입니다.

혜능이 <육조단경>에서 서방정토가 "지금 여기 있으니 내가 지금 보여주랴"고 했듯이,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사복인가요, 원효의 친구였다죠.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묻으려고 땅을 여니 그곳이 바로 서방이었다는 이야기들이, 이같은 지금 여기(hic et nunc)의 철저한 믿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노리는 자유 또한, 당연한 귀결로, 이 차갑고 냉혹한 연기법(緣起法)의 세계, 그 지상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틀리다간 <무문관>에 적힌 백장(百丈 懷海 749~814) 회상(會上)의 그 노인네처럼, 500세, 1500년을 여우 거죽을 덮어쓰고 살아야할지 모릅니다. 그 노인은 "깨달은 사람은 인과(因果)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그리 되었다고 합니다.

백장의 훈수(一轉語)는 "인과에 혹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여러분도 그 노인처럼 이 말에 깨달음을 얻고, 여우의 몸을 벗어났습니까. 대체 '떨어진다(墮)' 와 '혹한다(昧)' 사이는 어디서 갈라지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중대한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 지상에서 어떻게 무장무애, 걸림없는 삶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디 우호적일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가 채워졌다 싶으면 더 많은 문제들이 쳐들어오며, 그것들을 처리하기에 내 지혜와 지식은 왜 또 이렇게 모자라는 것입니까. 세상은 온통 걸리고 비틀거리는 장애물들뿐인 것같은데, 대체 이 속에서 어떻게 절대적 자유를 구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화두 가운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음을 안고 각자 정진할 일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 물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분과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부닥치는 문제인 것을…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답되어야할 근원적인 문제이므로, 아무도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야누스의 두 얼굴

원효의 말을 들어볼까요. 그는 지금 법(法), 그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도달해야 할 그 지복의 나라에 대해서…

"법이 아니면서 법 아님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법이 아니다' 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곳에 법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착각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법은 신성한 곳, 위대한 곳, 초월적인 것, 그리고 이른바 불교적인 것 속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이 지상의 삶 바깥에 무슨 멋진 라스베가스가 달리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시 '법 아님이 없다' 는 말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진정 법이 숨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옛적 어느 선사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풍류가 아닌 곳에 진정 풍류가 있다.(不風流處也風流)"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후줄근하고 비틀거리는 이 세상 속에 진정 법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속세이면서 곧 법계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두 공간이 겹쳐 있습니다. 한 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세계가 한쪽 얼굴은 속계이고, 한쪽 얼굴은 법계입니다. 이 뜻을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이 법계의 그림자를 엿보고 싶으십니까. 원효는 그 세계가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며, 움직이는 것도 멈추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또 여럿인 것도 아니다."라고 설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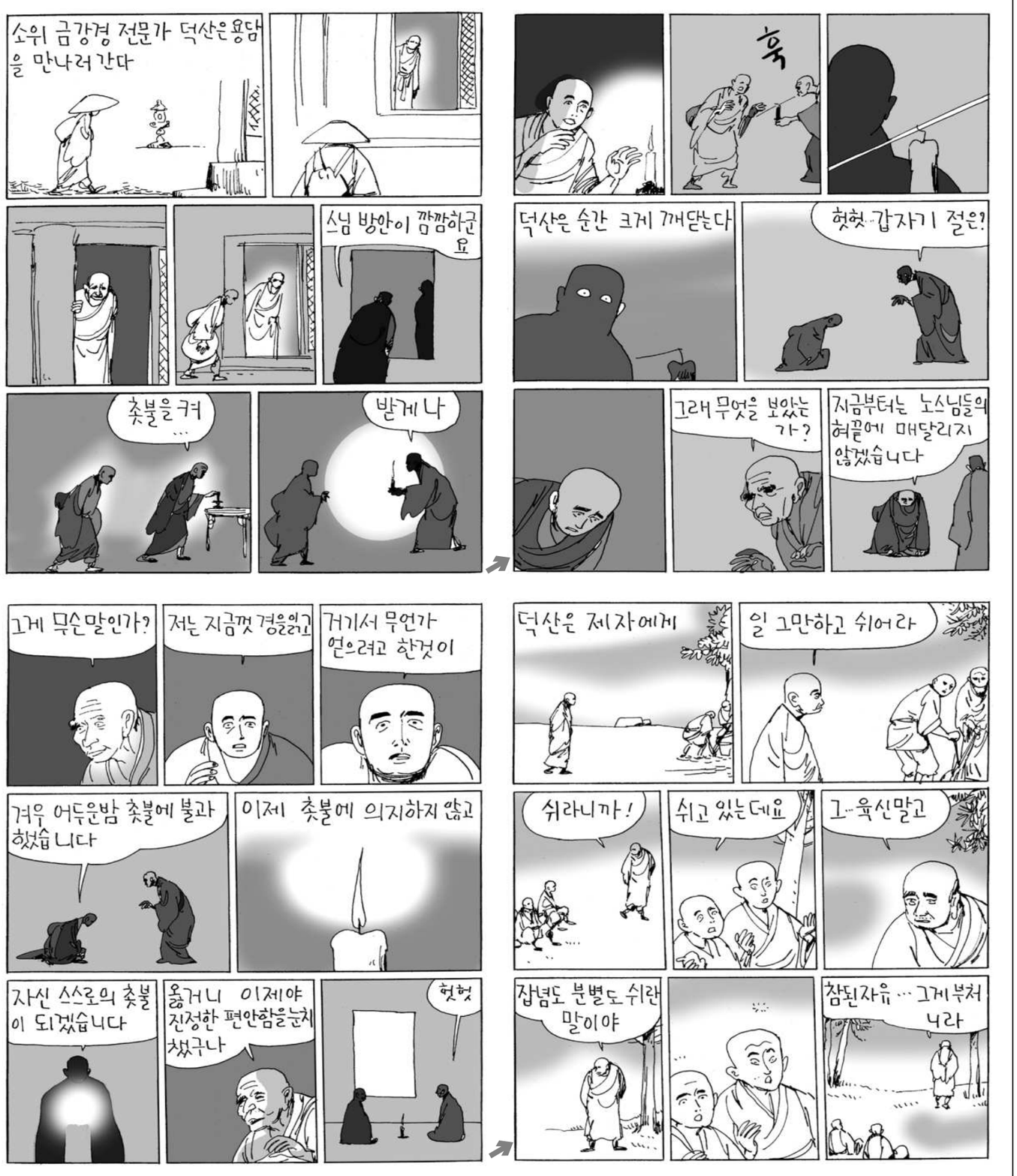
번잡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들 설명은 매우 단순한 사실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고구정녕이니, 언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현란한 수사는, "법계란 곧 삶의 과정 자체라"는 것, 그것은 회고나 기대로 추상화되거나 단편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택하고 있는 역설과 모순은, 이 세계가 우리가 부여하는 모든 상대적 규정이나 제한, 의도나 목적 등에 미끄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연하게도 모순과 갈등 또한 이 세계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우리네 삶의 과정은 갈등과 분열로 삐꺽거리는데, 물리적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이 세계는 무장무애로 걸림이 없다니, 이 자가당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난관에 제방의 선지식들은 무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그러고 보니, 질문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⑯ 덕산선감의 '괭이질'

조태호



덕산선감(德山宣鑑 782~865) : 당대(唐代)스님. 청원 문하로<금강경>에 정통해 주금강(周金剛)이라 불림. '덕산방 임제할' 의 방(棒)으로 유명.

네티즌 교리문답

무념행(無念行)이란 무엇입니까?

문 불교에서는 무념을 강조합니다. 언뜻 보면 '생각을 하지 말라' 는 말로 들리는데요. 무념(無念)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무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강소석)

답1 : 자성의 마음자리가 지혜로써 관조하여 안팎이 사무쳐 밝으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이것이 곧 해탈입니다. 이미 그 해탈을 얻으면 이것이 곧 반야삼매(般若三昧)며, 반야삼매를 깨치면 이것이 곧 무념(無念)이라 합니다. (불학자)

답2 :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무념이란 모든 법을 보되 그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모든 곳에 두루 하되 그 모든 곳에 집착치 않고 항상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하여 여섯 도적들(六賊)로 하여금 여섯 문으로 달려 나가게 하나 육진(六塵) 속을 떠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아서 오고감에 자유로운 마음상태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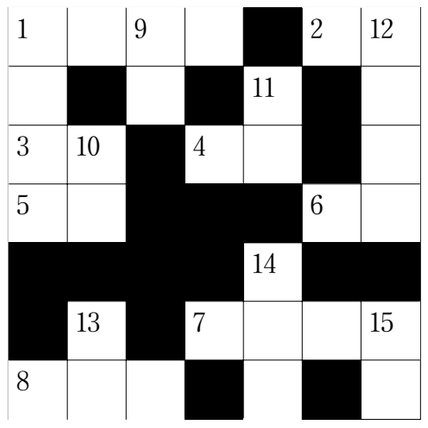
이것이 곧 반야삼매이며 자재해탈(自在解脫)인 무념행(無念行)이라고 이름 합니다.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지 말아야 하며, 이는 곧 법에 묶임이니 곧 변견(邊見)이라고 합니다. (무상)

답3 : 무념법을 깨친 이는 만법에 다 통달하고, 무념법을 깨친 이는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의 돈법(頓法)을 깨친 이는 부처의 지위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자기의 마음이 삿되고 미혹하여 망념으로 전도되면 밖의 선지식이 가르쳐 준다 하여도 스스로 깨치지 못할 것입니다. 마땅히 반야의 관조(觀照)를 일으켜야 합니다. 잠깐 사이에 망념이 다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곧 자기의 참 선지식이다. 한 번 깨침에 곧 부처를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되기)

답4 : 혜능 스님의 <육조단경>에서는 무념을 무상(無相), 무주(無住)와 함께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념을 "사물을 생각하는 가운데 망념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념을 근본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또 무상(無相)을 본체로 삼고, 무주(無住)를 근본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무념은 일체의 바깥 경계에 집착해 번뇌 망념으로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 가운데 차별의 경계를 여의었기 때문에 사물에 대해서도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혜능)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19면에

가로 1. 부처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대음광이라고도 불림 2. 군대의 사기 3. 상대편을 높여 그의 남편을 일컫는 말 4. 어린 스님을 이르는 말 5. 어떤 사안을 법적으로 인정해 그 시행을 허락하는 것 6. 중국 북부나 몽골 지방의 황토가 바람에 날려 온 하늘에 누렇게 끼는 현상 7. 불교에서 말하는 상상의 꽃 8.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처음 설법한 곳.

세로 1. 부처님의 생모 9. 승가람마의 준말로 절의 건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 10. 군대의 사기를 위해 지어 부르는 노래 11. 통상 소승불교의 반대말은 ○○불교 12. 수달장자가 기타태자의 정원에 부처님을 위해 세운 절 13. 밤에도 낮처럼 밝음이 지속되는 현상 14. 강원도 인제군 북면(北面) 용대2리에 소재하고 전두환 前 대통령이 주석했던 절 15. 기름에 튀겨서 말린 국수에 양념 스프를 따로 넣어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즉석식품.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부처님 모시듯 이웃 치료할게요"

인터뷰 광주 문빈정사에 무료구강진료소 연 임수령 원장



임수령 원장



임수령 원장(사진 오른쪽)이 문빈정사 주지 석장 스님(사진 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해 스님들에게 시설을 소개하고 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부처님 이름으로 펴게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누구에게나 부처님 모시듯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5월 1일 광주시 문빈정사 일주문옆에 세존구강 무료진료소를 개설한 임수령(이 행복한 치과) 원장. 임 원장은 "먼저 노숙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치과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과 치료를 하겠다"고 말했다.

10년전 문빈정사 유마거사회 창립과 함께 초대회장을 역임한 임 원장은 "문빈정사 유마회에는 회원들 가운데 치과의사가 많아 오래전부터 무료구강진료소 건립을 발원했다"며 "주지 석장 스님이 사찰 공간을 제공해 이번에 뜻을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치과 치료기기 일체를 보시한 임 원장은 "무료진료소 소식을 들은 광주 용봉로타리 클럽에서 정기적으로 경비일부를 지원하기로 해 더욱 힘이 난다"며 "부처님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존구강 진료소는 매주 수, 금요일(오전 10-오후 2시) 유마회 회원들로 구성된 치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로 구강 검진은 물론 보철 등 치료까지 펼쳐진다.

한편 광주 문빈정사 유마거사회(회장 박정현)는 이날 개원식에 앞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수계식을 봉행했다.

광주= 이준엽 기자

생명나눔본부 봉은사서 캠페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는 5월 7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에서 장기기증 및 후원 캠페인을 벌였다. 봉은사 신도들에게 홍보물 600부를 배포, 불자들의 생명나눔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한 것이다.

또한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자비연꽃 배지' 110개를 판매했다. 수익금 11만원은 유전성구상적혈구증과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5월의 환우 송인한군(2)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02)734-8050 김강진 기자



"달마도 무료로 보내드려요"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법화선원 주지 법공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달마도를 무상보시한다.

7년 전부터 달마도를 그려온 법공 스님은 그동안 불사에 사용하도록 각 사찰에 작품을 보시해왔다. 스님은 사찰에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연락만 하면 우편으로 보내준다.

법공 스님은 "워낙 한적한 토굴에서 살다보니 일주일에 한번 들어오는 현대불교신문이 유일한 벗"이라며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현대불교 독자들에게 달마도를 선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055) 883-7257

김원우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성심회

"어르신, 발바닥 시원하시죠"

"여기 무릎까지 주물러드리면 관절에 좋대요. 시원하시죠, 어르신?"

5월 4일 서울 영등포노인복지관(관장 서병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단 성심회 허돈순 팀장(57)이 김복희(가명 · 75) 어르신의 발과 다리를 안마하면서 다정스레 말을 건넨다.

김복희 어르신은 이미 시원한 기분에 눈을 감은지 오래다. 그러면서도 "집에서 속상했던 게 다 풀리네, 그려"라는 말로 마사지를 받는 흐뭇한 기분을 표현한다.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두 차례 영등포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안마하는 성심회는 화곡동 성심사(주지 명우) 도반으로 만나 복지에 입문한 7명의 보살들로 구성돼 있다. 처음에는 그저 '배워놓으면 건강에 좋겠지'라며 막연한 마음으로 시작한 성심회 보살들. 이왕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만큼 기쁨이 커질 것이라는 믿음에 서울노인복지센터 등의 노인복지관에서 발마사지를 한지가 이제 3년이 넘었다.

성심회는 작년 11월부터 활동영역을 넓혀 영등포노인복지관에서도 봉사를 하게 됐다. 그렇게 원력을 세운 덕분인지 성심회 보살들에게 발마사지를 받는 어르신들의 발은 젊은 사람 발 못지않게 건강함을 자랑한다. 정성스러운 마사지 이후 어르신들이 두 손을 모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넬 때는 봉사의 피로가 말끔하게 씻겨나간다.

"사람들이 '왜 하필 발이냐'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발이 더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 인식이 그렇지. 내 손이 닿아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면 거기서 만족을 느끼지요."

노흥우(57) · 성인순(55) 보살이 이야기하는 봉사의 즐거움은 다른 이들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자신이 뜻한 곳에서,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얻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김강진 기자



"꼭꼭 누르고 문질러야 건강해져요" 성심회 보살들은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마다 손끝에 정성을 가득담아 어르신들의 발을 마사지한다. 사진은 5월 4일 봉사모습.

■ 휠체어나 지팡이 보내주세요

2000년 10월 설립된 영등포노인복지관은 지역 노인들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휠체어나 지팡이 등의 보조용구가 많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구가 고가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이 늘 한정적이다. 성심회 보살들은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다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나눔의 정을 호소했다. (02)2068-5326

사 고

'자비연꽃 달기'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본사와 조계종은 5월 20일까지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은 불교계 최초의 재난구호 및 극빈 소외계층을 위해 설립되는 '자비나눔기금' 모연 사업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웃을 위해 연등을 밝히는 마음으로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자비연꽃 달기' 동참 안내

—불자 개인은 성심성의껏 기금을 내주시고, 자비연꽃(배지 24K 금도금)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사찰 및 단체는 자비연꽃을 개당 1,000원에 보급합니다.

—모아진 '자비나눔 기금'은 재난구호 지원 및 활동, 소년소녀 가장, 결식아동, 독거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자비연꽃 배포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內 '자비나눔 기금 운영위원회'

전화 02-2011-1820 / ARS 060-700-0482

조계종 총무원 · 현대불교신문

나눔의 손잡기 성금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122,000원

총누적금액: 40,357,09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86년과 94년 '우리나라 새벽여행'을 주제로 사진전을 연 바 있는 새벽사진의 개척자 박상훈씨의 사진에 황청원 시인의 맑고 감성적인 언어를 붙였다.

사랑하는 이와 떠나는 새벽여행



새벽여행
우리가 혼자였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글 황청원 | 사진 박상훈
이마고 | 각권 1만2천원, 6천원

화엄사에서 입산해 법주사, 경국사 등지에서 오랫동안 수행하다 환속한 시인 겸 방송인. <누군가 사랑하고 싶을 때 길을 떠나라> 등 다수의 시집과 산문집을 펴냈으며, KBS1 라디오의 '문화살롱'과 불교방송의 '행복스튜디오 황청원입니다' 등 23년 넘게 방송을 하다 지금은 경기도 안성 죽산에서 글만 쓰고 사는 황청원 시인(50).

인기연예인들이 한번쯤 그의 사진 모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광고 사진계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세계 3대 광고상의 하나인 'The New York Festivals' 금상, 'CANNE 국제광고제' 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작가 박상훈(53 · 중앙대 사진학과 교수).

활동 영역은 달라도 25년 동안 우정을 지속해 온 두 사람이 만나 일(?)을 냈다. 사진 산문집 <새벽여행>과 사랑시 모음집 <우리가 혼자였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이다. 두 권이 함께 들어 있어 독특한 패키지 형식을 이룬다.

<새벽여행>은 박상훈씨가 우리나라 곳곳의 자연과 삶이 담긴 새벽 풍경 사진에 감성을 자극하는 황청원의 글이 어우러져 서경과 서정의 절묘한 조화를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잊혀진 고향의 풍경들을 오롯이 되살려주며 사랑과 인생에 관한 사색의 깊이까지 맛볼 수 있게 해주어 가볍게 책장이 넘어가면서도 내용의 무게만큼은 무겁다. 책은 '고향' '사랑' '인생' '관계' 등 네 주제로 나눠져 있다.

"자식 낳아 먼저 흙에 묻고 그 흙 속 깊이 손발 묻고 사시는 어머니의 마음은 바로 흙의 마음입니다."('고향' 중에서)

"때로는 멀리서 말없이 그렇게 오래 오래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사랑'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다리도 되어주고, 발 씻어주는 강물도 되어주고, 어리석음 거둬가는 안개도 되어주고, 허물 가려주는 어둠도 되어주며…."('인생' 중에서)

"이른 새벽 여럿이 함께 배를 타고 안개 무성한 강을 건너며 깨닫습니다. 삶의 군데군데 놓여있을 절망의 강도 그렇게 건너는 것임을."('관계' 중에서)

"새벽에 떠나는 여행이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일"이라는 지은이 황청원씨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새벽이 갖고 있는 코발트 색 빛깔과 고요는 낮이나 밤의 풍경에서 느낄 수 없는 장중한 깊이가 있다. 단잠에서 깬 산과 강은 서있거나 누운 그대로 묵언수행 중이다. 번뇌의 옷을 벗은 세상은 보는 이를 숙연케 한다. 이 책은 그런 새벽 정경으로의 초대장이다. 그림 같은 사진과 잠언 같은 글들이 가득 녹아 있는 새벽행 티켓이다.

둘의 사진 산문집과 패키지 선물용으로 묶여 있는 황청원의 사랑시 모음집 <우리가 혼자였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역시 맑고 투명한 언어로 새겨져 있어 긴여운을 남겨 준다.

"사랑해도 외로울 때 있나니 그때 꼭 말하세요. 그래 우리가 혼자였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한국 불교미술 원류를 찾아서



불교미술기행
조병활 지음
이가서 | 1만5천원

조병활 불교신문사 차장이 펴낸 <불교미술기행>은 불교 경전에 근거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불교문화재에 담겨진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 놓아 초보자들도 읽기만 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또 이 책은 불교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평과 미술사적인 설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 작품과 연관된 부처의 실화와 법문들이 실려 있어 불교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다.

지은이는 한국불교의 원류를 찾기 위해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인도, 네팔 등 10여 나라를 답사 취재했다. 이 책에는 바로 지은이의 이런 발품을 판 현장 냄새가 물씬 녹아 생생함도 함께 전해준다.

지은이는 불교가 전래된 각국 나라들의 특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같은 주제의 작품인데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인도 뉴델리 박물관의 관세음보살은 가늘고 유연한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선 등 외관은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각종 장신구와 옷 모양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사리장엄구 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의 세계를 지향하라고 중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불교미술의 목적이라고 확신하기에 펜을 잡았다"고 이 책의 출간 의의를 밝힌다.

김주일 기자

남도에 흐르는 깊은 멋과 맛



시방 여그가 그 꽃자리여
한승원 지음
김영사 | 1만1천9백원

"흑산도에 가면 최소한 며칠 동안 자기를 가두고 거듭 밀려오는 파도의 하얀 포말 앞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살필 일이다. … 흑산도는 자기가 가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파악하게 하고, 그를 더욱 우람하게 성장시키는 신령스러운 힘을 가진 섬이다."('나를 돌아보는 섬' 中)

작가에게 고향은 글쓰기의 원천이다. 소설가 한승원씨의 고향인 남도의 풍경과 문화 역시 바로 자신의 작품의 속살을 이루고 있다. 1997년, 40여년 만에 전남 장흥의 바닷가를 다시 찾은 지은이가 글을 쓰는 틈틈이 광양과 순천, 여수, 해남, 진도 등 남도 땅 곳곳을 돌아보며 쓴 글을 모았다. 하지만 지은이는 남도의 바다와 풍광을 단순한 눈요깃거리로 삼지는 않는다.

자신을 가두는 지혜와 풀어놓는 지혜를 배우는 강진, 다산초당과 백련사 사이의 오솔길, 멋과 낭만의 항구 여수, 참다운 고독을 알려주는 순천 갈대밭, 가슴 속을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과 광양 매화꽃마을, 꿈꿀 수 있는 자의 행복을 깨우쳐주는 흑산도와 다도해의 섬들 등 남도인의 눈으로 본 남도땅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오래 전부터 꿈꾸듯 내 고향의 문화와 풍경의 속살을 깊이 읽고 싶었다"는 지은이는 "이 책이 올바르게 관광하는 눈을 기르고, 우리 국토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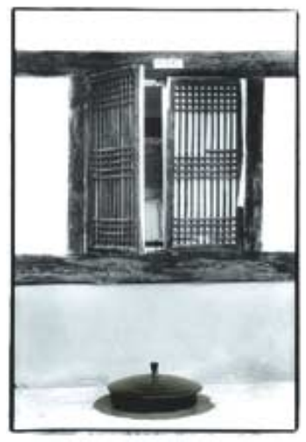
"자신을 속이지 말라"

서릿발 가르침 귀에 '생생'

해인사 백련암과 은해사 운부암, 법주사 복천암, 팔공산 성전암의 공통점은?

바로 성철 스님이 머물며 수행과 공부의 터전으로 삼았던 암자라는 것이다.

<암자로 가는 길> <선방 가는 길> 등의 책을 통해 고즈넉한 산사 암자를 소개해 온 소설가 정찬주씨가 성철 스님이 머물렀던 암자에서 스님의 발자취와 가르침을 찾아본 <자기를 속이지 말라>를 펴냈다. 책은 스님이 머물렀던 암자와 암자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놓은 1부 '성철 스님 암자기행'과 지은이가 평소 가슴에 새기는 스님의 법문을 모은 2부 '어둔 마음을 밝히는 성철 스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철 스님이 머물며 수행했던 은해사 운부암 뒷방. 사진제공=열림원

암자 기행을 떠난 지은이는 만회암에서 출가한 아들을 만나러 온 어머니를 만나지 않겠다고 박대했던 성철 스님이 자운 스님의 말에 마음을 돌려 1주일 동안이나 어머니를 업고 금강산을 구경시켜드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복천암에서는 때묻은 옷가지를 시냇물에 휘휘 내저어 나뭇가지에 말리던 성철 스님의 모습과 버려진 썩은 당근도 다시 주워 먹을 만한 곳을 골라내며 "시물(施物)을 화살처럼 무서워하라"고 이르던 스님의 가르침을 만난다. 암자 둘레에 철조망을 둘러 세상 사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은 채 10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수행에만 정진했던 성전암도 빼놓을 수 없다.

지은이가 이렇듯 암자를 찾아다니며 새긴 스님의 가르침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뜻의 '불기자심(不期自心)'이다. 성철 스님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에서 방에 붙여놓았다는 이 말에서 인생을 사는 바른 길을 보게 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자기를 속이지 말라
정찬주 지음 | 열림원 | 9천8백원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6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독도에 '자비의 등' 밝히다

조계사, 10일 독도 등대에 지킴이燈 20개 달아
한국 역사상 최초…순직 경비대원 위령재도

독도 우리 땅 독도에 연등이 걸렸다. 오랜, 아주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은 독도를 '지도상의 땅'으로만 생각해왔다.

밟을 수 없었기에, 느낄 수 없었기에 머릿속 저편에만 있었던 땅. 그 땅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빛나는 연등이 밝혀졌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5월 10일 사회국장 범성 스님과 실무자 4명을 독도에 파견해 20여개의 '독도 지킴이 등'을 등대 주위에 설치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도를 방문한 경기도 평택 서암사 신도 10여명도 동참했다.

범성 스님은 "최근 불거진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찬찬히 되돌아보는 것은 물론 독도에서 외롭게 각자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경비대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등을 설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서울 출발 34시간 만에 입도(入島)

지난 3월 28일부터 독도 관광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관광객들. 그러나 막상 독도에 발을 디딘 사람은 많지 않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해의 특성상 1년 중 40여일만 독도 입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계사 실무자들의 입도도 쉽지 않았다.

5월 9일 새벽 3시 서울을 출발, 오후 4시 40분경 독도에 도착했으나 파고가 높아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5월 10일 오전에도 실패하기는 마찬가지. 다행스럽게도 10일 오후 30분동안 독도에 입도할 수 있었다. 서울을 출발한지 34시간 만이다.

■ 30분동안 일사불란하게 진행

5월 10일 독도에 도착하자마자 실무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입도가 허락된 30분 동안 연등을 설치하고 위령재를 봉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계사 김경석 관리계장과 심재선 주임은 연등을 들고 등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재빠르게 설치한다. 등을 설치하고 나서는 예를 갖추고 장병들과 함께 고불문을 낭독했다.

"오늘 저희가 밝힌 등이
평화의 씨를 뿌리는
작은 등불이 되도록 서원드립니다.
우리를 침략한 저들이 저지른
만행의 과보를 씻고,
뜻을 세우다 부처님의 땅으로 가신
많은 영령들의 혼을 달래는
자비의 등불이 되도록 서원드립니다."

■ 5월18일까지 연등 불밝혀

김 계장이 등을 설치하는 사이 범성 스님은 독도경비대원, 불자들과 함께 독도를 지키다 순국한 5명의 영령들을 위한 위령재를 봉행했다.

'관음시식'으로 위령재가 시작되자 독도를 찾은 불자들도 합장을 하며 자연스럽게 동참했다. 독도경비대원 조준형 수경은 "얼굴도 모르는 선배들이지만,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 역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예를 올렸다.

서암사 신도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갑례(58)씨 역시 "스님이 이렇게 직접 오셔서 위령재를 올리고 평화를 발원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위령재를 마치고 범성 스님은 경비대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독도경비대 부대장 석장준 경장은 "연등을 설치하고 위령재를 지내준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지원품까지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함께 위령재를 봉행한 불자들도 십시일반 주머니돈을 챙겨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계사에서 설치한 연등은 5월 18일까지 등대에서 동해의 모든 생명들과 같이 숨을 쉬며 한국과 일본은 물론 온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며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


조계사 사회국장 범성 스님(왼쪽)이 독도 경비대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 연등이 설치되기까지

조계사가 독도에 연등을 설치하게 된 것은 한 종무원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관리계장을 맡고 있는 김경석씨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조계사 시설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다운 발상이었다.

김씨는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과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사중에 제안했다"며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똑같이 사랑하고 아끼신 것처럼 세계의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불자로서 독도에 등을 설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해군 경비정을 이용해 조계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주요 소임자들과 신도회 관계자들이 함께 독도를 방문하려 했으나, 막판에 해군 측이 난색을 표해 결국 정기여객선을 통해 독도에 입도하게 됐다.


조계사 종무원들이 '평화의 씨를 뿌리는 자비의 등불이 되기를 서원하는' 연등을 등대 주위에 달고있다.


평택 서암사 주지 서암 스님의 집전으로 치러진 위령재에는 조계사와 서암사 신도들이 동참해 넋을 기렸다.



함께 독도에 입도한 함양군민들이 독도수호를 결의, 구호를 외치며 독도가 우리땅 임을 재확인했다.

글 · 사진/독도=유철주 기자

소원성취 영험 부엉이길상도

불초 소승은 인천 영흥도 토굴에 묻혀 수행중에 있는 납자로서 영험한 부엉이 길상도를 소개드리고저 합니다.

어느 때 한 선비를 만났는데, 선비께서 대사는 기골이 장대하고 기가 넘쳐나기에 만인을 위하여 알려드리니
이점 꼭 지켜주기 바란다며 하시는 말씀이, **부엉새를 그려서 집없는 이와 사업하는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옛 중국 문헌의 기록을 두루 살피고 정성과 원력을 세워 그려서 그 집에 **3년동안 모셔두면 집없는 사람은 3년 안에 집을 사고 사업하는 이는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수년간 실천해 왔는바 별다른 일 뜻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많은 이들이 소원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그려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달마도 한점 함께 드립니다)


구암 합장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영흥도 서래달마원 구암 합장
TEL : 032)886-3586 H·P : 011-9458-6616
FAX : 032)886-3587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시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 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 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⑩

5월 7일

무차선회 현장

"진리의 눈 활짝 열릴 때



진제(眞際) 스님은

· 1931년 경남 남해生
· 1954년 석우 선사를 은사로 출가
· 1957년 통도사에서 구족계 수지
· 1967년 향곡 선사로부터 법을 인가받아, 경허-혜월-운봉-향곡 선사로 전해 내려온 법맥을 이음.
· 1971년 해운정사 창건, 선학원 이사장 · 중앙선원 조실 역임
· 2000년 문경 봉암사 조실, 2002년 국제무차선대법회 법주
· 現 해운정사 금모선원 조실, 대구 동화사 조실,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

說禪 진제 스님 (동화사 조실)

"선(禪)은 지혜의 보배 칼을 완성해 단칼에 다생(多生)의 무명초(無明草)를 베어 없애는 것"이라는 서두로 회향법어를 한 진제 스님은 '무심도인(無心道人)'의 삶을 산 혜월 선사, 법상에 오른 조실 마조 스님 앞에서 보란 듯이 배석자리를 돌돌 말아 법당을 나가버렸던 백장 스님, 자유자재한 삶을 누렸던 중국 방거사 가족의 이야기 등을 통해 '지혜의 보검' 잘 쓰는 법을 대중들에게 설파했다.

50분간의 법어가 끝나자,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의 사회로 무차선회가 이어졌다.

곧장 진제 스님이 대중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전, 경기도 양주 망월사라는 선방이 있었습니다. 제방에서 발심한 수좌 스님들과 모여 결제방 짜기를 용성 선사를 조실 스님으로, 운봉 선사를 입승 스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던 중, 용성 스님이 법상에 오르시어 '나의 참모습은 삼세(三世), 과거 · 현재 ·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보지 못합이요, 역대의 무수 도인들도 보지 못합이니 여기 모인 대중은 어느 곳에서 산승의 참모습을 보려는고?' 하고 법문했습니다. 그러니 운봉 선사가 일어나 '유리 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하고 멋진 답을 하셨습니다.

만약 산승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빗장 관자(關字) '관(關)'이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운봉 선사가 '유리 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라고 답을 하자, 용성 선사는 아무 말 없이 법상을 내려와 조실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대중들은 세 분의 답처를 바로 봐야 합니다. '유리 독 속에 몸을 감췄다' 함은 어떤 뜻이며, 빗장 관자 '관'은 어떤 뜻인가. 또 법상을 내려와 말없이 조실 방으로 돌아간 것은 어떤 뜻인지를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법문에 바로 답하는 이가 있을 것 같으면, 산승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만약 바른 답을 못하면 진리의 문답에 있어서 동문서답을 할 것입니다. 또 사(邪)와 정(正)을 가릴 눈이 없는 것이니 물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답하면 내가 주장자를 주겠습니다."

진제 스님이 벽력같이 쩌렁쩌렁한 질문을 던졌지만 장내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첫 번째로 부산 명륜동에 산다는 류두식 불자가 법거량에 나섰다.

(삼배를 올리고)"세 가지 중에 저는 조실 스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답을 하라는데 '조실 스님을 따라가겠다' 고 하니, 이게 무슨 소린고?"

잠시 후, 한 재가불자가 앞으로 한 바퀴 구르며 법석으로 나왔다. 진제 스님은 "굴러도 곤두박질을 하더라도 그와는 거리가 멀다"고 응대했다. 그 불자가 물었다.

"스님은 법어에서 '방 거사의 딸 영조는 불법이 풀끝에 전부 다 나타났다' 고 했는데, 저는 보는 것이 전부 다 불법이라고 봅니다. 불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만."

"그것은 놔두고, 내가 아까 물은 세 가지를 명백히 하나하나 들어 말하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대답이 없자 사회를 맡은 지환 스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용기를 갖고 이 기회에 선지식스님에게 소견을 밝히십시오.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 정답이면 조실 스님에게 주장자를 받을 것이고, 아니면 정진의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진제 스님이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바른 답을 하는 이가 없는 줄 알겠습니다. 금일 참석한 모든 대중들이 세 가지 물음에 답하는 이가 없으니, 이 산승이 양 팔을 던지고 세 가지에 대한 나의 살림살이를 만천하에 공개하겠습니다."

(대중들 박수)

"이 세 가지를 점검하겠습니다. 첫째, '운봉 선사가 유리 독 속에 몸을 감췄다' 하는 것은, '도적의 몸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둘째, 산승이 빗장 관자(關字)의 '관(關)'이라고 한 것은, '수십 길이 되는 철판으로 올타리를 중중(重重)으로(겹겹이) 둘러놓으니 나는 새도 드나들기 어렵다' 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나온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성 선사가 말없이 법상을 내려간 것은 운봉 선사의 답처를 척 아시고 법상을 내려가시는 그 얼굴에는 부끄러운 빛이 가득함을 의미합니다. 답처를 척 가리고 당신 방(조실방)으로 들어간 (용성 선사가) 선지식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대 선지식입니다. 이런 선지식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산승은 살림살이를 오늘, 천하 대중에게 모두 드러내게 됐습니다."

문:곧바로 부처의 경지 이르는 길은?

답:일천 성인 이마 위 '一句'를 뚫고 가라

진제 스님은 이어 대중들에게 화두 드는 법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할 것을 주문했다. 출 · 재가자들이 연이어 나와 삼배를 드린 후 선 공부를 하다가 느낀 궁금증,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등 참선과 관련된 질문들을 쏟아냈다.

먼저 해운정사 수좌 범주 스님.

"위빠사나 등 소승수행법이 우리나라에서 승속을 막론하고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예로부터 남방소승의 수행법으로 부처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을 주장해왔는데요. 또 부처님의 정법이 간화선맥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럼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의 힘은 무엇입니까?"

"비파선(위빠사나 수행)도 수행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위빠사나 수행으로) 무한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부처의 지위에 오르는 법을) 알수는 있습니다. 또 (위빠사나 수행으로) 법신의 진리와 여래선의 진리에 눈이 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향상일구(向上一句) 진리의 체득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도인이 법신의 진리를 비밀히 전한 것도 아니고, 여래선의 진리를 전한 것도 아닙니다. 향상의 일구 진리는 오늘날까지 비밀히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이 비밀히 전하는 향상의 일구는 활구참선, 즉 간화선만이 그 관문을 투과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간화선만이라야 (그 관문을) 투과할 수 있는가. 일념삼매가 지속되는 그 과정에서 의식과 화두가 한 덩어리가 돼, 밤낮으로 흐르고 흐르다가 보면 홀연히 보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나게 됩니다. 깨달음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길, '의심이 크면 깨달음도 크다' 고 했습니다. 위빠사나 수행은 의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觀)하는 것입니다. (위빠사나는) 힘이 미약해 대오견성을 못합니다."

수좌 정오 스님이 나와 '돈오돈수와 돈오점수' 에 대해 질문했다.

"스님들은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 대해 옳고 그름, 높고 낮음보다는 선수행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돈오돈수는 선종의 법칙입니다. 중국에서는 육조 이후 선가의 다섯 종파의 가풍이 형성됐습니다. 이 다섯 종파에서는 돈오돈수의 가풍을 제창했지,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돈오점수의 사상을 유포한 선지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역대 조사들의 바른 길을 받아들여, 참구를 잘 해 그것을 나의 살림살이로 삼고,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수행법은 일념삼매가 돼서 거기에서 홀연히 대오견성이 되면, 팔만사천법이 팔만사천의 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팔만사천 지혜로 돌아오면, 다시 제거할 것도 없고 점수할 것도 없습니다. 항시 가나 오나 시간이 흐르나 (수행자가) 스스로 삼매에 들어야 돈오돈수의 살림살이가 됩니다.

돈오점수는 몰록 깨달은 이후 (그간 쌓여온) 습기(習氣)를 제하는 것입니다. 차제(次第)가 있습니다. 견성에 이르는 법이 없습니다. 명안종사들은 돈오돈수를 주창했지, 돈오점수를 주창한 이는 아무도 없어요. 이는 향상일구의 이치를 몰라 그 사상이 맞다며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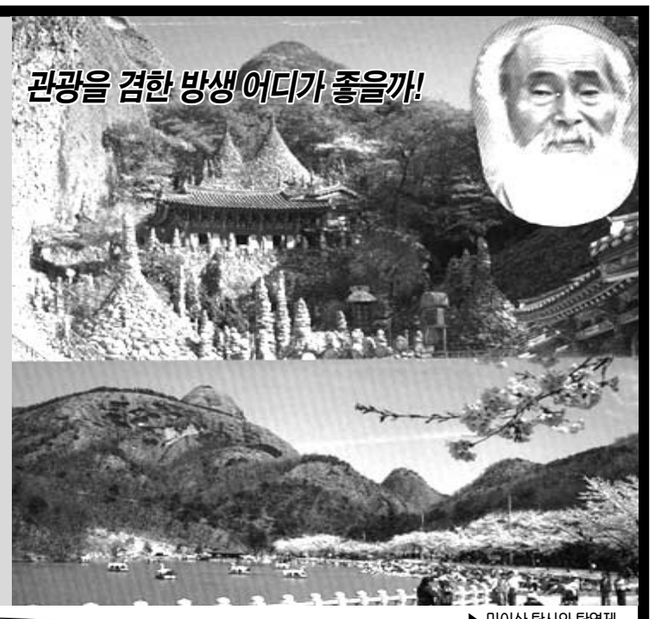
다음으로 해인선원의 건봉 스님이 활구참선법에 대해 물었다.

"올바른 활구참선법은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곧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천 성인의 이마 위에 일구의 진리가 있습니다. 일천 성인의 이마 위에 일구를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부처님의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일천 성인의 이마 위에 일구를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말에 한 걸음도 옮기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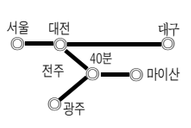
법회 전체 동영상중계
buddhanews.com
비디오·오디오 CD·테이프 구입은
현대불교신문 (02)732-1520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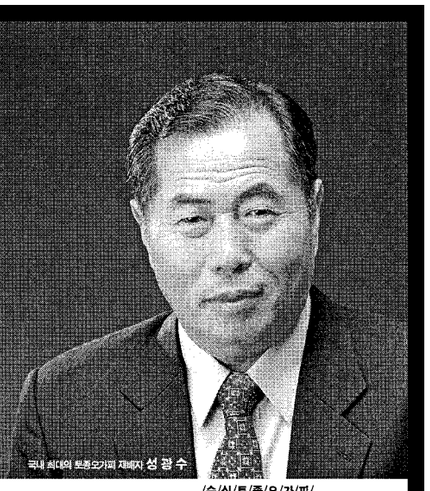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수신토종오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왕에게 측하의 뜻으로 바쳐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토종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24년의 기다림 !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수/신/토/종/오/가/피/ 예헌 禮獻

품질로 평가받겠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과에서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오직 900분께만 매월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갑을 생산할 수 있는 지희 수신오가피에서도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갑만 생산할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때문입니다.

수신오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묵제를 방지하는 홈로그램에 매월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안겨드립니다.

※ 산삼배양근이 함유되어 있다는 모 업체의 오가피 제품은 성광수씨나 수신오가피와 하등의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예가 서령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청다완을 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무차선회 현장

사회 :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⑩

삼세의 악한 인연도 동시에 단절”



무차선 법회 사회를 맡은 지환 스님.

러분은 일천 성인의 이마 위에 일구를 투과하는 그러한 정진 자세를 갖추면, 앉은 그대로 부처님의 지위에 이르는 그러한 정안을 갖추게 됩니다. 바른 진리의 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른 스님의 질문이 이어졌다.

“깨닫기 위해서는 도량, 도반, 선지식 등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지 못한다면, 무엇에 의지해 공부해야 으뜸이 됩니까?”

“세 가지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은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는 인연입니다. 이 광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허공보다도 넓은 진리의 세계에서 밝은 눈을 갖추지 못하면, 몇 생을 어긋나게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무사자오(無師自悟)는 천마외도(天魔外道)’라고 못박아 놓았습니다. 스승 없이 대도를 깨달았다 함은 망념 중의 망념입니다. 왜냐면, 허공의 경계는 다함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상하사유(上下四維)에서 넓디넓은 허공보다 더 넓은 부처님의 세계에서 혼자서 알았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혼자서 알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동쪽 허공의 한 부분만을 보고 다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상하사유를 다 봐야 합니다. 그것은 선각자가 아니거나 먼저 깨달은 대선지식이 아니면, 바르게 인도할 수도 바르게 점검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 그 밑에서 바른 참구, 바른 지도, 바른 탁마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광대무변 진리의 세계를 알고자 한다면,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 바른 지도를 받고 바른 참구를 해서 바른 눈이 열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곧이어 재가불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부산 광안동에 사는 최대각 거사가 질문을 했다.

“화두를 들고 있는데요, 잠 잘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잠을 잘 때는 화두를 어떻게 챙깁니까?”

“참의심이 발동 걸리면 화두가 잘 들립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화두는 흐르는 시냇물처럼 죽 마음속에서 흘러갑니다. 시냇물은 근원이 마르기 전까지 끊겼다가 쉬었다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진리가 발동 걸리면 또는 화두와 참의심이 발동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때는 보고 듣는 분별심 모두가 사라지고, 오로지 화두 한 생각만 죽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잠을 자다가도 영식(靈識)은 화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꿈을 꿔도 다른 꿈이 안 꿔지고 아주 또렷또렷하게 챙기는 그 꿈만 흘러갑니다. 이런 과정이 되려면 마음에 사무치는 참의심이 발동 걸릴 때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아직 처사님께서는 그러한 참의심이 발동되지 않았으니, 마음에 간절히 우러나는 일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진에 몰두하길 바랍니다.”

한 공안만 타파하면 모든 의심 다 풀려

‘참나’에 모든 진리 존재…戒는 도의 근본

“잠은 자되 꿈이 없고, 깊은 잠에 들어서도 저는 목침을 베고 오른 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잡니다. 그 때는 어떻게 마음을 챙겨야 합니까?”

“그때도 진의(眞疑)가 발동 걸리면 죽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렇게 한번 (화두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거짓말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어 소림사 신도회장 대원성 보살이 ‘인과법과 참선’의 관계를 물었다.

“재가신도로서 인과에 대한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인연을 저희들은 재가생활자로서 어쩔 수 없이 걸릴 일이 많이 있는데요, 참선을 해서 그 인과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선을 잘 해서 진리의 바른 눈이 열리시면 삼생(三生)의 중생 인연이 직하(直下)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봄바람에 온 산하의 눈이 일시에 녹아지듯이 진리의 눈이 활짝 열릴 때 삼세 업이 다 녹아서 없어지고 모든 악한 인연도 동시에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들과 더불어 정안이 열리면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 국토에서 부처님과 손을 잡고 복락을 멋지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재가불자가 나와 물었다.

“화두에는 1700공안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좌계에서 1700공안이 지금 시점과 거리가 너무 멀어 의심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스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법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스님께서도 이 시대에 맞는 화두를 생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마삼근(麻三斤) 화두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스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스님, 무엇이 불법입니까?”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이 5월7일 부산 범어사에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의 회향법회로 열린 무차선회에서 한 수좌와 법거량을 하고있다.

진제 스님이 크게 세 번 웃고 주장자를 한 번 내리쳤다.

“그래요. 1700 공안은 도인들이 견성을 하셔서 한 마디를 던져 놓은 것입니다. 한 공안이 타파되면 모든 공안이 다 풀립니다. 고기 잡은 그물 한 코가 풀리면 모든 코가 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불만조사(千佛萬祖師)가 심성의 고향에 돌아가서 법문을 베풀어 놓았기 때문에 서로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알게 돼 있습니다. 산승은 이런 화두를 많이 줍니다. 이 몸뚱이는 허망해서 호흡지간에 숨을 못 내쉬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냥 썩습니다. 또 화장하고 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는 참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요? 이 참나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있습니다. 부처님도 참나를 알아서 위대한 부처님이 됐고, 모든 도인도 참나를 알고 위대한 도인이 됐습니다. 참나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있으니, 여러분도 참나를 알면 부처님도 도인도 됩니다. 그러면 무진 법문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곧이어 한 불자가 앞에 나섰다. “저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꺼냈다.

진제 스님은 크게 웃고 “이름도 없고 성도 없다 해도 이 주장자로 한 대 맞아야 되겠네. 억!”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옛날에 사조 도신대사가 삼조 승찬대사한테 법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조 승찬대사가 한마디 일러라 했답니다. 그러자 도신대사가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도리는 어떤 도리입니까?”

“뒷북을 쳐도 이만저만이 아니네. 아까 물을 때는 벙어리가 돼 있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니 허허허. 억! 쉬시고 참나를 바로 알아가지고 한번 찾아오시오.”

통도사 희문 스님이 “출가대중도 지계청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재가자들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님, 지계청정하지 않고도 대도에 들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계(戒)가 근본이 됩니다. 계행이 청정한 그 가운데, 화두를 아주 간절히 들어 정(定)의 일념삼매가 지속되는 경지를 성취해야 합니다. 정이 이뤄지는 그 가운데 홀연히 밝은 지혜(慧)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이면서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원만히 구족할 때, 부처님과 같은 거룩한 선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자로 오산에 사는 오갑춘 거사가 나섰다.

“1년 전에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일반 선원에서 화두를 받고 1주일간 정진을 했습니다. 온몸에 전율과 함께 화두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1시간씩 정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진 공부가 제게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 또 ‘나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에 대한 의심과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제가 과연 참마음을 알 수 있는지’ 이런 의심 속에서 번뇌 망상을 잊으려고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제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중생에게는 전생도 내생도 깜깜합니다. 인생은 생명호흡지간에 있어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이 자기의 참모습을 내보였습니다. 방 거사의 일가족처럼 멋지게 벗고 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향상일구를 깨달아 바른 정안을 갖춘 이는 홀연지간에 이 몸을 벗되, 진리의 적적삼매를 누립니다. 이 고요하고 고요한 적적삼매(寂寂三昧)를 누리면, 사바세계 삼천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갑니다. 모든 부처님과 도인은 깨달은 살림살이에 편안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 적적삼매를 누리는 것이 모든 부처님과 도인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러니 일생생활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를 참구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있습니다. 이 ‘참나’를 알면 부처님 국토에 이르고 부처님과 같은 생활을 하고, 억만 년에 다하도록 생사의 고통이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놓았습니다.

그러니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하고 간절하게 화두가 흘러가도록 전력을 다하면, 시절인연이 도래해 홀연히 자기 참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때, 산승이 바른 말을 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김철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진제 스님 회향법어 전문 이번 신문 부록에 있습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온열복대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비만과 배가 찬 것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 북한 3대 특산품인 세계 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강력한 열과 생명의 광선이 방사되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과가 있어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숨만 쉬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변비, 복부비만, 소화불량. 만성위염. 어깨, 허리, 무릎 결림등이 자연 치유된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는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쑥뜸의 효능 은행석온열복대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원적외선 “침”의 효과로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피부에 접촉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과 사용하기가 안전하고 편리한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닥터 (02)3210-3170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신비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북한산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北韓産 금강염주

성불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소원도 꼭 이루고 건강에도 최고 북한신비의 금강염주

세계에서 최고로 강하고 단단한 염주중에 염주인 금강염주는 북한신비의 3대 특산품으로 평안도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희귀 금강석 입니다. 또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참선 안거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입니다. 강한氣의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보기만 해도 악귀와 잡귀가 도망가고 액운을 쫓으며 동서남북의 복을 부르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상온에서 93%의원적외선이 방출되어 건강에도 최고이며 강한氣로 기도 정진시 일념무아하며 부처님의 가피로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입니다.

※신제품 금강바이오니아 108. 손목염주도 판매합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 사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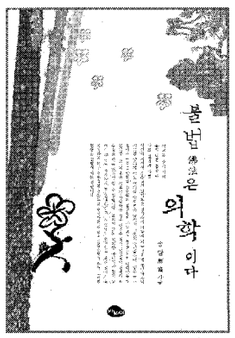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구직을 원하시는 분
- 건강(氣)이 약하신 분

1set 225.000원	
108.12	195.000원
108.손목	160.000원
12.손목	110.000원
108염주	135.000원
12단주	85.000원
손목염주	38.000원

金剛念珠社 문의전화 (02)723-0909

직영매장 이화불교사 TEL (02)720-1700,734-1383 (불교용품일체 도,소매)

봉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축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淞潭 지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로다
-남양주 봉선사 월운 조실 스님

신국판 | 319쪽 | 값 10,000원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정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02) 2612-3358

전화 : 02)335-7858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대한불교천태종

명 장 사

주 지 화 산

사부대중일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205-1
TEL 043)223-0322

한국불교태고종

삼초대 정심사

주 지 원 해

충주불교 사암 연합회장

사부대중일동

충북 충주시 단월동 산 54-1
TEL 043)848-2072. 848-2073

한국불교태고종

무 심 정 사

주 지 도 안

한국불교 태고종
충북교구 총무국장

사부대중일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53-8
TEL 043)257-0108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적 조 사

주 지 자 성

사부대중일동



서울 성북구 돈암 2동 593
TEL 02)924-5362 / FAX 02)924-5363

(사)대한불교 해동종 · (사)해동자비원

송 원 사

주 지 혜 공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외동 699-5
TEL 055)334-5890 H.P 011-868-2850

대한불교조계종

청주 용 화 사

주 지 각 의

사부대중일동

청주시 흥덕구 사직 1동 216-1
TEL 043)274-2159

대한불교법화종

약 사 암

회 주 일 여
주 지 도 호
신도회장 이광영
신 도 일 동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TEL 053)852-0803 / FAX 053)852-9453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 종무원

종무원장 법 운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9동 629-21
TEL 053)622-3702

사찰, 법당, 앰프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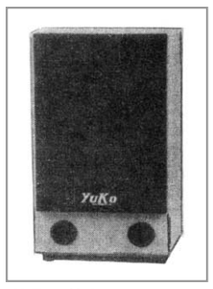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향기나는 TV, 불교TV

솔향 가득한 큰 스님의 말씀은 삶의 지혜를 밝혀주고
이야기로 풀어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그 곁에 불교TV가 있습니다.

Btn 불교TV

代) 02-3270-3300 www.btn.co.kr


5월 7일 열린 국제명차품평대회 국내 예선전에서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하고 있다.

차문화협 '차의 날' 행사



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귀례)는 오는 5월 25일 '제25회 차의 날'을 맞아 22일 경기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에서 '제16회 전국차인큰잔치'를 개최한다. 문화관광부와 경기도 광주시, 전남 보성군이 후원하는 이 행사에서는 차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 들차회, 차만들기, 차 관련 자료 전시회, 차예절 발표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차음식 경연대회 대상 1명에게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흠)는 5월 25일 서울 경희궁에서 '제25회 차의날 기념행사'(사진)를 개최한다. 숭정전 중정과 잔디밭 등에서 주한 외교사절과 전국 2000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의 날 제정 선언문' 낭독과 차의 날 경과보고, 기념식 축하 헌다례, 두리차회 등이 펼쳐진다.

'아름다운 분청 찻그릇'展

도예가 이수종씨가 5월 21일까지 대구 예송갤러리에서 20번째 개인전 '아름다운 분청 찻그릇전'을 개최한다. 90년대부터 분청사기를 만들어 온 이씨는 전남 영암 지역의 흙으로 빚은 질박하고 소박한 분청 찻그릇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철화기법을 활용한 철화분청항아리, 다완, 철유향로, 귀얄편병, 찻잔, 덤벙발(鉢), 연적 등의 작품이 선보인다. (053)426-1515

매암차박물관, 나눔의 축제

경남 하동 매암차문화박물관(관장 강동오)은 5월 20~22일 제6회 나눔의 축제를 개최한다. '차와 사람의 만남, 그 초록빛 평화의 공명'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에서는 차 유물 전시, 들차회, 차만들기 체험, 차문화 강의와 사랑의 휠체어 기증 모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故 정서운 할머니 1주기 추모제 등이 열릴 예정이다. (055)883-3500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해외진출 할 '한국대표茶' 엄선

제5회 '국제명차품평대회 국내 예선전' 열려

"어떤 차가 좋은 차인가요?"

차인이라면 한번쯤 받아봤을 질문이다. 차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요즘, 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좋은 차'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마련이다. '곡우차' '우전차' '수제차' '야생차' 등 차를 수식하는 말들은 많지만, 정작 그 차가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확산된 '차문화 운동'이 차라는 존재를 알리고 차 마시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섰다면, 최근에는 차의 품질을 감별하는 품평(品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객관적인 차 품평은 소비자에게는 차 선택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생산자들에게는 세계 유수의 차와 경쟁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전남 보성과 경남 하동이 지역 차문화 행사 기간에 '보성명차선정대회'와 '올해의 명차 선정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바로 '좋은 차'를 가려보고, 이를 통해 제다기술의 발전, 더 나아가 우리나라 차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미 중국이나 일본, 대만 등의 차 생산국들은 세계적인 품평대회를 열고 차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제다기술 발전의 바탕이 되는 차의 등급을 정하고 있다.

5월 7일, 제31회 보성다향제 기간에 열린 '국제명차품평대회 국내 예선전'은 이런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성군과 보성다향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차인연합회와 한국국제차엽연구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중국 절강성 항주에 본부가 있는 국제명차품평회에 출품할 국내 차를 선발하는 대회다. 우리나라 차 생산자들이 국제 행사에 차를 출품하는 길이 흔치 않은 현실을 비추어보면 우리 차가 세계로 나아가는 일종의 교두보라 할 수 있다.

이날 심사위원으로는 국제명차품평위원인 공슈링(중국 절강대) · 정인오(한서대) 교수, 전남차시험장 김주희 선임연구원 · 김종태 연구원, 한국차인연합회 김대성 고문, 선혜 스님 등이 참여했으며 쌍계제다 김동곤 대표 등이 감수를 맡았다.

올해에는 녹차 24종과 발효차 10종이 예선심사에 올랐다. 차는 출품 신청을 한 제다업체의 제품 중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100g 단위의 포장 제품을 추진위원회측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했다. 품평은 마른 잎 외형과 녹차는 80℃, 발효차는 100℃의 물로 5분간 우려낸 후 색향미(色香味) 그리고 우려내고 난 후의 찻잎을 각각 100점 기준으로 채점했다. 마른 찻잎을 심평판에 놓고 가볍게 흔들어 고루 퍼진 찻잎의 색깔과 투명도, 형태, 파손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또한 우린 찻물의 색이 맑고 깨끗한지, 찻물의 향과 맛이 순수한지에 따라 우수양호 보통 세 단계로 나누어 평가했다.

특히 올해 품평 대회는 상대평가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차 1~2종을 선발했던 예년과 달리 90점 이상을 획득하는 차는 모두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수한 품질의 차가 좀 더 많이 세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어진 품평 결과 녹차부문 금상은 영농조합 보성제다의 보성녹차와 곡천다원의 청담차가, 발효차 부문은 쌍계제다와 곡천다원이 각각 수상했다. 선발된 제품은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명차품평대회에 출품돼 세계 유수의 차들과 기량을 겨루게 된다.

대회를 총괄한 정인오 교수는 "국내 제다 기술의 현주소와 해외 차의 수준을 가늠해 보고 서로 기량을 겨뤄볼 수 있다는데 행사의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많은 국산 차가 국제 시장에 선보이도록 제다인들이 더욱 분발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글 · 사진/보성=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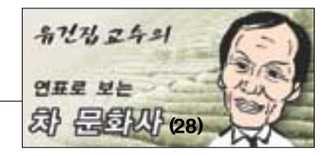
시중 판매 제품 구입해 심사

녹차-보성제다 · 곡천다원

발효차-쌍계제다 · 곡천다원


국제명차품평대회 국내 예선전은 해외 차 시장에서 경쟁할 우리 차를 선별하는 의미 있는 행사다. 사진은 국제명차품평위원인 공슈링 교수가 마른 찻잎의 향을 심사하는 모습.

조선시대 ③



격동기를 지나 문물이 정비되고 국가가 안정되니 문운(文運)이 일어났다. 고려 유신들 대부분이 조선의 개국에 참여하여 그들의 다풍(茶風)이 그대로 이어지다가 김종직, 김시습 등 차인의 출현으로 면목을 일신하게 된다. 신진세력들은 권력의 자리매김에만 힘을 기울이느라 일시적으로 차의 산지가 황폐하게 되고 차 마시는 일도 국가적 행사나 종교의식을 제외하고는 미약해졌다. 그런 속에서도 권근, 정도전, 정인지, 최항, 신숙주 등의 선비들이 차를 즐겼다. 특히 김시습은 차를 직접 길러 만들었으며 차의 정신적 세계를 유불선의 형이상학적 세계로 승화시키기도 했다. 일본의 교류가 잦았으니 이때 오가는 물품에 차와 차도구들이 많았다. 궁중의 다방을 정비하여 사존원(司尊院)으로 개칭하고 능(陵)에 주다의(晝茶儀)를 행했다.

중국은 별다른 변화 없이 차인들이 꾸준히 차를 즐겼고, 일본은 명과 직접 교역하면서 중국차의 영향을 받았다. 능아미(能阿彌)의 후광을 입은 촌전주광(村田珠光)이 족리의정의 다도사범이 되면서 초암차(草庵茶)를 퍼뜨려 훗날 일본 다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① 안숭선에게 명하여 창성(昌盛)과 윤봉, 장정안에게 다종 20개씩과 다른 품목들을 회증(回贈)했다.

② 김종직(1431~1492): 백성들의 다세(茶稅)를 덜어주려고 관에서 다원을 개간해 직영한 차인이다. 문하에 남효온, 조위, 정희량, 이목 등의 차인을 둔 영남학파의 종조다.

③ 김시습(1435~1493):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차의 달인이다. 그의 초암 다법이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 그가 지은 〈금오신화〉에도 차 이야기가 나온다.

④ 성현(1439~1504): 명나라에 두 번이나 다녀온 차인으로 다시 '영명심승(永明尋僧)' 등과 〈용재총화〉를 남겼다.

⑤ 허침(1444~1505): 중국에 다녀온 차인으로 좌의정을 지냈으며 다시를 남겼다.

⑥ 12월에 대마도 태수에게 차 10근, 다식 2각 등을 내렸다.

⑦ 주다의 때 능사(陵司)가 찻병과 다종을 준비하여 차를 올렸고 휘덕전 조석 상식 때도 차를 올렸다.

⑧ 방(方)을 원(院)으로 승격시켜 찻일과 그에 부수되는 제반의 일을 맡도록 했다.

⑨ 오관(1435~1504): 명대 예부상서를 지낸 차인으로 심주와 소조의 호구산에서 직접 차를 만들어 끓여 마신 다벽(茶癖)이 있었다.

⑩ 육용(1436~1494): 명대 누동삼봉(婁東三鳳)의 한 사람으로 차를 즐겨 다시를 남겼다.

⑪ 오조: 명대 시인으로 음률에 밝아 차를 마시며 즐겨 들었다.

⑫ 촌전주광(村田珠光): 초암에서 자득하는 다법을 익혀 심성을 존중하고 정신적 면을 강조한 나라류(奈良流)의 개조다.

⑬ 〈가목지〉에 차밭의 면적과 이름들이 적혀 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김시습, '茶정신' 유불선 세계로 승화

@ 표는 약(about)

	한국	중국	일본
조선시대	1431 다종(茶鐘) 20개씩 회증 ① 김종직의 출생 ② 1435 김시습의 출생 ③ 1437 백정들의 유망(流亡)을 막음 1438 전라, 경상에 공법(貢法) 시행 1439 성현의 출생 ④ 1443 지방의 진상물 지정 일본에 통신사를 보냄 1444 허침의 출생 ⑤ 1445 대마도주에게 차와 삼을 줌 ⑥ 1446 공법 폐단 역설, 영릉주다의 ⑦ 전운색(轉運色)을 두다 1447 다방(茶房)을 사존원(司尊院)으로 개칭 ⑧ 왜인과의 교역 사목(事目)을 정하고 사무역 금지	명대 1435 오관(吳寬)의 출생 ⑨ 1436 육용(陸蓉)의 출생 ⑩ @ 오조(吳兆)의 활동 ⑪	실정(室町) 1433 촌전주광(村田珠光)의 출생 ⑫ 1434 명의 사신 입국 @ 〈가목지(嘉木誌)〉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께 드리는 글
(어리석은 분은 읽은들 무슨 뜻인지 모르니 읽지 마세요)

"UFO와 하나님의 실체" 〈천지창조의 비밀〉에 대한 책의 광고를 10여 차례 게재한 취지의 설명입니다.

민족의 정서와 의식이란 그 밑바탕이 그 민족의 오래된 전통적 신앙과 종교적 관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意識)의 전환운동이란 그 시대를 잘 간파하여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잘 인지함으로서 우리 민족의 의식(意識)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알고 대처하는 일입니다.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옳고 합리적인 이론과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 온 바른 사상과 종교를 널리 홍보함으로서 민족의 깨닫기 운동이 자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다(多)종교 사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천주교)의 독무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주교 교황이 서거하자 마치 우리의 國父가 서거한 것보다도 더한 뉴스의 독무대는 민족의 주체적 의식이 망각된 채 사대주의 신앙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깨닫기 운동이란 바로 전 인류가 최종적으로 가야할 지표이며, 이 길은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들이 설파한 일입니다. 미물까지도 널리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인데 어찌 사도(邪道)들이라 하여 내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도하고 바르게 이끌 사람들은 불교인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친척이며 형제들인 기독교(천주교)인들입니다.
바른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 수행자의 옳은 행위이며 자비 정신이므로 그들을 가련하고 측은한 마음에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통과 교권수호의 여러 가지 차원에 있는 것이지 결코 남의 신앙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법도 널리 알리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요, 비록 잘못된 것이라도 항상 쓰고 있으면 타성이 붙어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닫기 운동이란 바른 법을 널리 홍보하고 깨달음의 길을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지창조의 비밀〉을 널리 홍보하고 읽게끔 하는 그 자체가 포교이며, 많은 노력과 자금을 들이지 않고 종교 간에 갈등과 다툼 없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히 교화가 되리라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도는 전 종교인의 과반수(過半數)가 넘고 천주교인도 4백만이 넘는 지금의 시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학 예술 등 각 분야에 있어 지도급 인사들 70%가 기독교인들이라는 통계가 나왔으므로 사회는 그들의 논리에 좌지우지됨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교인은 몇%일까요? 10%도 못되는 현실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兆). 우리나라의 전 예산을 퍼붓는다 해도 기독교의 교세를 역전시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스님들은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신도가 줄어 폐사 위기의 사찰이 많은데 지금도 대형 사찰과 거대한 불상을 조성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절이 크고 불상이 크면 영험한 부처님이 계신가요? 불교계 신문의 광고에 나와 있는 많은 사찰 매매는 무엇을 뜻하나요. 신도가 없으면 한 줌의 재가 된다는 것을 모르니 아무리 큰 절을 짓고 불상을 크게 만든들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천지창조의 비밀〉, 김종성 씀〉을 日刊紙에 꾸준히 광고하여 많은 사람들을 읽게끔 한다면 불교인은 자긍심에 개종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무종교인은 기독교(천주교)로 가는 일이 없을 것이며 기독교인들도 비논리적인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므로 스스로 자각의 소리에 귀를 열고 깨달음의 종교에 귀의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교화하는 방법, 종교전쟁이 없이 교화하는 방법은 메스컴을 통한 교리의 홍보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성현의 가르침이 〈깨닫기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범민족 깨닫기 운동모임〉 임원 일동
회장 김 도 기(관음사 주지)

동참하실 분 :
농협 751025- 51- 021224 (예금주 : 김 팔 영(도기))
(054-633-0108, 010-2465-1357)

불자생활정보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 FAX 02)737-0697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연락바랍니다
(침구, 명리,
1종운전면허소지)
011-9808-1331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361-5055

행자모집
행자(女)
모집합니다
(서울 성북 · 강원 홍천)
011-732-6933

비구부전스님
행자 모십니다
033)672-2900
033)671-6079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11-9723-0967

비구니
부전스님 한분
모십니다
(천일기도 하실분)
011-462-5275

보살님을
모십니다
(진주)
055)744-3106

종무소 총무
보살님 구함
30-40세.PC 가능자
침식제공, 출퇴근 가능
011-493-1121

비구니
모십니다
(40세 미만의 사찰운영
자신있는 분)
▷충북 영동
사무장 011-493-7478

자동차 폐차 긴급속보
(바퀴만 달려 있으면 폐차가능)
과태료+세금+국민연금+가압류+고장차+방치자동차
때문에 노후된 자동차를 폐차 말소 못하고 계십니까?
걱정 고민 끝 확끈한 정 때문에 시원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승합차+화물트럭)가능 사정상 우선폐차 환영
이제는 폐차도 어디든지 찾아가는 서비스
최고가 매입(즉시 현금지급) 모든 자동차 24시간 무료출장상담
(국)유공자 협동 사업장) 수출 부품 판매
대흥산업폐차 TEL 02)3471-444~5
02)579-1114 / H.P 011-470-3118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전통범음범패학인모집
기초불공의식, 천도재,
49재, 바라무, 작법무
초급부터 고급까지 모든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영남범음범패교육대학
수료후 수료증 수여
011-849-0961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	안	식	용왕	산	신재	바라	나비	춤	상	가	염	불	천도시식전문	명	리	주	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역학으로 영가 보는법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립니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낙태(유산)아 무보시 1000일 천도대법회
- 일시 :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수자영가 기도
- 기도비 무료(당일 대중공양 보시)
- 접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장소(위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 ※ 태영가 추모탑 건립을 위하여 동참하시는 불자님께는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보시합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한국불교태고종 정법수행정진도량 팔공산 지혜정사

창원 중심지역
불교용품점
- 전세 500 월세 30만
- 평수 12평 1층
- 물품대 일체 2천 5백만원 (절충가능)

055)265-7998
010-9662-707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개인지도
명리학, 성명학,
불교신행, 명리상담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접수
02)387-2302
016-9511-0840

단청 탄화
문하생 수시모집
(수산 전통 불교 미술원)
02)381-4433
010-3000-4459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수 강 생 모 집

周易原典講義	春秋左傳	中庸講義
매주 (수)	5월 2일(월) 개강	5월 4일(수) 개강
• 오전11-1시	• 매주(월)	• 매주(수)
• 오후 7-9시	오후 7-9시	오후 3-5시

(사)동방문화진흥회 02)2237-9137 02)2237-8970 ◆수강료 : 월 6만원
6호선 동묘역 2번출구 / 1호선 동대문역 4번출구

당뇨·합병증
세계14개국 특허
나노기술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독일,중국,일본 임상실험완료(유럽8개국 임상실험중)
*나노기술(Nano Technology)로 만들어 흡수효능 극대화
*대한임상건강의학회 인증제품
*다른 방법으로 포기하신분 환영
제조원: 日本 Welway 株式會社
문의 : 눈밝은 세상 (02)2237-8004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행 자 모 집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에서는 참 자아를 찾고 이 세상의 불국토를 실현코자 하는 원력을 가진 미래의 세계불교를 이끌어 갈 참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자격 : 16세이상 남 · 녀 2. 1인 1실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3.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스님, 불자님 전용 가방 (길벗 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권해드립니다.



가 격
본가방 1개 +
핸드작은가방 1개
3만 8천원
※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2개이상은 판매자 부담

사이즈
본가방
가로 440 × 세로 350
너비 90 × 끈길이 110
핸드가방 :
가로 295 × 세로 210
너비 70

- 제조원 : 국내(한국산)
- 특 징 :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흐트러짐 방지(고무밴드 부착), 가방끈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품위있는 디자인(옴字, 佛字 고급자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찍찍이 부착), 명찰 부착 기능(다른 가방과 혼돈 방지), 본 가방 1개 외 작은 가방 1개 추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 고급원단 사용으로 견고하며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 영구적이며 모든 스님과 불자님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단 가방이 수입품이거나 하자시 100% 반품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 051)507-7555, 503-7722
[계좌번호 : 농협 121072-56-116911 예금주 조연순]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www.15440108.com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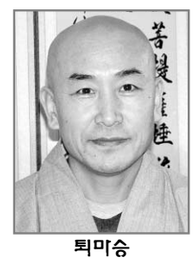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덴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영험도량

퇴마승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짓은 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에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 합니다.

영 가	빙의현상 (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유산,자연)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검색창에 해원사 라고 치세요

해 원 사
초 하 루,
18일 지장재일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전송 : 02) 737-0697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토 굴
- 위치 : 강원도 인제
- 법당 및 요사 : 34평
- 부지 : 1850평
- 가액 : 1억 3500만원

- 위치 : 경기 가평
- 법당 : 25평
- 요사 : 90평
- 부지 : 672평
- 가액 : 4억

- 위치 : 경주
- 법당 : 18평
- 요사 : 30평
- 부지 : 890평
- 가액 : 3억 8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 서울 산속 계곡물 콸콸 200평-3억
2. 1000평 절경 6억 3. 200평-1억5천
4. 원주 1000평-2억
5. 양평 700평-3억
6. 판교 산속 대지 160평-2억5천
7. 여주 4만5천평 터-1억5천

※ 사찰많음.공양주 부전스님 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 호원동 (국립공원 인접) 망월사 1호선 지하철역에서 15분거리
- 평수 : 200평(시유지) 임법당 : 45평
- 마당에 관세음 보살님 석불 칠층석탑 심야보일러, 지하상수도
- 가액: 4억(절충가능)

016-337-951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봉덕2동
- 평수 : 4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5만원 시설비 600만원
- 교통편리 몸만 오시면 됨

018-541-1890

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 평수: 대지 100평 건물: 18평
- 창고, 암자로 구조변경가능 편리한 시설, 전망최고 관광개발지
- 가액: 8500만원

010-6460-1316

사 찰 안 내

-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 18평 외 미륵불
- 요사 : 23평, 산신각
- 급매 : 1억4천만원,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천평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고성읍내
- 대지: 200평 대웅전 약 30평(정남향)
- 큰방 3개있음, 산신각, 화장실 안밖으로 2개, 공양간 2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3천만원, 월 50만원
- 차량은 사찰까지 들어올 수 있음

011-879-7551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 건평 56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7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포교원안내

최고의 시설,최고의 위치(시장중심)
- 사정상 급 양도
- 위치: 대구 동구시장내 3층건물 3층
- 평수: 건물 법당 70평
- 요사 40평 옥상 전용공간 120평
- 가액: 1억 5천만원 (보증금 시설비 포함 월세없음)

011-436-0097

사찰, 수련원 (급) 안내

- 위치:경남 산청, 지리산 해발 700고지
- 대지: 900여평, 임야 15000평
- 법당, 현대식 방사 , 황토집 등 4개 동 바위와 소나무, 계곡의 명당
- 가액 : 2억7천
- 사실 의향이 있으신분만 전화 요망

010-6398-5730
011-9136-131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 5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가액 : 4억(융자가능)
- 산밑이며 주차시설 좋음

- 위치 : 수원시내
- 대지 : 12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양도가 : 7억(융자가능)
- ※ 신도시 교통의 요지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터 안내

- 위치: 강원도 춘천 소양댐 근교
- 450평 평당 25만원 330평 평당 35만원

011-9796-7599

포교당안내

- 부산 교대앞 대로변
- 건평: 30평 법당, 공양간, 접견실
- 가액: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비품: 1300만원
- 운세감정하시는분 환영

010-2690-3430

토굴, 팬션 안내

- 위치 : 남 덕유산 자락
- 부지 : 1,631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가액 : 5억 3천만원 (대출가능)
- 특징 : 맑은 개울과 집 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직접 쓰고 관리해 옴

016-367-2112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스키장 근접
- 부지: 1300평 건물3동 건평95평
- 가액: 3억8천만원

- 부지: 1만평
- 가액: 6억 5천

031)533-2420
017-202-274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1천 2백만원 포함)

019-503-7959

사 찰 안 내

- 위치: 남해
- 부지: 천평(종교용지)
- 법당: 20평
- 요사채: 30평
- 가액: 3억
- 바다보이는 완벽한 암자

- 위치: 부산 근교
- 부지: 283평
- 법당: 20평
- 요사채: 30평
- 가액: 3억 5천
- 조용한 근교암자

〈절 터〉
- 위치: 통도사 부근
- 부지 : 1,000평
- 건물 : 60평
- 가액 : 7억
- 영취산 아래 선원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08-5889,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축 2층건물
- 대지: 105평 ● 법당: 28평
- 요사채: 45평
- 시설: 화장실 4, 심야보일러, 수도, 지하수, 창고, 상수도
- 가액: 2억 8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1-785-5670
053)986-2227

토굴 및 별장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내
- 대지 :145평
- 건물 : 30평(심야보일러)
- 창고 : 6평 ● 식수 : 석간수
- 집앞 마르지 않는 시냇물 철철 마당까지 차 진입
- 가액 : 6,500만원

011-509-0124

포교원안내

- 법당: 31평, 요사: 방2개, 거실, 주방
- 특징: 1. 최신 시설로 장엄이 잘되었음
  2. 인구밀집지역으로 주변이 상가와 패션문화거리로 포교 최적지임
  3. 동사무소 옆
- 가액: 보증금 5천만원 월 20만원(관리비 없음) 사찰전문운영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010-7195-659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버스정류소에서 50m)
- 대지: 약 20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 특징: 숲울창, 고급
- 가액: 4억9천만원 (융자 1억3천만원)

016-651-1800
011-870-1463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14억
-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6248-7345

암 자 안 내

- 위치: 전북 진안
- 심야 온돌 보일러
- 가액 : 1천만원

063)433-3357
010-4804-547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제천 화소동 상가 2층
- 평수: 17평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800만원

011-9186-0667

포교원(철학)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금사동
- 3층 중 2층 40평 방2 공양간 창고1
- 특징: 삼존불 각단탱화 엠프 집기일체 포함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6236-2848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방2개,후원1개,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모든시설완비. 바로 법회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 3층중 3층
- 평수: 7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66만원, 시설비2500만원
- 시설A급(답사 후 절충)

011-253-7729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삼존불, 돌탑부처님 (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1억7천5백만원

033)766-0057
011-471-1996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가설 계곡에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군 마애불 지방문화재근처
- 부지: 233평 ● 가액: 상담후결정

※ 사정상 급 양도

011-742-5925 / 043)644-1666

사찰안내

- 위치: 부산인접(양산, 서창)
- 대지: 60평
- 평당 200만원 호가
- 건물신축: 64평 3층(단청필)
- 가액: 3억4천(융자 9천 포함) 현금 약 2억
- 실수요 스님만 답사후 절충

055)386-3973
011-868-599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파동 가창교 옆
- 서당골 계곡 접 교통편리, 아파트 밀집지역
- 대지 60평 ● 재소발 주차장 단청필
- 한옥 법당 방6개 주방2개 화장실2개
- 전세 보증금 4천만원 월 30만원 또는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독채 도지 9천만원, 양도가 1억7천만원
- 방4개 주방1개 화장실1개
- 집기일체 제공, 저렴한 가격

011-9357-5677
053)768-5788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즉시법회,몸만들어오면 됨

019-571-1732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고성읍 소재
- 대지: 120평 건평: 43평(임법당) 요사채, 용왕당
- 스님건강상 (급)
- 가액: 1억7천만원

055)672-3313
011-872-3320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보은 이평리 부근
- 법당 10평 요사채 20평
- 가액: 전세 2000만원

018-406-307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대조동 (불광 터미널 앞 위치)
- 약 23평,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월 45만원

010-8963-998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4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2개월
● 고급과정 : 2개월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5. 6. 1
수 · 목반 / 금 · 토반 (주 · 야간 : 4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옴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 부처님 진신사리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향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모든 인연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상)

한다현 (전남 무안군 일로읍)



그림 · 문병성

"이른 결혼, 남편 외도…절망의 나날 언니 소개로 명상 수행하며 안정 찾아 이기적이고 거짓된 모습에 참회의 눈물"

밖에는 봄비치고 꽤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다. 모두 잠든 깊은 밤이지만 낮에 마신 커피 때문인지 잠은 오지 않고 부질없는 생각들로 머리만 복잡하다.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번뇌로 괴로울 때면 난 염주를 습관적으로 돌리며 관세음 보살님을 불러본다. 관세음 보살께 의지하는 그 마음조차도 여의어야 하지만 "관세음 보살님!"하고 부르는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의 의지가 되는 것이 지금의 나다.

갓 태어난 조카가 심장이 좋지 않아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 이후로 계속해서 그 명호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항상 나를 격려해주고 의지가 됐던 언니에게 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언니는 나를 불법으로 이끌어주었던 사람이었다. 또, 지금의 결혼을 지탱해나갈 힘을 준 사람이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겁없이 시작한 결혼이었다. 올해 큰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간다. 내 나이 스물 한 살에 낳은 아이다. 애가 애를 낳았으니 지금 생각해봐도 대형사고(!)였다. 출산의 기쁨보다는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 솔직히 막막하고 두렵기만 했었다. 남편 나이 스물 네 살, 내 나이 스물 한 살에 위태로워 보이는 한 가정이 탄생한 것이다.

남편을 만나 연애하기 전까지의 내 생활은 비교적 평범한 축에 속했다. 교사였던 아버지 덕분에 풍족한 유년기를 보냈고 먹을 것을 못 먹고 지냈다거나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져 상처를 받은 적이 없을 만큼 풍족했다. 어려움도 고생도 몰랐던 나는 당시의 내 상황들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나 궁핍함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것 같았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았고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도 없을 줄 알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려서 언니나 부모님이 해주었듯이 누군가가 계속 해주리라 믿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들로만 생각했다.

지독한 아집이요 어리석음 그 자체였다. 이렇게 철없고 어리석은 내가 스무 살이라는 어린나이에 결혼하는 간단치 않은 세월을 선택했으니 내가 받아야 했던 절망감과 아픔은 말로는 표현 할 수가 없었다.

그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겠는가! 모두 내가 선택한 것을. 그러나 당시의 나는 날마다 한숨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깊은 늪에서 빠져 나올 수도 없는 현실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그 시절, 신혼의 기쁨이나 아이 재롱을 보는 재미는 나와는 거리가 멀었다.

내 꿈, 내 이상, 그리고 젊음이 날 힘들게 했다. 내 가정에 안주하지 못하고 사춘기 때부터 시작된 방황은 계속되고 있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꿈과 젊음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 또한 강요만 하는 그들이 원망스러웠다. 내가 생각한 삶의 질서나 계획들은 무시당했고, 나라는 존재는 서서히 묻혀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났다. 남편도 아이들도 날 낳아준 부모님도, 그 누구도 그때의 나에게는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

더구나 나에게 맞는 피임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큰 아이 다음에 아들 둘을 내리 더 낳았다. 졸지에 세 아이의 엄마가 된 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남편은 이런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나는 세 아이의 엄마노릇은커녕 나 자신조차도 주체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화내고 짜증내는 날이 계속됐다. 때때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져 내 자신조차 감당이 되질 않았다. 소중하고 예쁘기만 해야 할 아이들도 나에겐 부담스럽게만 느껴졌고 엄마로서 당연한 희생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침이 두려웠고 잠들면 깨어나기가 싫었다. 현실은 암담하게만 느껴졌고 내 마음은 지옥이었다. 남편 또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경제적인 가난까지 겹치면서 나의 절망은 끝없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남편은 화를 내고 짜증만 내는 나를 피해 외도를 했고, 난 남편의 외도를 핑계로 가출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막상 가출을 하고보니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었다. 아이들에게 나쁜 엄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보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 극으로 치닫던 내 삶에 커다란 돌파구가 되어주었던 계기가 바로 불법과 인연을 맺은 일이었다. 언제부터 불법과 인연을 맺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비구니 스님이셨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법과의 인연을 맺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인생의 난관에 부딪치기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절에만 다녔을 뿐 진정한 불법의 의미를 알려고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런 나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던 언니가 더 이상 안 되겠던지 무작정 한 명상센터에 데려다 주며 한 달만 살다가 나오라고 했다.

언니는 강조했다. "한 달 동안 명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자. 진짜 이혼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혼을 하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을지, 이혼 이후에는 어떻게 할건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 후에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명상 수행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가부좌를 틀고 면벽하여 참선을 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올라오는 다리의 통증을 견디며 화두를 들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남편을 택한 이유'를 계속해서 찾아보았다.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여겼던 내 자신을 보며 명상을 통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행한 것도 나요 괴롭다고 아우성을 쳤던 것도 모두 내 자신이었다. 슬픔도 괴로움도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인가! 모두 나였다.

나 혼자 괴로움을 만들고 내가 만든 괴로움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가!

무서웠다. 그순간 내가 진정으로 참회하고 뉘우치지 않았다면 난 그 어리석음으로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았을 것이다.

참 많이 울었다. 서러워서 울고, 가엾어서 울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내 어리석음에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참으로 내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동정심에 이끌려 결혼을 결심했던 것이구나! 그렇게 모성애를 느낀 이유 또한 나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내게 정을 주시기를 바라며 부족한 정에 늘 굶주려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은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나는 왜 이렇게 어머니의 정에 집착하게 됐을까? 명상을 계속하며 내 기억의 흐름을 과거로 되돌려갔다. 기억하기도 이전의 태아기까지 점차 명상해 들어가자, 내가 갖고 있는 줄도 몰랐던 응어리들이 발견됐다.

아버지는 3대 독자였다. 그리고 독자에게 시집 온 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야만 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자, 아버지는 상심하신 나머지 3일 동안 나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기억의 표면으로 떠오르자,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았던 때의 상실감이 밀려 들어왔다.

내면을 향한 질문은 계속됐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에게 외면당해서 슬픈 걸까? 스승님은 "이것을 알려면 명상을 통해 전생까지 관찰해 보아야 한다"고 하셨지만 끝내 전생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비로소 나는 날 가로막던 막을 한 꺼풀 벗겨낸 느낌이었다.

불쌍하고 가여운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젊은 나이에 혼자되신 시어머님, 막둥이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온 남편, 어리석고 이기적인 엄마를 만나 어리광 한 번 부려보지 못하고 일찍 철이 들어버린 불쌍한 내 아이들!

난 정말 아이들에게 나쁜 엄마였다. 내가 내 문제로 인해 괴로워할 때 아이들은 언제나 뒷전이었다. 내 기분에 따라 예뻐했다가 소리 지르고 때렸다 하는, 정말로 몹쓸 엄마였다. 불쌍한 내 아이들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건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외도와 방관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을 제공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남편이었지만, 나는 사실 내 마음 속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로써 행동하기 보다는 마치 엄마가 아들을 대하듯 그를 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내가 힘들 때는 보호자가 아이를 어루만져주듯 그가 무엇이든 나를 위해 양보하고 헌신해주기를 바랬다.(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목조건축물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레, 흰개미
목재부식 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광사

취급품목
• 흰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좀벌래살충
• 목재, 석재, 기와발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전용(부식)방부제 • 방염제

목재 복원 시스템 (특허번호 특허 제 0476325호)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 / 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代) FAX. 031)451-6238
HP. 011-747-2111

간(肝)이 염간 방간 화간 경간 지간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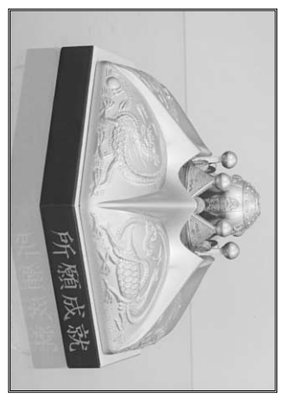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틀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모든 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 스님, 낙태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스님: 아주 간편하게 그냥 낙태라고 한마디로 해버리네! (대중 웃음) 사방에 불어 들어오는 게 낙태인데, 허 참! 허허허. 이거 봐요, 낙태를 한 번 시키려면은 그 영혼 자체가 인간으로서 화했을 때 어떤 영혼이 어디에서 왔나를 알아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집안 조상들은 어떤 문제의 연관을 가졌나, 이거를 알아야 대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지금 산부인과에서 한다지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크나 작으나 많으나 적으나 그 수효가 따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낙태를 시킨다면은 그거는, 즉 말하자면 물질적인 형상은 낙태를 시키고 그 영혼은 건져서 자동적으로 다시 재생이 돼나가니깐요. 용광로에 넣으면 무조건 녹아서 모두 가공돼가지고 저절로 생산이 돼서 나간다. 이런 거를 아니까 용광로에다 다 넣거든요. 용광로에다 다 넣는다면 그냥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서 나가요. 생산이 돼서 나갈 때 어떤 걸로 나가느냐가 문제죠. 즉 말하자면 용광로가 금의 용광로냐 무쇠의 용광로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차원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역력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이유가 있죠. 말을 하면 아니 되니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태라는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낙태를 한다 하더라도 첫째는 물질세계에 사는 사람의 그 삶을 위해서, 둘째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셋째는 내가 넓혀서 지혜롭게 대치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삼합이 맞아야 되듯이 모든 걸 거기다 놓고 가면 공부가 완전히 된 사람은 금의 용광로일 테고, 금 용광로에 넣어도 브로치가 되느냐, 목걸이가 되느냐, 반지가 되느냐, 귀걸이가 되느냐의 문제가 또 있죠.

그런데다 습이 덜 떨어지고 참 도리의 완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그것이 금 용광로가 아니라 무쇠 용광로가 돼버려요. 그건 자동적이에요. 오신통 자체가 컴퓨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쇠로 재생이 돼서 나가죠, 또.

사람들이 많고 많아도 차원이 다 있습니다, 다 얼굴이 다르듯이. 요만큼도 똑같은 거는 없어요. 묘하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를 방편으로 했으면 천차만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건다고 해서 뭐 금방 죽을 거 살아나고, 금방 살아날 게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을 사람은 방 안에 가만히 앉았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다녀도 죽더라, 이러진 마세요. 허허허.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 개의치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시되 낙태라는 것도 그러한 요소요소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낙태에 대해서 한마디 또 할 게 있는데,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산 목숨을 죽인다 이럴 때는 주인공에다 놓고 하면 무명을, 그 짐승의 무명을 벗겨주고 사람으로서 한 찰나에 되는 겁니다. 한 찰나에 사람의 용광로로 들어가서 재생돼서 사람으로서 환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고 마음공부를 아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생명을 그냥, 그걸 건지지도 않고, 둘 아니게 그냥 죽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 짐승을, 산 것을 사다 먹지 마라, 산 것을 사다 먹지 말되 죽은 것도 네 살로 생각을 해라,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기도할 때 '주인공,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라. 채소들을 끓어다 먹는 것도 생명을 죽이는 거지 생명을 안 죽이는 겁니까? 그러나 연쇄적으로 먹고 살게끔 다 돼 있는 것이니 차원이 아주 낮은 거는 높은 놈한테 잡혀 먹히게 돼 있어요. 진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깐요. 그러되 내 생명으로 알아라 이거죠. 그럼으로써 모든 걸 빨리빨리 진화시킬 수 있고, 빨리빨리 화할 수가 있고, 빨리빨리 창조력의 자유스러운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치에 닿지도 않는데, 자기한테 아쉬움도 없는데 포수가 나가서 총질을 한다거나 낚시질을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죽일 필요가 없죠. 반드시 두 가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죽인다거나 이런다면 반드시 주인공에 일임하고서 그대로 하셔야 그 무명이 벗겨질 수 있죠. 그래 첫째는 무명을 벗겨주니까 자비고, 또 그 살은 약으로 대치를 하니까 자비고, 전부 다가 더불어 같이 자비다 이 소립니다.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살생이 되고 인과응보가 되고 업보가 되는 겁니다.

▲질문자1: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전생에 배운 공부, 예를 들면 역사나 외국어 실력 같은 것들을 그냥 가지고 태어난다면 다시 그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 율곡 선생님은 태어나자 우는 소리가 글 읽는 소리로 들렸다고 그러고, 또 일곱 살 때 시를 지은 것을 보면 전생에 공부한 것을 그냥 가지고 태어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생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이 생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스님: 부처님께서 전생으로부터 부처님 될 그 이름을 타고났다 이랬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했소? 하하하. 이거 봐요, 무(無)의 세계에서 아무리, 전생에 유(有)의 세계에서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바로 탑은 쌓아야 탑이죠. 예를 들어서 다 알아도 다시 한 번 방편으로 나와서 그 길을 더 멋지게 걸어야 돼요. 얼른 쉽게 말해서 더 고생을 해야 돼요. 더 그거를 열심히 해서 보여줘야 모든 사람의 마음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지, 아니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한마음이 될 수 있겠소? 그러니까 율곡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생에 배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소? 이런 게 있죠. 전생에 다 알고 했으면 그만큼 지혜가 넓고 물리가 터져서 그냥 하나를 보면 벌써 열 가지까지, 벽을 치면 봇장까지 울린다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깐 여러분이 자식들이 공부를 못한다 뭐 어쩐다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과거는 지나갔으니깐 없다, 과거의 업보를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과거의 업보는 내 몸속에 다, 여러분이 악업 선업 모자라는 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저 내가 살면서 닥치는 대로 그냥 거기다가 놔라!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고 그냥 되놓는 거죠. 그래야만이 앞서의 입력된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멀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어저께도 내가 탄생하기 이전과 똑같다 이겁니다. 거리가 가깝고 멀고가 없다! 일 초 전만 하더라도 과거예요, 벌써.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 전체가 가설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로 느끼지 못하겠걸랑 공부 열심히들 해요. 아무리 전자에 잘 쌓아졌던 탑이었다 하더라도 이 생에 다시 탑이 쌓아져야 더 잘, 전자에는 오층 탑이었었는데 십이층 탑으로다가 잘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가 다 쳐다보게 다 알고, 다 배우고, 다 보고 그래야만이 한마음이 돼주지, 보여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거는 목석인가요? 오히려 전자에 알았다고 할 수가 없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라고 최초에 나와서 이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깨우치면 부처입니다. 하하하. 그래서 부처가 꽉 찼죠.

▲질문자2: 육신의 근본 뿌리가 있음을 알려주신 스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내는 도리, 무선통신에 대해서 누차 감로법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무지의 탓으로 다시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신록의 계절에 산불로 인해 산이 헐벗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곧 다가오는 태풍으로 인한 물난리와 3월 29일과 4월 10일에 있었던 조계종 법난 사태에 대해 역대 조사 스님께서나 현존해 계시는 부처님께서는 마음 도리로써 협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지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그러한 천재지변이나 그러한 사태에 마음을 내야 될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저 내가 살면서 닥치는 대로 그냥 거기다가 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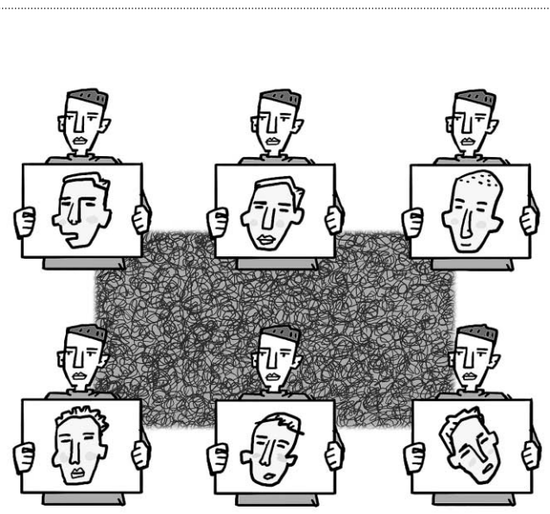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고 그냥 되놓아야 한다!

▲스님: 이것은 그대로 진리에 순응하는 일이죠, 그대로. 사람들이 넓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는 게 없으면 가는 게 없듯이, 우리가 그런 거를 다 불상사라고 하지만 그게 불상사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지만 태양열과, 즉 온기라고 합시다. 그 온기가 밑 물 찬 데까지 서로 대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고 또 그 소용돌이가 치지 않는다면 위의 것이 못 살고 아래 게 못 삽니다. 그래서 밑의 게 위로 올라오고 위의 게 밑으로 내려가야만이 같이 먹고 삽니다. 서로 주고 서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 더불어 모든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물도 사는 거지 생명들이 없으면 물도 죽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데도 역시 그렇습니다. 인간들뿐만 아닙니다. 물에서 사는 거든지 들에서 사는 거든지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산에서 풀을 다 태우는 일들은 곤충이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새 뿌리 새 싹이 나와서 다시 먹게 하기 위한 도리도 됩니다. 이 모두가 천연적으로 자연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잘못해서 불이 났다, 이러기보다는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태풍이 와서 사람이 많이 죽는데 그거는 어떤 일로 그러냐 이러겠지만 넓게 본다면 그거 역시 마찬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외아들을 데려갔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외아들을, 외아들이고 아니고 간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다시 대치해서 다시 내보낼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깐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치도 이거는 벗어날 수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자유스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기주머니를 한 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반면에 모든 걸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치는 그런 것을 다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크게 그릇이 돼라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대치를 다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질문자2: 그런데 산불이나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희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림 · 최주현

▲스님: 그거는 그것대로 인간세계에서의 마음들이겠죠. 그러나 곤충까지도 살리는 게 못 되고, 마구 이렇게 하면 상당히 피폐해가죠, 생명들 생체가. 그러니까 한 번씩 그렇게 해줌으로써 살 수 있는 기반을 세울 수 있다 이런 것도 되고요. 타 죽는 게 있다 하더라도 타 죽는 게 아니고 진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그 껍데기가 죽었다고 그래서 속의 씨까지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두 가지 여건이 있겠죠. 태워서 안 될 게 있고 태워서 될 게 있고, 꺼서 될 일이 있고, 안 꺼도 괜찮을 일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깐 될 수 있으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치해서 끌 일이라면, 아주 시급하게 끌 일이라면 비가 오게 하시면 돼요.

▲질문자2: 감사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저의 사견에 대한 스님의 정견을 듣고 저의 마음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저번 법형제 법회 때, 법형제 형님께서 나오신 지 며칠 안 되신 분입니다. 스님을 친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친견을 해야 되며 정성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건 또 말을 잘못하면 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 생각대로 말

☞18면으로 계속

진짜로 싹은 제 뿌리를 믿어야 합니다!

☞17면에서 계속

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스님을 뵙고자 하는 지극한 마음이 있으면 뵐 수 있는 것이고, 정성금을 스님께서는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형님의 마음을 보시니까 일단 마음에서 마음에 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되지 않는 금액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또 요번 5월 1일, 법형제 법회 때 공교롭게도 정성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성금 금액을 정해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이러한 자리를 빌려서 스님의 정견을 들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액까지 정해졌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집사람한테 듣는 이야기로는 스님께서는 금액이 많든 적든 정성금이 일단 오는 것 같으면 필요한 사람한테 도로, 빌려서 온 것 같으면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이기 때문에 그 정성금을 도로 돌려주시고 또 그마저도 사양할 때는 그 마음만 받으신다 는 걸 제가 누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정해졌을 때는 잘못하면 큰 누가 될 것이다. 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스님께서는 금액에 구애치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십니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죠.

그러면서도 저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 혼자 수습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죄송스럽게도 두 차례 친견을 했습니다. 저번 달에 한 것까지 세 차례 했습니다만 저는 정성금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스님께 제 나름대로 올리고 싶은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언젠가는 과자 값으로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해놓고 있었는데, 저번 달에 제가 조그마한 사업체를 하기 위해가지고 어려운 일에 부닥쳤습니다만 그 일이 허가를 받게 되는데 한 5%에서 10% 정도로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여 허가를 못 받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또 친견을 했습니다. 친견하면서 조그만 저의 마음의 표시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내일이면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착공에 들어갑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지금 말씀을 길게 하셨으니까 한번 짧게 해보십시다. 그렇게 또 누가 묻걸랑은 그러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하하. (대중 웃음) '적게 하든 많게 하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요.

그러고요,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굳이 말씀해 드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만 되면 꼭 시주하겠다는 금액을 자기네들 마음으로 정해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건 대체적으로 없지만, 그런데 드문드문, 처음 오셔서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그게 됐는데도 그거를 안 한다 이거죠. 이러면 그거는 됐다 하더라도 딴 게 문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얼른 쉽게 말해서 남의 물건은 가져가고 물건 값을 안 갚으니까 그렇단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이 거예요. 단 하나 있다면, 그저 잘되면 자기 마음으로, 잘되면 어떡하든지 불사도 하고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다만 얼마라도 자기가 새 돈으로 정성껏 담아서 하면 대치가 될 것을, 그냥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고생을 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도 그렇게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놓고 죽겠다고 옵니다. 이거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길잡이 노릇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옛날부터 사람 셋 끌고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더니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스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묻걸랑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자기네들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기네들이 할 일이지!

▲질문자3: 저는 설악산 기슭에서 왔습니다. 여기 다니는 신도님께서 『한마음』이라는 책자를 보내줘 가지고 그걸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만날 여기를 한 번이라도 와서 법회하시는 걸 듣고자 수없이 별렀는데 오늘 처음 와서 스님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의문되는 점은 저의 손녀딸이 지금 두 살인데요, 구개열이라고 입 천장이 열려가지고 지금 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언어장애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서 그 어린 것이 그렇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스님: 진리의 뜻에서 보면 어리고 늙고 이런 게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자기가 과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자기 몸속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깐 누구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觀)하라고 할 때, 모든 것을 용광로에다가 놔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그 모든 걸 일임시킨다면 앞서의 인과응보가 무너지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겁죠. 그러니까 언어의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하더라도 그 언어의 지장이 없도록 관하세요. 관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진짜로 싹이 제 뿌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싹은 제 뿌리로 인해서 사는 거니깐 싹이 제 뿌리를 믿고 제 뿌리에 모든 걸 맡겨놨을 때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고 맡겨놨을 때 바로 몸속에서 모든 의식들이 모자라는 걸 채워주고 작용을 해줍니다.

▲질문자3: 그 길을 몰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스님: 예, 그러니까 관하시는 거를 똑바로 스님네들한테 물어서 가세요. 내가 '여쭤봐서 가세요.' 이러려고 그러다가 그냥 '물어서 가세요.' 이랬어요. 이게요, '물어봐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여쭤봐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정말 그 한마디에 일생 동안을 말에 장애가 올 거를 대치할 수 있으니까, 그게 대치만 된다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쭤보라고 할 수밖에요.

여기 우리 스님네들이 금덩어리입니다. 신도님들도 금덩어리고요. 금은 금방에 모두 모이죠? 무쇠전에 모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우린 금이고 딴 사람은 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금은 금인데, 다 금인데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무쇠도 되고 넝마도 되고 그렇죠.

▲질문자4: 저는 광주지원에서 왔습니다. 작년에 해남, 장흥 그쪽으로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산 곳곳이 굉장히 민둥산이 되어 있고요, 소나무가 전부 다 빨갛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스님께서 광주 대법회 때 오셔가지고 운주사에 가셨을 때도 제가 뒤에 같이 따라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소나무들이 곳곳에 많이 죽어 있어서 뒤에 가면서도 '스님께서 저걸 보시고 한마음 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텔레비전 뉴스를 들어보니까 전국 각지에까지 다 그 병이 번져가지고 경관도 다 해치고 몇십 년 된 소나무들이 다 죽어가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스님: 그것은 나라 나라마다 다 다르겠죠. 옛날부터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국보나 다름없다 하는 이야기요. 사철 사는 거기 때문에 소홀히 볼 수 없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사철나무도 되고요. 그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것은 아주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떠한 문제가 좋지 않다 좋다를 떠나서 소나무가 더 빨리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돌장승도 알고 있다. 돌장승도 알고 사람들도 전부 거죽으로는 모르나 속의 근본은 다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마음들이 서로 그렇게 해서 통신이 돼서 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라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전부가 다 한 사람이고 다 한 국민이죠. 다 같은 마음들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예전부터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누운 부처님을 보고서 내가 얘기해드렸지마는 그 누운 부처는 누운 부처가 아니고 앉은 부처도 아니고 선 부처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말한 거를 뒤로 돌려서 다시 똑같이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여튼 열심히 잘 관하셔서 일체가 다 마음들을 잘 쓰도록 이렇게 합시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80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전부가 다 한 사람이고 한 국민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1.2kg

山寺 천미래 조청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1.2kg

山寺 기천량 조청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1.2kg

山寺 약도라지 조청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1.2kg

당신의 맑은 피부를 위한
청정생기세심비누
특 허 : 제0482418호(식양청 허가제품)
발명자 : 김지문
◆ 성분 : 천연진주가루, 콜라겐, 카마모일, 구기자, 당귀 등 천연생약 10여종 및 팜유와 라벤다 천연오일향
◆ 효능 : 피부에 무자극으로 보습효과 항균성 뛰어남,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기미, 각질제거, 발바닥 갈라짐 방지, 피부알레르기, 두피(탈모방지), 세안 및 미백효과 탁월 하며 청정한 생기력은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제조원 : (주)海仁우리
■100g×4개 1Box 42,000원
■전 화 : 054)372-3166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청정생기 세심 비누를 꾸준히 사용하시면 피부가 말고 희어집니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372-5721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조청원

이것이 명품이다!

현풍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자사 직영 농장인 포천, 영월, 홍성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토종오가피와 경희대 한방연구소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원료를 ISO 9001 품질인증과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에서 인증 받은 초현대식 시설로 원료에서 제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톱시스템을 갖춘 믿을수 있는 제품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祝 : 현풍 토종심마니오가피 국내최초 여자프로 권투단 창단
(주)현풍은 세계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인 김주희 선수와 여자프로 유망주 손초롱 선수외 4명으로 출범한 현풍 프로권투단은 한국프로 권투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국산토종오가피 묘목분양 및 상담※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불자 세상보기

김 용 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대화로 푸는 '북핵' 화두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 북 · 미간 마주 달리던 기차가 일단 멈춰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8일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북한 주권국가 인정 여부 확인 후 6자회담 참가 결정'이라는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북한 주권국가 인정과 북한 공격 의도 없음'을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평양과 워싱턴이 오랜만에 아귀가 맞는 발언을 주고받음으로써 이제 북핵 문제는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선 느낌이다.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 북핵 문제는 혼미를 거듭해 왔다. 4차 6자회담 개최 가능성은 보이지 않은 채, '6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등 각종 위기설이 난무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언론에서부터 제기된 북한의 '핵실험 징후설'은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곧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처럼 추측하기도 했다. 미국의 북핵문제 유엔 안보리 회부 시사는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을 압박했다. 더욱이 부시 미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으로 부르고, 북한이 부시를 '불망나니'로 비하하면서 북 · 미간 갈등은 감정싸움의 양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던 북핵문제가 최근 대화로 전환되고 있는 데에는 중국의 역할이 크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 행사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이 실질적인 대북 압박 카드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면서도 대북 압박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 · 중 관계는 혈맹관계라는 역사의 차원을 넘어 지리적으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미국의 '중국 포위론'을 의식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용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선택인 것이다.

우리 정부도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반대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이 모험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의 역할을 추동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북한의 핵실험징후설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혹 확산을 막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이 중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한국의 역할 속에서 미국이 채찍을 일단 거두고 북한이 이에 호응하는 대화국면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과거 북핵문제의 전개과정을 볼 때, 이 같은 국면 전환의 조짐은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닫던 이 문제가 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유관 국가들의 자세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북한은 남은 시간이 자신의 편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위기를 최고조로 끌고 가 '벼랑 끝 전술'을 쓸 수 있는 기회도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따라서 북한은 조속히 6자회담 틀로 복귀하고, 그 속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 역시 대북 압박정책을 포기하고,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핵 폐기'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양자 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어쨌든 6자회담은 어느 일방이 완승을 거두는 장이 아니라 주고받기를 통해 북한과 미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당장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북 · 미간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대결에서 대화로의 대전환을 통해 북핵문제 해법의 실마리가 조속히 풀려야 할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보내며 한반도가 긴장과 위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상생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나눔과 어울림'의 확산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어진 것을 잘 나누는 것은 사회를 정의롭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본이었다. 이른바 정의란 응분의 몫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재화가 무한정하다면, 욕망에 따라 나누면 될 것이다. 거기에는 싸움도, 많이 가진 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몫을 무단히 내어주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재화, 재능, 서비스가 희귀할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럴 경우 강제로 나눌 수밖에 없으며, 아주 정교한 나눔의 기술이 아니고는 다툼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인류는 수 천 년 동안 어떻게 하면 만인이 승복하는 공정한 분배의 룰을 정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처럼 강제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나누어주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것(socially good)'으로 꼽는 돈을 자발적으로 내 놓기도 한다. 죽은 후는 물론이고,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신체 일부를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발적 나눔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든다. 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자발적 나눔이 돈보다 더 좋은 사회적 선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재화와 용역은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근심으로 자리하지만, 나눔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마음의 평안으로 돌아온다.

본지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이 서비스, 돈, 생명, 재능을 얼마나, 어떻게 나누며 사는지 조사했다. 조사결과 불자들의 나눔 정신은 우리 국민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불자들은 생명나눔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진 것을 나누고, 빈손으로 어울리는 것, 즉 '나눔과 어울림'이라는 불교의 기본정신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눔은 숭고한 것이기 때문에, 인위가 개입해서는 안 되고, 선한 의지(free will)의 장터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지배 사회에서 나눔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게 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다. 개인의 자발성에 맡겨두기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나눔이 '잘난 사람들만의 의무(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보편 문화로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구승회(동국대 윤리학 교수)

이렇게 들었다 국적 포기

부모는 세 가지로 자식을 경친해야 한다. 첫째로 자식을 제어해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해야 하며, 둘째로는 착한 행위를 가르쳐 주고, 셋째는 학(學)과 도(道)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선생경〉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5월 4일 국회를 통과한 뒤, 법 개정안이 공포되기도 전에 '한국인임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출입국사무소 내 국적업무 출장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간 27건이던 국적 포기 신청 건수가 불과 며칠만에 16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히 '폭발적인' 수치다. 신청 연령대와 성별을 들여다보면, 그 심각함은 더욱 점입가경이다. 대부분이 14~17세 남자들이다.

왜 이들은 6월 법 시행에 앞서 부리나케 '한국 국적 포기 행렬'에 나서고 있을까? 이들의 속사정은 뻔하다. 병역 회피에 있다. 새 국적법이 이중국적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 포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누구에게나 국적을 선택할 권리는 있다. 어떤 나라의 사람으로 살지는 전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그 과정과 동기가 '불순' 하다면 문제가 있다.

영문도 모른 채 부모의 손에 이끌려 단 10여 분 만에 국적을 포기했다는 13살 아이를 생각한다면, 분명 곱씹어봐야 문제다.

무엇보다도 한국 국적 포기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의 선택이 자녀의 국가 정체성을 뒤흔든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들 대부분이 미국 등으로 이주하지 않는 한 한국 땅에서 거주할 텐데,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혼란은 어떻게 할지, 벌써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찔해진다.

■ 김철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보성다향제를 다녀와서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과 8일, 차밭으로 유명한 전남 보성에 다녀왔다. 마침 보성다향제 기간이라 작은 마을 곳곳이 축제분위기로 가득했다. 전날 비가 와서 날씨는 무척 쌀쌀했지만 광고와 드라마에 나왔다는 차밭을 보고 부모님들이 무척 좋아하셨다. 차를 거의 마셔보지 않은 분들이지만, 드넓은 차밭에서 사진도 찍고 무료로 나눠주는 차도 마시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하지만 차밭 구경을 마치고 보성군 체육공원에 마련된 다향제 행사장을 찾은 우리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제다업체들이 제품을 홍보하고 차를 나눠주는 부스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행사장 3분의 2 이상은 차와 상관없는 상품 판매와 음식점들로 즐비했기 때문이다.

청소년 다례 경연대회가 열린 체육관 안에도 참가자를 제외하곤 지역 주민 10여명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고작이었다.

게다가 원래 1시간이 배정된 '우리 옷 바로 입기' 행사는 불과 20분 만에 끝나버려 더욱 황당했다.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지역축제가 국민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지역 특성을 부각하고 관람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 같다.

김선아(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스님 맞나요?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 '이상한' 사람을 종종 만난다. 스님 행색을 하고 부처님이 그려진 카드를 내밀며 돈을 요구하는 외국인이 그들이다. 웃는 얼굴을 하고 있고, 특히 승복 비슷한 차림을 하고 다가오기에 불자로서는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얼마의 돈을 주고 그 카드를 사게 된다.

나도 그 카드를 몇 번 산 적이 있는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불교의 이미지가 흐려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외국인 스님들이 구걸을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외국인이 구걸의 수단으로 스님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단속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불교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헌(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연등축제에 참가해보니

올해도 어김없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거리축제가 벌어졌다. 쌀쌀한 날씨여서 그런지 처음에는 좀 썰렁한 느낌도 들었지만 연등축제 현장은 곧 인파로 가득 찼다. 이번 연등축제에는 외국인들이 참 많이 참가한 것 같다. 가족단위에서부터 단체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어떤 가족은 공연무대 앞에 걸터앉아 옥수수를 먹으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고 그런 그들의 모습이 참 편안해 보였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많이 참가하다보니 연등축제를 즐기러 나온 내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았다. 각종 체험코너는 넘쳐나는 외국인들로 발디딜 틈도 없었고 나만의 감정인지는 모르나 찬밥 취급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연등축제는 외국인을 위한 축제가 아니다. 물론 관광 온 외국인들을 우대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축제를 즐기러 왔다는 측면에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냉대받은 느낌을 가진 이들은 내년 축제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지혜성(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면 상식 퍼즐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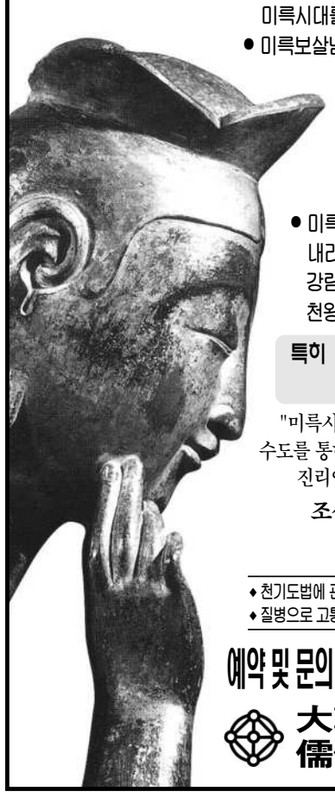
마	하	가	섭	■	군	기
야	■	람	■	대	■	원
부	군	■	동	승	■	정
인	가	■	■	■	황	사
■	■	■	■	백	■	■
■	백	■	우	담	바	라
녹	야	원	■	사	■	면

'현대' 만평 심 민 섭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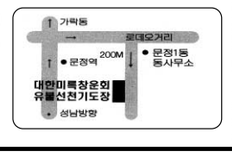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Asia's United Vision for World Racing"
30th ARC
Asian Racing Conference
아시아경마회의가 5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의 눈이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
아시아경마회의(ARC)는
아시아경마연맹(ARF)이 주관하는 국제 경마회의로 개최국의 경마를 세계에
알리고 경마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국제화를 이루는 발판이 되어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영국,호주 일본 등 25개국 800여명이 제30회 ARC를 위해 서울에 옵니다
국민적 축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경마공원과 코엑스에서 대통령배경주, 국제기수초청경주,
경마문화제 등 빅 이벤트가 열립니다
제30회 아시아경마회의는
한국경마의 세계적 도약을 통한 국가위상제고를 약속합니다
30
KRA
한국마사회

범어사 세계 禪문화체험타운 · 참선템플스테이



사찰전통문화체험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선은 곧바로 깨달음은 의미합니다. 이 깨달음을 진정한 자기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달아 진정한 자기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템플스테이. 이것이 선찰 대본산 범어사에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는 참선 템플스테이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 이고득락의 열반묘심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는 새로운 모습의 참선 템플스테이, 일상생활의 온갖 불안, 공포 등 모든 번뇌를 떨쳐버리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는 템플스테이,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가장 습기로운 지혜가 담겨있는 참선템플스테이, 선찰대본산 범어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획기적인 수행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온갖 종류의 위기가 우리의 삶을 뒤 흔들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천년고찰 범어사에서 일상의 번뇌를 끄고 잠시 머물면서 참선을 통해 참된 자아를 찾는다면 일상 생활 가운데 늘 즐겁고 편안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생노병사의 일을 뉘 집 강아지 이름인 냥 한가한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삶을 한번 체험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외에도 가족, 부부, 연배, 묵언, 산행 등 사찰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연수형태의 직장템플스테이와 수행을 겸비한 문화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참여방법은 범어사 홈페이지, 전화, 팩스 등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범어사 연수국장 혜수 합장

■ 홈페이지 : www.beomeosa.co.kr ■ 전화 : 051)508-3122~5 팩스 : 051)508-3229
■ 담당 : 이승언(011-9511-1250)

범어사 '세계 禪문화체험타운' 조성

선찰대본산 범어사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금정산의 풍부한 자연환경조건을 바탕으로 명상과 선수행은 물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禪체험타운을 조성합니다. 「세계 禪문화체험타운」과 함께 선수행의 도량인 범어사가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정신문화를 선도합니다.

禪문화 체험	
참선체험의 장	템플스테이
불교수행의 장	불자수행 체험
전통무예의 장	불무도, 한방체험
전통문화 체험	
전통문화의 장	전통문화예술체험
예술인 창작촌	음악,미술,문학,전통공예
다도문화의 장	차발경작,다도문화
서화도체험의 장	전통서도문화체험
명상 체험	
야외명상체험의 장	야외명상체험
기공체험의 장	기공,요가,단학수련 등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해운정사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정기법회-진제대선사 법문

■ 매월 음력 1일 초하루 법회(해운정사)
■ 매월 음력 18일 지장재일 법회(해운정사)
■ 매월 음력 8일 약사재일 방생법회(경주 금천사)

재가오계 수계식 및 바른 참선지도 대법회

■ 연중행사로서 매년 음력 9월 보름날 봉행
■ 재가오계 수계식, 연비, 수계첩 수여
■ 진제대선사 참선지도 법문
■ 탑돌이 및 육법공양 행사

시민선방 안내

일반인을 위한 참선정진 프로그램을 여름, 겨울 각 석달 간 스님들 안거와 같이 시행합니다. 선(禪)에 관심이 있는 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안거 : 음력 4월18일~7월18일, 해운정사 하선원
■ 동안거 : 음력 10월18일~1월18일, 해운정사 하선원

토요용맹정진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철야 참선정진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禪)에 관심이 있는 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새벽 3시, 해운정사 시민선원

만년위패 동참제사

저희 해운정사에서는 만년 조상위패를 모시고 절 역사와 같이 일 년에 세 번 아래와 같이 제사를 지내드리오니 많이 동참하시어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 음력 1월1일(설날) ■ 음력 8월15일(추석) ■ 음력 9월9일(구구절)



부산 해운정사 전경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정사 금모선원 ☎문의 : 051)746-2256, 4812 / 홈페이지 : http://www.seon.or.kr

현대불교

불기 2549년(서기 2005년) 5월 18일 수요일(음력4월11일)
제 526호(부록) buddhanews.com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5월 7일 오후 2시 회향 및 무차선회

설선열기 차별없는 법석으로 회향
(說禪)



진제 스님 법문 후 대중과 '법거량'
간화선 확산 위한 좋은 기회 '기대'

"한 손바닥으로 치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훨썩!(뺨을 한 대 후려치다) 이제 들었지요."
"……."

지난 1998년 8월 장성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열린 무차선(無遮禪) 법회. 젊은 수좌가 백은선사의 '척수음성(隻手音聲)' 공안 이치를 방장 서옹 스님에게 묻자, 어떤 나이든 거사가 순식간에 법석으로 뛰어나와 선문답에 나선 수좌의 뺨을 때려 화제가 된 법거량이다. 승속 · 나이 · 신분 등을 가리지 않고 공부경계를 파격적으로 내보이는 무차선 법회의 진면목이다.

이처럼 승속 · 남녀노소 구별 없이 깨달음을 점검하는 무차선 법회가, 범어사 · 현대불교신문사 공동주최로 3월 5일부터 3개월간 열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의 회향법회로 5월 7일 오후 2시 부산 범어사에서 봉행된다. 2002년 부산 해운정사에서 열린 이후 3년만이다.

법주로는, 한국 근대선불교의 거봉이었던 경허-혜월-운봉-향곡 선사의 법맥을 이은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이 나서고, 전국 제방 납자와 재가불자들이 한 곳에 모여 법연(法宴)을 펼친다.

이번 무차선 법회는 특히 '진정한 선지식은 드물고 앵무새 선객만 늘고 있다'는 불교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중요한 법회가 될 것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매주 4천여 명 넘는 인원이 범어사 보제루와 앞마당을 가득 메우며 선법문에 귀를 기울인 범어사 설선대법회는 간화선에 목마른 대중들에게 무엇이 간화선의 고갱이이고,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선용하는지를 풀어 주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매 법회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가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했고, 질의법사와 재가질의자가 대중을 대표해 질문, 간화선수행에 대한 청중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며 간화선에 대한 이해와 실참을 독려했다.

따라서 범어사 설선대법회를 결산하는 이번 무차선 법회가 '북(北) 송담 남(南) 진제'로 불리는 선지식 진제 스님이 법주로 나서는 만큼 참가대중들의 안목을 틔워주며 간화선수행을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범어사 설선대법회 회향법회 식순

① 정진
② 개회
③ 삼귀의례 · 반야심경
④ 법주 소개
⑤ 청법게
⑥ 입정
⑦ 법문(50분) - 진제 대선사
⑧ 무차선회 - 사회 : 지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⑨ 폐회사 -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⑩ 인사말씀 -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
⑪ 수료증 수여
⑫ 축가
⑬ 공지사항
⑭ 사홍서원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02)2004-8212

지면안내

· 무차선 법회란? 2면
· 진제 스님 회향 법문 3 · 4 · 5 · 6면
· 선법문 듣기의 포인트는? 6면
· '문법오칙(問法五則)'이란? 7면

인가(認可)를 중시하는 선종. 무차선 법회는 화두참구로 깨달음을 얻는 간화선 수행전통에서 중요한 공부점검 마당이 된다. 수행자의 화두타파 유무, 깨달음의 증득 여부 등을 법거량으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거량은 무차선 법회에서 핵심이 된다.

그럼, 무차선 법회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단연 선문답을 통한 자기 공부됨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자칫 법거량이 깨달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알쏭달쏭한 법거량이 수행자 스스로에게 '공부 길' 점검을, 깨달음의 기연을 준다.

무차선 법회의 의의, 법거량은 왜 하는지, 또 최근 봉행됐던 무차선 법회의 내용 등을 살펴본다.

승·속, 남녀노소 차별없는 법석

● 무차선 법회의 유래, 그리고 하는 까닭은

'무차'는 범어 'Panca-parisad' 또는 'Panca-varsi-ka-parisad'라 한다. 즉 승속·남녀노소·귀천의 차별 없이 일반대중들이 평등하게 법문을 듣고, 잔치를 열어 물건을 베푸는 일종의 법회의식이다.

원래는 인도에서 널리 행해졌는데, 아쇼카왕(BC. 268~232)과 같은 유력한 국왕들이 선지식들을 모시고 재법(財法)을 보시하는 자리에서 비롯됐다. 이런 자리에서는 자연스레 법의 차별 없는 논의가 이뤄져 '바른 법을 세우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 여겨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에 '무차회'를 열었다고 전해진다. 주로 이 법회를 통해 백성들의 어려움을 달래주고 민심을 수습하려는 의도에서 국가가 시주가 되어 베풀었다. <고려사>에 따르면, 940년(태조 23) 신흥사 공신당(功臣堂)을 신축할 때 무차 대회가 있었고, 1165년(의종 19)의 궁중 무차 대회, 1216년(고종 3) 10월 미륵사 공신전 중수 후 무차 대회가 열린 기록이 보인다.

근대에 들어서 개최된 무차 대회로는 스님의 도성출입이 해제된 1896년, 한국과 일본 스님들이 경성에서 수일에 걸쳐 열었다고 <조선불교통사>는 전하고 있다.

● 최근 열린 한국의 무차선 법회는

백양사 고불총림이 1998년, 2000년, 그리고 부산 해운정사가 2002년에 조사선(祖師禪) 수행 풍토의 선양과 승속의 구별 없이 깨달음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무차선 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고불총림 방장 서옹 스님이 1998년에 봉행한 무차선법회는 지난 1912년 오대산 상원사의 한암 스님이 금강산 건봉사에서 연 이후 77년 만에 개최한 것으로, 사라진 무차선 법회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불교계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조사선 전통의 재확립'을 주제로 열린 고불총림 백양사의 제1회 무차선 법회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이 주창한 '참사람운동'에서 비롯됐다. 이 운동은 정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조사선에 있고, 이를 통해 혼란과 갈등을 치유하자는 계기로 제방선원의 수좌들은 물론 세계 석학들도 다수 참가했다.

■ 고불총림 백양사 무차선법회

1998년 8월 백양사 고불총림이 마련했던 '제1회 국제무차선회'에서는 물질문명의 극대화로 인류가 겪고 있는 위기에 한국불교가 어떻게 빛을 던져줄 것인가를 집중 논의했다. 법회는 서옹, 진제 스님 등 당대 선지식이 동참한 한국 고승대법회, 5개국 15명의 불교석학들이 참가한 국제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고승대법회에서는 전국 선원의 수좌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서옹, 해인총림 방장 혜암,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 등이 법문을 해 한국 조사선 전통의 복원을 선언했다. 또 조사선 전통과 불성, 불교적 깨우침 등에 대해 조명하고 첨단과학시대에 있어 선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논의한 국제학술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돼 세계에 한국선불교를 알렸다.

2000년 8월에 열린 제2회 무차선 법회 때도 조계종 원로의원 도원,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등 원로 고승을 비롯해 사부대중 6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됐다. '참사람 결사의 새로운 세계'를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서옹, 진제 스님이 조사선 정신으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대자연의 조화 등을 이루자는 법문이 이어졌다.

■ 해운정사의 '한·중·일 국제 무차선법회'

백양사 '참사람 무차 대법회'를 계승·발전시킨 부산 해운정사의 '한·중·일 국제 무차선 법회'는 부처님의 심인법(心印法)인 조사선 전통을 확립하는 법석이었다. 서옹, 진제 스님을 비롯해 중국 백림선사 방장 정혜 스님, 일본 임제종 묘심사파 대보리사 관장 종현 스님 등이 법주로 나섰고 전국선원수좌회, 전국선원비구니선문회 등이 공동 주최해 명실상부한 설선의 장이 되었다.

'21세기 선으로써 참나를 찾자'를 주제로 열린 무차선법회는 무엇보다도 선의 대중화로 인류 정신문명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선불교 역사상 동양 3국의 불교계 거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차선 법회를 연 것 자체가 처음인데다, 3국의 불교의 수준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는 점 때문이었다.

● 무차선 법회가 주는 가르침

무차선 법회의 핵심은 법거량에 있다. 법거량은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제자는 자신의 깨달음의 경계를 드러내고 스승은 제자의 공부됨됨이를 점검한다. 법거량은 또 이미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은 깨친 법을 서로 확인하기도 한다. 그래서 법거량을 일반적으로 '선문답'이라고 한다.

법거량의 방식은 '즉문즉답'으로 진행된다. 한 치의 양보도, 알음알이도 끼어들 틈 없이 치열하다. '할'(喝; 깨우쳐주기 위해 '억!'하고 큰 소리를 지름)과 '방'(棒; 죽비나 손으로 일격을 가해 깨우침을 주는 행위)까지 날린다.

법거량의 이 같은 '파격성'은 '응병여약(應病與藥)'의 원리에 있다. 즉 말, 행동, 소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자가 앓고 있는 병(의심)에 맞춰 약(점검)을 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 직지인심의 기연을 제자에게 만들어 주는 법거량은 이 때문에 무차선 법회의 핵심이 된다.

무차선 법회는 무엇보다도 수행자에게 화두참구의 필수 조건인 3심(의심, 신심, 발심)을 일으킨다. 스승이 제자에게 발심의 기회, 신심 증대, 의심 해소 등의 기쁨을 준다. 이를 통해 공부의 진척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 같은 무차선 법회가 주는 가르침은 중국 황벽 선사가 백장 선사의 뺨을 후려친 '백장야호(百丈野狐)' 공안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중들을 모아 무차 법회를 연 백장 선사가, 여우가 된 한 노인으로부터 "저는 과거 오백생 전에 어느 학인이 '수행인은 인과에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는 질문에 '안 떨어진다'고 답해 여우가 됐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수행인은 인과에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란 질문을 받는다. 이에 백장 선사가 "인과에 어둡지 않으리라(不昧因果)"라고 하자 노인은 그 말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저녁에 백장 선사가 이 인연을 말하자 황벽 스님이 "옛 사람이 잘못 대답해 오백생 동안 여우의 몸이 됐는데, 만약 잘못 대답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됐을까"하고 묻자, 백장 선사가 "앞으로 가까이 오라. 그대를 위해 가르쳐 주겠다"고 답했다. 황벽 선사가 가까이 가서 백장 선사의 뺨을 한 대 후려쳤다. 그러자 백장 선사는 박수를 치며 "과연 그렇구나. 오랑캐의 수염은 붉다더니 붉은 수염오랑캐가 있구나"라고 했다.

백장 선사의 이 법거량은 황벽 선사에게 강한 신심을 불러일으켜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차선 법회에서 법거량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철우 기자



지난 2002년 부산 해운정사에서 열린 '한중일 국제 무차선 법회'에서 진제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법을 물을때 지켜야 할 예의와 규칙

말이라는 것은 소리의 높낮이에 생각의 차이를 담아 주고 받는 소통의 방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 말의 규칙이 있다. 생각을 소리에 담는 규칙이 있고, 소리로부터 생각을 다시 걸러내는 규칙이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이나 소리와 소리, 이름과 이름 등을 연결하는 규칙, 어법들이 있다. 이처럼 말을 이용한 소통에 규칙이나 약속들이 작용하는 까닭에, 말에는 언제나 오해가 따라 다닌다.

'말의 길이 끊기고, 생각의 자리가 사라진(言語道斷 心行處滅)'이라는 명제도 그와 같은 말의 한계에서 비롯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선(說禪)'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가 모순이 된다. 말할 수 없는 일을 말하려 하기 때문이다. 말할 수 없는 일을 굳이 말해야만 하는 까닭은 그 뜻이 미혹한 중생들에게 있기 때문이리라.

어쨌든 열 차례에 걸친 설선(說禪)의 장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회향에는 '무차(無遮)'라는 타이틀이 붙게 된다. '막지 않는다'는 뜻이겠다.

'막지 않는다'는 타이틀이 걸리는 까닭은 '막음'이나 '막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막음이나 막힘을 해소하려 하기 때문이다. '막지 않음'의 전통은 '막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막지 않음'이 형식을 가지게 되면, 그 형식이 다시 '막음'이 된다.

무차회(無遮會)는 그와 같은 또 다른 형식이다. 형식 안에서 '막힘'을 풀자는 것이 무차회의 연원이다. '막지 않음'의 형식은 다시 '막음'이나 '막힘'의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무차(無遮)의 차(遮)는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대중이 모여 선지식에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차(遮)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경험이었다.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순근기 신수봉행'으로 마감을 한다. 근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뜻이다. 근기가 서로 다른 대중들이 모여 이야기를 시작하면, 근기 자체가 '막힘'의 원인이 된다. 깜냥대로 묻고 깜냥대로 답하다 보면, 소통은 사라지고 주장만이 남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모임이라는 형식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심한 경우 나쁜 의도가 개입하기도 했다.

문법오칙(問法五則)

1. 막시문(莫試問)
   시험 삼아, 선지식을 떠보기 위해 묻지 말 것.
2. 막무의문(莫無疑問)
   실제로 의심이 난 바 없이 가설, 가정해서 묻지 말 것.
3. 막불위회소범고문(莫不爲悔所犯故問)
   자기가 범할 허물을 참회하는 바 없이 묻지 말 것.
4. 막불수어고문(莫不受語故問)
   선지식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지 말 것.
5. 막어란고문(莫語亂故問)
   횡설수설하여 난잡하게 묻지 말 것.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도를 지키고, 대자대비를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내게로 와서 (시험 삼아) 부처를 모욕했다. 내가 묵묵히 대답하지 않자, 그도 모욕을 그만 두었다. 그래서,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예물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예물은 그대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라고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내가 '그대가 이제 나를 모욕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 허물이 그대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소리가 메아리로 돌아오고, 그림자가 몸을 따르는 것처럼 서로 떠날 수가 없는 법이니 나쁜 짓을 하지 말도록 해라." 고 하셨다. <사십이장경>

부처님 당시에도 이처럼 악의를 가지고 부처님을 시험하던 무리들이 있었다. 경전에 담겨 있는 가르침의 형식에는 이런 경험들이 담겨 있다. '막음이 없는 막음'의 전통이라고나 할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전통이 있다. 강원에는 이른바 문법오칙(問法五則)이라는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선지식에게 법을 물을 때 지켜야 할 예의나 규칙을 가르쳤다는 뜻이다. 이런 규칙들은 경전, 곧 부처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1, 막시문(莫試問): 시험삼아 선지식을 떠 보기 위해 묻지 말 것.

2, 막무의문(莫無疑問) : 자신이 실제로 의심을 해 보지도 않고, 짐작하거나 가정해서 묻지 말 것.

3, 막불위회소범고문(莫不爲悔所犯故問) : 자기가 범한 허물을 참회하지 않고 묻지 말 것.

4, 막불수어고문(莫不受語故問): 선지식의 말씀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 것.

5, 막어란고문(莫語亂故問): 횡설수설하여 난잡하게 묻지 말 것.

이를 선지식의 입장에서 풀어 놓은 불응오처(不應五處)라는 규칙도 있다.

부처님이나 선지식도 시험 삼아 묻는 말, 의심 없이 묻는 말, 참회 없이 묻는말,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 주장을 바탕으로 묻는 말, 난잡한 말로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차선회의 경험도 그렇고, 이번 설선법회에도 물음과 답변의 형식에 대한 불만이나 제안 등이 있었다. 특히 물음의 기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많았다. 있을 법한 제안이요, 불만들이다. 선지식은 한번 뵙기도 어렵다는데, 어려운 기회를 맞아 의심도 풀고 싶고, 점검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설선법회나 무차선회가 다 그러자고 하는 일이 아닌가?

무차선회로 설선법회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무차의 차, 막음이 없는 막음'의 형식에 대하여 생각을 돌이켜 보게 된다. 대중들이 선지식과 맞설 수 있는 희유한 기회, 이 기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형식들이다. 무차선회나 설선법회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형식들이다. 문법오칙(問法五則)과 같은 전통 속에서 새삼 선인들의 지혜를 느끼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오윤희(본지 편집위원)



범어사 설선대법회 10대 선사들의 생생한 법문을

집에서 차에서

CD와 카세트 테이프로 듣고 보세요!



제작 : 범어사·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 (02)737-0695(현대불교신문사)

답처를 알면 주장자를 부치리라

마신다." 라고 한 것은 또 어떤 진리의 한 모퉁이를 드러낸 것인가?

이 세 분의 답처를 아는 이가 있을 것 같으면 금일 산승이 이 주장자를 부치리라.

만약 산승이, 방거사 일가족이 고준한 법문을 한 마디씩 할 적에 동석했더라면 이 주장자로 각각 20방망이씩 때리리라.

만약 "방거사 일가족이 고준한 법문을 토해 냄으로써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눈을 열게 하였는데, 스님은 무슨 장처가 있어서 각각 20방망이씩 때린다고 하십니까?" 하고 묻는 이가 있을 것 같으면,

이월한식청명후(二月寒食淸明後)에
녹수지상황앵제(綠樹枝上黃鶯啼)로다

이월 한식 청명 후에
푸른 나뭇가지에는 노란 꾀꼬리가
아름답게 울고 있구나.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망월사라는 좋은 선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삼십년 결사를 하자. 삼십여 년 간 마을에 내려가지 않고 정진해서 대오견성을 하자." 해서, 전국에서 발심한 수좌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용성 대선사를 조실로 모시고 석우 선사를 선덕으로, 운봉 선사를 입승으로 모시고 멋진 회상을 열어 정진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결제 중 반살림이 도래하여 조실이신 용성 대선사께서 법상에 올라 법문 하시기를,

"나의 참모습은 삼세(三世), 과거 · 현재 ·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보지 못함이요, 역대의 무수 도인들도 보지 못함이어니 여기 모인 모든 대중은 어느 곳에서 산승의 참모습을 보려는고?"

하니, 운봉 선사가 일어나서

"유리 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하고 멋진 답을 하셨습니다.

만약 산승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빗장 관자(關字) "관(關)"이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운봉 선사가 "유리 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라고 답을 하자 조실이신 용성 대선사께서는 아무 말 없이 법상을 내려와 조실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들은 세 분의 답처를 바로 볼지어다.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 함은 어떤 뜻이며 빗장 관자 '관' 함은 어떤 뜻인가? 또 법상을 내려와 말없이 조실방으로 돌아간 것은 어떤 뜻인가?

이 세 가지 법문에 바로 답하는 이가 있을 것 같으면 산승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거니와, 만약 바른 답을 못하면 진리의 문답에 있어서 동문서답을 할 것이며 사(邪)와 정(正)을 가릴 눈이 없는 것이니 물을 자격이 없음이로다.

대중은 이 세 가지 법문을 이르고 일러보라!

(양구(良久:한참을 묵묵히 앉아있음)하신 후에)

산승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천하대중에게 이 세 가지 법문에 대해서 답을 하리라.

(직접 답을 하신 후에)

진리의 문답은 이로써 마치고 선(禪)의 상식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이가 있으면 물으시오.

(주장자로 법상을 한 번 치시고 하좌하시다)

선법문 듣기의 포인트는?

법어는 수행과 깨달음을 전제로 들어야 한다

법어도 어(語)인 바에야, 말의 형식을 따를 수 밖에 없다. 어란 글자는 사람의 목소리를 가리킨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해지는 말소리를 가리킨다. 글자만으로 따지자면 법을 말소리를 통해 전한다는 뜻이겠다. 물론 법어에도 형식이 있다.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로 꼽히는 <벽암록(碧巖錄)>은 법어의 정형을 보여준다. 벽암록은 수시(垂示)와 본칙(本則), 본칙에 대한 송(頌), 본칙과 송에 대한 평창(評唱), 착어(着語) 등으로 구성된다.

벽암록은 100개의 본칙(本則)을 모아 놓은 책이다. 따라서 본칙이 벽암록의 중심이 된다. 본칙이란 수행자들이 믿고 따라야 할 법칙을 말한다. 옛 선지식들이 남겨 놓으신 말소리의 흔적들이기 때문에 고칙(古則)이라고도 한다. 수시(垂示)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의 일종의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벽암록에는 수시가 달린 것도 있고, 생략된 것도 있다.

벽암록의 근간은 옛 스님들의 어록으로부터 골라 놓은 100개의 본칙과 이에 대한 설두 스님의 송(頌)이다. 고칙에 대한 송이라 하여, 송고(頌古)라고 한다. 송이라고 했으니 노래의 형식을 가리킨다. 고칙에 대한 느낌을 노래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평창은 본칙이나 송에 대한 설명이다. 고칙이 나오게 된 배경 등을 논리적으로 소상하게 설명한다. 착어(着語)는 덧붙여 놓은 말이라는 뜻이다. 본칙이나 송 따위에 한 두 마디의 짤막한 평가를 붙여 놓은 것을 가리킨다. 평창과는 달리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형식을 갖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선어를 어렵고 황당무계하게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선사들의 법어는 대개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구성된다. 맨 앞에 간단한 수시를 달고, 옛 스님의 고칙을 들어 준다.

수시와 고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법어를 끌어 가며, 중간에 송을 인용하기도 하고, 직접 지은 송을 달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어를 덧붙친 후 법어를 마무리한다.

이와 같은 형식은 오래 된 전통으로써, 현대의 법어들도 상황에 따라 가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골격은 대개 전통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굳이 선적인 법어가 아니라고 해도, 스님들 법문에 의례 한문 게송이나, 선지식들에 대한 일화들을 인용하곤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전통의 흔적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식이 오랜 세월에 걸쳐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까닭은 그런 형식 자체에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이다. 선적인 가르침을 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형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안(公案)을 공안, 곧 관공서의 공문서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 이야기에 공문서와 같은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려 했기 때문이다. 본칙이라는 표현도 비슷하다. 수행자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권위 있는 법칙이라는 뜻이다. 선의 가르침은 이처럼 선지식의 권위로부터, 선지식의 권위를 믿고 따르는 신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리무중의 표현이나 파격적인 발상은 수행자들을 자극하여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법어의 형식 안에는 이처럼 가르침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담겨 있다.

현대인들에게 이런 형식은 매우 낯선 형식이다. 형식을 떠나 한문 투의 노래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말장난 같은 착어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중간중간 인용하는 선사들의 일화는 그래도 좀 알아들을 법도 하지만, 여러 차례 비슷한 일화들을 반복하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옛날, 그것도 우리나라 스님도 아닌 중국 스님들의 일화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지 어리둥절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형식의 법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구태의연하다고 불평을 한다. 조리 있고 체계적인 법문을 기대한다. 재미있고 알기 쉬운 법어를 바란다. 법어나 법문도 현대인들을 위해 현대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어쨌든 법어도 언어를 통해 무엇인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세간, 출세간을 떠나 다를 바가 없다.

언어를 통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규칙과 형식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소통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하여는 언어적인 규칙과 형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칙에 대한 송이나 평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형식은 선문의 오래된 전통이다. 전통이 깊은 만큼 선적인 법어의 경우, 이 같은 형식을 따르는 편이 가장 손 쉽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선 수행을 하는 경우, 선의 특성상 직 간접적으로 과거 수행자들의 어록에 접하는 기회가 많다.

전통적인 어록들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해도 역시 특정한 형식과 편제를 따르고 있다. 어록을 읽기 위하여는 이러한 형식과 편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형식이나 편제는 어록의 이해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수시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에 관련된 고칙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해가는 전통적인 형식은 매우 강력한 설득력을 보여준다.

이 같은 법어 형식이 낯설게 여겨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이런 형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형식의 전통이 흐트러져 들쭉날쭉이 되어 버린 것에도 원인이 있다. 왜 그 자리에 그 말이 있어야 하는지 까닭을 모르게 되었다는 말이다.

법어는 논설문이나 수필 따위의 형식이 아니다. 수행을 전제로 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말이다. 수행이나 깨달음을 전제로 듣거나 읽어야 한다.

이처럼 선사들의 법어를 듣거나 읽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법어의 형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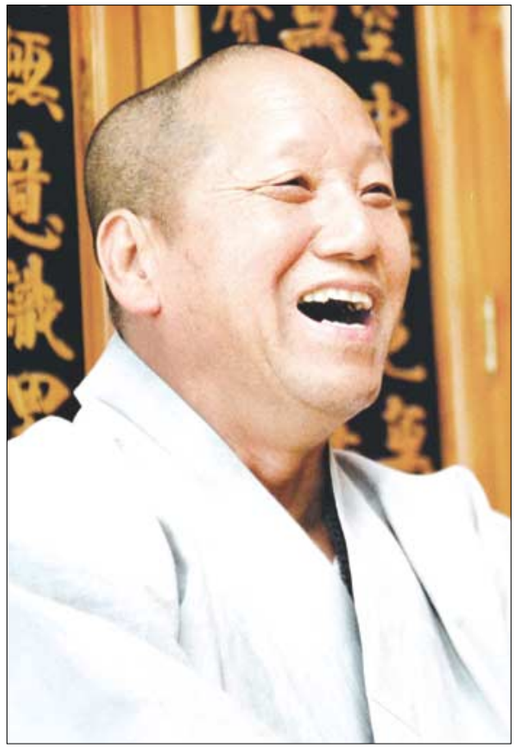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경우, 법어를 채록하여 인터넷으로. 지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다.

법어의 가르침으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법어의 형식을 눈 여겨 보아 두는 것도 법어를 읽는 좋은 방편이라고 하겠다.

오윤희 (본지 편집위원)

禪은 지혜의 보배칼 완성하여 다생의 무명초 베어내는 것

무차선 법회 법주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상당하시어 주장자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고)

요평불평(要平不平)이요
대교약졸(大巧若拙)이라
혹지혹장(或指或掌)이여
의천조설(倚天照雪)이로다

대야혜(大冶兮)여
마룡불하(磨龍不下)요
양공혜(良工兮)여
불식미휴(拂拭未休)로다
별별(別別)이여
산호지지탱착월(珊瑚枝枝撐着月)이로다

평평하지 못한 것을 평평함을 요함이요
크게 공교로움은 옹졸함과 같음이로다
혹은 가리키고 혹은 때림이여
하늘을 비껴서 눈[雪]을 비춤이로다

큰 화로에는
보검을 갈고 갈아서 내려오지 아니함이요
일등 양공이여
보검을 갈고 닦음을 쉬지 아니함이로다
특별히 다르고 다름이여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달빛이 영롱함이로다

선(禪)은 지혜의 보배칼을 완성하여 단칼에 다생(多生)의 무명초(無明草)를 베어 없앰이로다.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빈한하게 삶은 지혜가 짧음이요, 말이 야위면 털이 깊이로다."

하셨습니다.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만인에게 앞서는 지혜의 보배칼을 잘 연마해서 뭇 성인의 대열에 들어가 지혜의 보검을 잘 쓸지어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걸어왔는고? 열거하는 것을 잘 경청하소서.

경허 선사는 근대 백여 년 전의 대선지식인데, 명성이 전국에 분분하니 그 당시에 발심한 혜월 스님-경허 선사로부터 법을 받기 전까지는 '혜명'이란 법명을 썼다-이 경허 선사를 참방하여 여쭙기를,

"선사님, 저도 견성도인(見性道人)이 되고자 찾아왔습니다. 화두를 하나 내려 주십시오."

하니, 경허 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허공이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이 사대(四大) 몸뚱이 또한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나니, 다만 눈앞에 뚜렷이 밝은 한 물건이 있어서 법을 설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나니, 그대는 이 목전(目前)의 고명(孤明)한 한 물건을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화두 삼아 잘 정진해서 알아오게."

혜월 스님은 7년 동안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씨름하다가, 어느 날 짚신을 삼다 방망이로 신골을 치는 소리에 화두가 타파되었습니다.

곧장 경허 선사를 찾아가니, 경허 선사께서 마루에서 정진하시다가 당당하게 들어오는 혜월 스님의 모습을 보고는 즉시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어떤 것이 목전의 고명한 한 물건인고?"

"저만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혜명인고?"

이에 혜월 스님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가,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서 섰습니다.

"옳고, 옳다."

경허 선사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혜명 스님에게 '혜월'이란 법호(法號)을 내리고 법을 부촉하셨습니다.

혜월 선사는 경허 선사로부터 인가 받은 후 남방으로 내려오시어 통도사, 선암사 등

4면으로 이어짐

진제 스님 약력

- 1931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
- 1954년 남해 해관암에서 석우 선사를 은사로 출가 득도
- 1957년 통도사에서 구족계 수지
- 1967년 향곡선사로부터 법을 인가 받아, 경허-혜월-운봉-향곡 선사로 전해 내려온 법맥을 이음.
- 석가여래 부촉법 제 79법손
- 1971년 해운정사 창건.
- 1979년 해운정사 금모선원 조실 (現)
- 1991년 선학원 이사장, 중앙선원 조실 역임
- 1993년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증명 (現)
- 1994년 팔공산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現)
- 1996년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 (現)
- 1999년 경주 금천사 창건
- 2000년 문경 봉암사 조실
- 2002년 국제무차선대법회 법주
- 2003년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의원 (現)
- 2004년 대한불교 조계종 대종사 (現)

저서

<돌사람 크게 웃네>
<선 백문백답> <염화인천>
<바다 위 맑은 바람 만년토록 새롭도다> 등

그대는 눈앞의 한 물건을 아는가

지에서 선법을 크게 선양하였습니다.

혜월 선사께서 부산 선암사(仙岩寺)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많은 대중이 모여 살다 보니 항상 식량이 부족해 선사께서는 늘 논 개간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한번은 일등 호답(一等好畓) 다섯 마지기를 팔아서 산중 논을 개간했는데, 여러 달 만에 겨우 세 마지기를 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마지기를 팔아서 개간했으면 적어도 일고여덟 마지기로 불려놔야 하는데, 왜 겨우 세 마지기밖에 개간하지 못했느냐?

일꾼들이 일하다가 게으름이 나면,

"스님, 법문 좀 해 주십시오."

하여, 한번 법문을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법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의 스님들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스님, 일등 호답(一等好畓) 다섯 마지기를 팔아 세 마지기밖에 개간하지 못했으니, 이렇게 살림을 살다가는 대중이 다 굶어 죽겠습니다."

그러자 선사께서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소견머리 없는 사람들아! 논 다섯 마지기는 어디 갔어? 세 마지기가 더 불어나지 않았느냐?"

누가 농사를 짓던 간에 다섯 마지기는 그대로 있고 세 마지기를 더 개간했으니 불어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너른 세계를 사는 것이 깨달은 도인의 살림살이입니다.

선사께서는 연로하시도록 손수 시장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하루는 절에 천도재가 있어 일꾼을 데리고 시장 보러 가시게 되었는데, 노변에서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가

"스님, 우리 콩나물 좀 사 주십시오."

하면 한 동이를 사시고, 또 옆에 앉아 있는 이가

"우리 것도 사 주십시오."

하면 또 사고, 또 사고 해서 정작 사야할 제물은 못 사고 절에 콩나물만 여러 동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선(禪)은 일체의 집착을 벗어나 무애자재를 궁극으로 한다. 사진은 범어사 설선대법회에서 법문을 경청하는 불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어떤 것이 가장 높고 깊은 진리입니까?"

"높고 깊은 진리? 귀신 방귀에 털이 났지"

혜월 선사의 명성이 자자하자 신도들이 다투어 좋은 옷을 지어다가 선사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선사께서 그 옷을 입고 장에 나가시면, 거지들이 무심도인인 줄을 알고는 다가와서,

"선사님, 그 옷을 저희에게 좀 주십시오."

하면 선사께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입고 있던 옷을 먼저 벗어 주고 거지들의 옷을 받아 입고 오셨지요.

그래서 신도들이 옷을 지어 드리기가 바빴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행(行)입니다.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있고 '나'라는 상(相)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법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을 천진(天眞) 영아의 행, 무심도인의 행이라고 합니다.

일제치하 당시에 새로 부임한 남 총독이, 남방에 유명한 도인이 혜월 선사라는 소문을 듣고, 하루는 수하 몇몇을 데리고 선사를 방문했습니다.

총독이 인사를 올리고는 혜월 선사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떤 것이 부처님의 법 가운데 가장 높고 깊은 진리입니까?"

"부처님의 높고 깊은 진리? 귀신 방귀에 털이 났지."

귀신도 허무한데 귀신이 방귀를 뀐다는 것, 더군다나 그 방귀에 털이 난 것이라고 하니, 대체 이 무슨 소리인고? 이것은 총독 아니라 총독보다도 지나가는 이라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 총독은 여기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남 총독이 혜월 선사에게 방망이를 맞았다는 소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분분하니, 남 총독의 부하 무사 하나가 혜월 선사를 혼내주려고 장검을 차고 찾아왔습니다.

구두를 신은 채 노크도 없이 혜월 선사가 계신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선사의 목에다 장검을 들이대었습니다.

"스님이 혜월 선사입니까?"

"그렇소. 내가 혜월이오."

대답과 동시에 선사께서는 손가락으로 무사의 등 뒤를 가리켰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 무사가 급히 뒤를 돌아보는 찰나, 혜월 선사께서 벌떡 일어나 무사의 등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칼 받아라!"

순간 당황한 무사는 칼을 거두고 혜월 선사께 큰 절로써 예를 올리며,

"과연 위대하십니다."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지혜의 기봉(機鋒)을 갖춘 선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석화전광(石火電光)과 같은 기틀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혜월 선사께서 그 상황에서 두려워했다거나 마음에 공포심이 일어났던들, 선사의 목은 즉시 달아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수행을 하여 지혜의 보검을 잘 연마하면 혜월 선사와 같이 이처럼 멋지게 보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선사께서 노령(老齡)에는 항시 뒷산에 올라가 자루에다 솔방울을 가득 주워 담아 짊어지고 내려오시곤 했습니다. 하루는 산을 내려오다 잠시 쉬시던 바위에서 솔방울을 포대를 지고 반쯤 일어서는 자세로 이 몸뚱이를 홀쩍 벗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숨이 떨어지면 앞으로 거꾸러집니다. 부처님 이후로 무수한 도인이 계셨지만 이렇듯 독특한 열반상을 보인 분이 드뭅니다.

시회대중은 무심도인 혜월 선사를 알겠는가?

막위무심운시도(莫謂無心云是道)하라
무심유격일중관(無心有隔一重關)이로다.

무심이 진리의 극칙이라고 말하지 말라
무심도 하나의 관문이 가리워져 있느니라.

마조 선사는 84인의 도인 제자를 둔 위대한 도인입니다.

하루는 마조 선사께서 백장(百丈) 스님을 시자(侍者)로 데리고 산골 저수지를 지나가는데, 저수지에서 놀던 오리들이 인기척에 놀라 훨 날아갔습니다.

마조 선사께서 백장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인고?"

"들오리입니다."

"어디로 날아가는고?"

"저 산 너머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조 선사께서는 대뜸 백장 스님의 코를 쥐어 세게 비틀어 버리셨습니다. 백장 스님이

"아얏!"

하고 아파서 소리를 지르니, 마조 선사께서

"어찌 날아갔으리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일을 마치고 절로 돌아오자 백장 스님은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산 너머로 날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마조 선사께서는 어째서 코를 비틀었는고?'

이것이 의심이 되어 일주일간 침식(寢食)을 잊고 의심삼매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야 마조 선사께서 코를 비튼 뜻을 깨닫고는 방문을 박차고 나와 조실스님 방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조실스님! 어제까지는 코가 아프더니 오늘은 코가 아프지 않습니다."

마조 선사께서는 백장 스님의 눈이 열린 것을 아시고 운집종을 치게 하니, 몇 백 명 대중이 모두 법당에 모였습니다. 조실스님이 법상에 올라 좌정(坐定)하고 있는 차에 백장 스님이 맨 나중에 들어오더니, 대뜸 법당 마루에 깔아놓은 절하는 배석자리를 돌돌 말아 어깨에 메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조 선사께서 즉시 법상에서 내려와 조실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회대중은 마조 도인과 백장 시자를 알겠는가?

마조 도인이 좌정하고 있는데 백장 스님이 배석자리를 말아 메고 나간 이 도리를 알겠는가?

용수불개전체현(龍袖拂開全體現)이요
수미도탁반공중(須彌倒卓半空中)이로다

5면으로 이어짐

"일백가지 풀끝에 불법의 진리 아님이 없습니다"

어의(御衣) 소매를 떨치는데 전체가 드러남이요
수미산이 허공 중간에 거꾸로 꽂힘이로다

부처님 출세 이후로 무수 도인이 나왔지만 재가자(在家者)로서 온가족이 견성한 것은 방거사 일가족뿐입니다.

당시에 중국에는 위대한 마조 선사와 석두 선사가 쌍벽을 이루어 선법(禪法)을 크게 선양하고 있었습니다.

방거사가 하루는 '나도 불법의 진리의 도를 깨달아야겠다.'는 작심을 하고, 큰 신심을 발하여 두 분 도인을 친견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석두 도인 처소에 다다라 예삼배(禮三拜)를 올리고는,

"선사님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만 가지 진리의 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한 자, 이 누구입니까?"

하고 아주 고준(高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석두 도인께서는 묻는 방거사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입을 틀어막는 여기에서 방거사의 진리의 눈이 팔부가 열렸습니다.

방거사는 석두 도인께 큰절을 올리고 그 걸음으로 다시 마조 도인을 친견하러 갔습니다. 마조 도인 처소에 이르러 예삼배를 올리고는,

"만 가지 진리의 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한 자, 이 누구입니까?"

하고 종전과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에 마조 도인은,

"네 입으로 서강수(西江水) 물을 마셔 다해 올 것 같으면 그대를 향해 일러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거사는 이 한 마디에 진리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 후로 집에 돌아와서 조상대대로 내려온 가보(家寶)와 모든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고, 개울가에 조그만 떼집을 짓고 산죽으로 조리를 만들어 팔며 온가족이 참선정진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방거사의 딸과 마누라까지, 온가족이 다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방거사가 딸 영조에게 한 마디 던지기를,

"일백 가지 풀끝에 불법의 진리 아님이 없구나."

하니 영조가 받아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백발이 되고 이빨이 누렇도록 수도(修道)를 하시고도 그러한 소견밖에 짓지 못하십니까?"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백 가지 풀끝에 불법의 진리 아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대답했지만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대중은 영조의 낙처(落處)를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는 방거사가 출타 중인데 단하천연 도인이 방거사를 찾아왔습니다. 사립문 앞에 이르니, 마침 방거사 딸 영조가 우물가에서 채소를 씻고 있었습니다.

단하천연 도인이,

"거사 있느냐?"

하니 영조가 채소를 씻다가 일어서서 정중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서 있었습니다. 천연 도인이 재차

"거사 있느냐?"

하고 물으니, 영조가 올렸던 손을 내리고 채소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에 단하천연 도인은 즉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대중은 알겠는가?

단하천연 도인이 "거사 있느냐?" 하는데 영조는 어째서 가슴에 손을 얹고 서 있으며, 단하천연 도인이 쳐 아시고 다시 "거사 있느냐?" 하는데 영조는 어째서 손을 내리고 채소 바구니를 이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느냐?

영조가 손을 얹고 서 있는 것과 채소 바구니를 이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린, 이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면 부처님의 진리의 법과는 거리가 멀고 멂이로다.

영조는 여자의 몸으로서 부처님의 진리의 대도를 깨달아 이렇게 고준한 법을 쓸 줄 알았습니다. 천불(千佛) 만조사(萬祖師)와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이 고준한 법을 자재하게 썼던 것입니다.

하루는 방거사 일가족이 초가집 방에서 쉬던 차에 방거사가 누웠다가 앉으면서 한마디 던지기를,

"어렵고 어려움이여! 높은 나무 위에 백 석이나 되는 기틀을 펴는 것과 같구나."

하니 마누라 보살이 받아서 말했습니다.

"쉽고 쉬움이여! 일백 가지 풀끝에 불법의 진리 아님이 없구나."

그러자 딸 영조가 석화전광(石火電光)과 같이 받아서 말했습니다.

"어렵지도 아니하고 쉽지도 아니함이여! 곤한 즉은 잠자고 목마른 즉은 차를 마신다."

방거사 일가족의 이 세 마디에 부처님의 49년 설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루는 방거사가 방안에서 좌복에 앉아 있다가 딸 영조가 들어오니, 딸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정오에 이 몸을 벗고 열반에 들리니, 네가 밖에 나가 정오가 되었는지 해를 보고 오너라."

영조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식이 되어서 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나가서 한번 보지."

방거사가 밖에 나간 사이에 영조는 아버지 좌복 위에 앉아 참나지간에 애지중지하는 이 몸뚱이를 벗어버리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방거사가 들어와서 보고는,

"장하다 내 딸이여! 너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서 나는 천성 일주일을 연기해야 되겠다."

하셨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는 사이, 그 참나지간에 애착의 주머니를 벗고 열반에 들었으니 장하다 아니할 수 없지요.

방거사는 일주일 후, 딸의 시신을 화장해 마치고 마누라 보살에게 간다 온다는 말도 없이 좌복에 앉아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웃 노보살이 방거사 집을 찾아왔다가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 방문을 열어보니, 방거사는 좌복 위에 앉은 채로 열반에 들어 있었습니다. 노보살이 밖에서 풀을 매고 있는 방거사 마누라 보살에게 달려가서,

"거사님이 열반에 드신 것 같네."

하니 방거사 마누라 보살은 한 손으로는 풀을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는 호미로 땅을 파는 자세로 이 몸뚱이를 벗어버렸습니다.



깨달음에는 차별이 없다. 확고 부동한 수행이 필요할 뿐. 사진은 포행하는 진제 스님. 사진제공=해운정사

멋지게 살다가 열반한 방거사 일가족처럼
누구나 참선정진 잘하면 자유자재 경지 도달

모든 대중들이여!

방거사 일가족이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간, 이것을 바로 볼지어다.

이것은 천추(千秋)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자유자재로 벗고 가는 것은 오직 불법에만 있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참선수행을 해서 바른 진리의 눈이 열리면, 이와 같이 멋지게 살다 멋지게 열반에 드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대중들도 방거사 일가족과 같이 대자유인이 되려면, 참선정진을 잘 해서 바른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모든 도인과 더불어 지혜의 보검을 자재하게 쓰는 그러한 저력이 있어야만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거사가 마지막으로 하신 법문,

"어렵고 어려움이여! 높은 나무 위에 백 석이나 되는 기틀을 펴는 것과 같구나." 한 것은 어떠한 진리의 한 모퉁이를 드러내 보인 것이며, 방거사 마누라 보살이 말한 "쉽고 쉬움이여! 일백 가지 풀끝에 불법의 진리 아님이 없구나" 한 이것은 또 어떠한 진리의 한 모퉁이를 드러낸 것이며, 방거사 딸 영조가 말한 "어렵지도 아니하고 쉽지도 아니함이여! 곤한 즉은 잠자고 목마른 즉은 차를

6면으로 이어짐